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2025. 8.



태권도진흥재단
Taekwondo Promotion Foundation



국립태권도박물관
National Taekwondo Museum

국립여성사전시관
THE NATIONAL WOMEN'S HISTORY EXHIBITION HALL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 이숙경 교수 (전주대학교)

곽정현 교수 (가천대학교)

참여연구원 : 최광근 교수 (전주대학교)

김종수 교수 (계명대학교)

이선희 사무총장 (한국여성스포츠회)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일러두기

1. 이 보고서는 한국 여성 태권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여성 태권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이 보고서는 태권도진흥재단에서 수행한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의 구술채록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여성 태권도의 발전과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3. 구술채록 자료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내용을 최대한 변경없이 사용하였지만 일부 문구의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수정하였다. 구술채록의 경우는 개인의 기억에 의존한 자료이기 때문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객관적 근거를 찾아 보충하려고 노력하였다.
4. 이 보고서의 장, 절, 항의 구성 및 표, 그림, 사진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책자 : 저자. 연도. **책자명**(발행지: 발행처).
 - (예) 홍길동(2025). **태권도**(서울: 00출판사).
 - 논문, 학술지 기사 : 저자, 연도. 논문명. **학술지**, 제00호, 00쪽.
 - (예) 홍길동(2025). 태권도 연구. **태권도연구지**, 제1호, 15쪽.
 - 신문기사 : 『00일보』, 발행년, 월, 일.
 - 인터넷 자료 : 자료명, 인터넷 사이트 주소(검색일).
 - 1차 사료 : 소장처, 사료명(발행일)
5. 참고자료 중 대한태권도협회에서 1971년부터 발행하였던 태권도지, 태권도 계간지, 계간지는 ‘태권도지’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 목 차 】

제 I 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의미	3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제 II 장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7
1. 여명기(1945~1960): 해방과 전쟁, 그리고 여성 태권도의 씨앗	9
1) 사회·역사적 배경	11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17
3) 여성 태권도의 여명	19
2. 태동기(1960년대): 여성 태권도 보급의 시작과 인식 변화의 조짐	23
1) 사회·역사적 배경	25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28
3) 여성 태권도의 태동	31
3. 여성 태권도의 성장기(1970년대): 조직화, 제도화 및 저변 확대	41
1) 사회·역사적 배경	43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46
3) 여성 태권도의 성장	56
4. 발전기(1980년대): 국내·외 여성 태권도 경기 활성화	77
1) 사회·역사적 배경	78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82
3) 여성 태권도의 발전기	90

5. 도약기(1990년대): 올림픽과 여성 태권도의 위상 강화	119
1) 사회·역사적 배경	121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124
3) 여성 태권도의 도약기	127
제Ⅲ장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의 특성과 의의	149
1. 선구자들의 불굴의 정신	151
2. 만연한 차별과 사회적 장벽 극복	152
3. 여성 수련방식 변화	154
4. 현대여성 태권도에 미친 영향	156
제Ⅳ장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의 도전과제와 미래	159
1.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의 도전과제와 미래	161
2.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	163
■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의 여성사적 의미	167
■ 참고문헌	173

【 표 목차 】

표 1. 1945~2000년 이전의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표	5
표 2. '88서울올림픽 태권도종목에 참가한 나라 중 설문지를 작성한 나라 명단	87
표 3.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대표선수	108
표 4. 1988년 서울 올림픽 출전한 여자 대표선수	109
표 5. 역대 올림픽 여성 종목의 변화	121
표 6.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경기단체 변천과정(연구자 재구성)	128
표 7.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된 겨루기 감독 및 코치현황(1996년~1999년)	137
표 8. 1972년부터 1999년 국기원 태권도사범지도자 연수 이수자	146
표 9. 2000년 이전 여자 태권도 키워드로 찾은 논문 및 학술지 동향	147

【 그림 목차 】

그림 1. 제헌헌법 초안	11
그림 2. 숙명여자고등학교 농구부 홍콩 원정 경기	11
그림 3. 1948년 런던올림픽 로고	13
그림 4. 최초의 올림픽 후원권	13
그림 5. 한국여성체육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여성체육학회지, 70주년 기념 포스터	15
그림 6. 한국 최초의 올림픽 참가 여성 박봉식	16
그림 7. 9개관 로고	18
그림 8. 이교운 관장과 백금녀의 수련장면	20
그림 9. 태릉선수촌 전경(1967)	28
그림 10. 대한태권도협회 창립총회 후 회식장면	29
그림 11. 대한태권도협회 연혁 소개	30
그림 12. 김영숙의 수련장면	35
그림 13. 1960년대 무덕관 출신인사로 표기되어 있는 김영숙	36
그림 14. 국기원 개관 獻詩(헌시)	46
그림 15. 개원 당시 국기원의 모습	47
그림 16.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기태권도 휘호	48
그림 17. 10개관 통합 결정 공문 및 결의	49
그림 18. 대한태권도협회(1972). 제1기 지도자교육	50
그림 19. 1973년 5월 25일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포스터와 홍보자료	51
그림 20. 1973년 5월 25일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 모습	51
그림 21. 교사들의 태권도수련 장면	53
그림 22. 대한태권도협회(1971). 제6회 대통령기 단체대항전 소개	54
그림 23. 태권도교본	56

그림 24. 태권도지 창간사(1971년 4월호)	56
그림 25. 42회 승단심사 여자 17명	57
그림 26. 1974년부터 태권도지에 연재된 ‘태순양’	58
그림 27. 미국에 태권도한국의 이미지 심고 온 꼬마 태권도시범단 “코리아 리틀 트레저스”	60
그림 28. 여성과 태권도	61
그림 29. 은광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 창설	62
그림 30. 수련중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	63
그림 31. 여성 수련생을 태권도를 지도하는 김영숙	64
그림 32. 이화여자대학교 태권도부 학생들과 김종선 교수와 함께	65
그림 33. 1979년 7월 여자국가대표팀 코치활동	65
그림 34. 대농 청주공장 태권도부	65
그림 35. 제2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이모저모	66
그림 36. 제3회 여자부 및 소년부 우승자 기념 사진	67
그림 37. 제5회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우승자 명단 및 입상자 사진	67
그림 38. 1971년도 전국여자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모습	68
그림 39. 은광여고 및 이화여대 태권도부의 활동	68
그림 40. 대한태권도협회(1972). 1971년 여자부 우수 선수. 태권도지 2월호.	69
그림 41. 제1회 전국여성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상장과 메달(1979년)	69
그림 42. 이학선(1979).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창립 그 의의와 발전	70
그림 43.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창립총회	70
그림 44. 제1회 전국여성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대회자료	71
그림 45. 1978년 여성시범단 시범 후 단체사진	72
그림 46. 제1회 전국여성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대회책자 속지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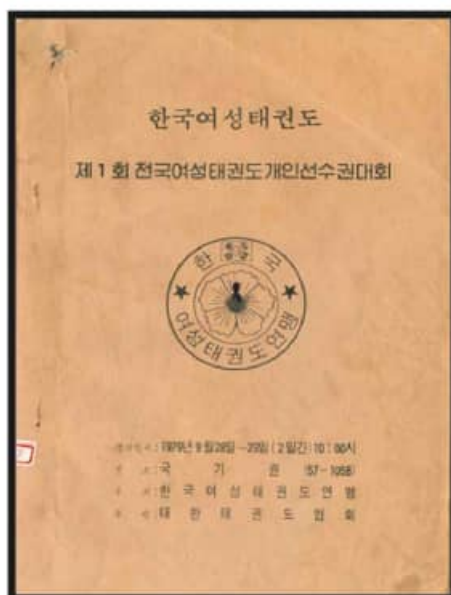
그림 47. 태권도 태권도지에 연재된 ‘태순양’ 1편	75
그림 48. 1977년 개봉한 태권동자 마루치아라치	75
그림 49. 국제종합경기대회 로고	79
그림 50. 1986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프로그램	84
그림 51. 전자 디지털 자동계시기의 개발 및 장비 제정 자료	85
그림 52. 태권도지 10주년 기념특집호	86
그림 53. 1988년 올림픽게임 행사	89
그림 54. 1980년 국기원 기술기구임원	92
그림 55. 1980년 대한태권도협회 전문위원회 임원	93
그림 56. 대한태권도협회 선수등록증	95
그림 57. 1988년 여성 태권도선수권대회 주부 태권도 선수 서영애 은메달	96
그림 58. 태권낭자회 창간호	100
그림 59. 태권낭자회 창간호 임원 소개	101
그림 60. ‘태권낭자회’ 창간지에 실린 태권낭자회의 일정보고	101
그림 61. 1989 태권낭자회 태권도 수련 모습	102
그림 62. 기왓장 15장을 격파하는 장정남 심판	104
그림 63. 전국대학대항태권도대회 여자부 입상자	105
그림 64. 1987년 태권낭자회 수련이후 단체사진	106
그림 65. 제2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 영신여고 10년째 우승	106
그림 66. 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1기 졸업생 24명 배출	107
그림 67. 1987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부 신설) 임신자 뱀텀급 우승	108
그림 68. 세계대학스포츠연맹에서 태권도를 유니버시아드 공식종목으로 승인한 후 첫 종합우승 사진	108

그림 69. 한국여성으로서 유일한 서춘화 심판과 아니타 심판	109
그림 70. '88서울올림픽에 참여한 국제여성심판 인터뷰내용	110
그림 71.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장에서 어린이 시범단 시범사진	111
그림 72. 미들급 김현희 선수 시상식 및 사마란치 IOC위원장 시상식	111
그림 73. '88서울올림픽 여자부 입상자 인터뷰 내용	112
그림 74. 태권낭자회에 실린 태권도 찬가	113
그림 75.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우승자 플라이급 오명화 선수	115
그림 76. 제53회 사범교육 연수생 149명 중 여성 5명	115
그림 77. 인터뷰-국제심판 박정옥	116
그림 78. 태권낭자회 1990년 하이라이트	117
그림 79. 1988년 US여자선수권대회 박세리 모습	123
그림 80. 1995년 9월4일,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비 제막식	125
그림 81. 정식종목 채택 자료	125
그림 82. 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고등부 출전기록	125
그림 83. 제1회 태권도한마당대회, 어린이부터 실버층까지	127
그림 84. 태권낭자 1990년 3월 30일 목련호 계간지 표지	129
그림 85. 1997년 부산 아시아게임 태권도종목 금메달리스트	129
그림 86. 태권낭자회 1992년 제23, 24호	131
그림 87. 제1회 태권도한마당 기존품새 공동1위자	131
그림 88. 수상의 기쁨	132
그림 89. 태권낭자회 태권도시범 MBC방송출연	133
그림 90.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가대표 코치진 단체사진	134

그림 91. 최초 여성실업팀 인천시청 임신자 감독의 인터뷰	136
그림 92. 한국여성 태권도회(구 태권낭자회)	138
그림 93.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대표선수들	139
그림 94. 19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140
그림 95. 한국여성 태권도회 계간지 1994년 26호 내용	141
그림 96.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팜플렛 표지	142
그림 97.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팜플렛 내용	143
그림 98. 1998년 기술심의회 명단	144
그림 99. 태권낭자회 계간지 21호에 실린 대학탐방 및 논단 코너 내용	145
그림 100. 태권낭자회 계간지 22, 23호에 실린 논고내용	145

제 I 장

서론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II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미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선언과 함께 출발하였으며, 이는 곧 3F(Female, Feeling, Fiction)의 시대로 구체화되었다. 산업사회에서 육체적 완력이 중심이었다면, 정보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감성, 창의성, 공감 능력 등 새로운 가치들이 부상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위상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¹⁾. 이러한 사회문화적 전환은 여성의 정치 참여, 경제 활동, 학문적 리더십 강화로 이어졌고, 스포츠 분야에서도 점차 여성의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역사와 사회 구조 속에서 오랫동안 주변화된 존재로 위치지어졌고, 주체적인 삶의 기회를 박탈당해 왔다²⁾. 체육과 스포츠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여성의 신체 활동은 전통적으로 육아와 가사에 필요한 체력 수준으로만 평가받았으며, 교육적·사회적 가치로서의 의미는 축소되거나 무시되어 왔다³⁾.

전통적으로 스포츠는 남성 중심적 속성이 강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여성은 생물학적 차이와 신체적 한계를 이유로 주요 경기나 전문 무도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성별 구분은 유소년기부터 시작되며, 남자아이에게는 축구, 농구, 태권도, 유도과 같은 활동적 종목이 권장되고, 여자아이에게는 체조, 발레, 피겨스케이팅 등 정적이고 우아한 종목이 권장되는 경향이 강했다⁴⁾. 특히 태권도, 유도, 합기도, 권투 등 격투기 종목은 ‘남성적’, ‘공격적’이라는 이미지로 인해 여성의 접근이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들의 활약은 무술 현장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등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이었던 종목에서도 여성 선수들의 국제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스포츠계 전반의 성평등 의식 강화와 연동되어 여성의 권리와 역량을 재조명하고 있다. 여성의 수련 동기 또한

1) 권일권, 조광민(2012). 여성의 아웃도어 스포츠의류 구매결정요인이 브랜드이미지와 동일시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233-243.

2) 박정현, 이선희, 송선영(2020).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자기방어수련에 따른 성인여성들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의 변화.” 국기원태권도연구, 11(1), 41-64.

3) 박정현, 이선희(2025). 미디어 리프레임을 통한 여성 스포츠의 진화.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9(2), 43-57.

4) 서명일(2008). 여성의 무도수련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무도산업대학원.

과거의 호신술이나 체력 향상에서 벗어나 자기표현, 자기확신, 경력 개발로 확장되고 있으며, 이는 태권도라는 장르가 가진 신체 문화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전통무예인 태권도는 광복 이후 급속한 제도화 과정을 거치며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하였다. 현재 세계태권도연맹(WT)은 213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태권도는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 문화 콘텐츠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태권도를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무기 없는 무술로서, 손과 발을 이용한 공격과 방어 기술을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스포츠이자 무도”로 정의하고 있다⁵⁾.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정의와는 달리 실제 수련 현장에서는 태권도가 남성 중심적 운동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여전하다. 특히 초기에는 수련자 대부분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최근 들어 여성 수련생의 비율은 증가하여 일선 도장에서 여성 비율이 약 40%에 이르고 있으며, 대학의 태권도학과에서도 여학생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학과도 존재한다. 이는 여성 태권도인의 양적 성장과 사회적 관심 증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하지만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관련 단체의 여성 임원 비율은 여전히 저조하며, 정부가 권장하는 3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대부분의 단체에서 여성 임원은 10~20% 수준에 머무르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여성 태권도인들이 조직 내 핵심 의사결정 구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낸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문화, 정체성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적인 문제이다.

정책의 기획과 제도 개선은 역사적 성찰을 통해 가능하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기획하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 도구이다. 여성 태권도 역시 예외가 아니며, 그 역사를 조명하는 일은 향후 태권도계의 성평등 실현과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여성 태권도인들의 활동은 단순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젠더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여성 스스로가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5) 대한태권도협회(2025). 태권도란 무엇인가.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1>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초기 한국 여성 태권도의 발전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단순히 무예사나 체육사의 일부로서의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성 역할 변화와 여성의 주체성 확대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태권도를 바라보고자 한다. 2000년 이전까지 여성들이 태권도 분야에서 어떻게 참여하고 기여해왔는지를 추적함으로써,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면한 제약과 도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실천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 태권도의 초기 등장과 확산, 조직화와 제도권 진입, 국제 무대에서의 인정까지의 발전 단계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한다. 둘째, 김영숙, 남궁명석, 장정희, 정효심, 임신자 등 선구적인 여성 인물들의 활동과 기여를 중심으로 그 역할과 의미를 분석한다. 셋째, 여성 태권도의 성장을 형성하거나 저해했던 사회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요인을 검토한다. 넷째, 초기 여성 수련자들이 경험한 차별, 자원 부족 등을 분석함으로써 여성 무도인의 정체성과 실천을 복원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기록, 학술연구, 신문기사,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서사적 일관성과 비판적 분석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다. 초기 여성 태권도는 단지 개인의 체육 활동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여성 해방과 성역할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945년 이후의 여성 태권도 발전사는 곧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평등화를 위한 여성들의 끊임없는 실천의 역사이며, 태권도를 통한 신체적 수행은 곧 사회적 경계와 금기를 넘는 상징적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태권도의 역사를 단순한 종목 발전사로 국한하지 않고, 젠더 사회사, 몸의 역사, 스포츠 문화사로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현재와 미래의 여성 태권도인을 위한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성의 참여가 단지 ‘존재’로서의 수치를 넘어서 ‘영향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태권도 안팎의 구조와 문화를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데 있어 역사적 분석은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학문적 기여를 넘어 실천적 함의를 지닌다.

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로 광복이후부터 2000년 이전까지의 여성 태권도인의 인물과 주요 사건의 구성과 전환점을 중심으로 여명기(1945~1960년), 태동기(1960년대), 성장기(1970년대), 발전기(1980년대), 도약기(1990년대)로 연대를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여성 태권도인의 발전사를 조사하였으며, 둘째, 국립태권도박물관의 소장 자료와 여성 태권도인의 구술채록을 인물과 사건의 구성을 재 조정하였다. 셋째, 태권낭자회의 계간지(창간호~제26호), 태권도지(1971년~2000년), 국기원 40년사(국기원, 2012), 국기원 50년사(2022),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2014)를 인물과 사건의 전환점을 중심으로 자료화 하였다[표 1].

표 1. 1945~2000년 이전의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표(연구자 재구성)

연도		주요 사건	설 명
여 명 기	1945	광복	여성 교육참정권 법제화, 사회적 성차별 지속
	1955	'태권도' 명칭 사용 시작	최홍희 등이 주도, 무도 통합 시도
	1957	김영숙 사범 태권도 입문	여성 최초 수련 사례, 상복으로 도복 제작
태 동 기	1961	대한태수도협회 창립	태권도 통합 조직 등장, 제도화 시작
	1963	전국체전 태권도 정식 종목 채택	남자부만 정식종목 채택
	1966	여성 초단자 3명 등장	'세 여장부', 신문 보도로 사회 주목
	1968	여성 3단(김홍) 등장	최초 여성 고단자, 공식 기사 확인됨
	1968	제1회주한외국인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공식대회에서 여자부 최초 대회
	1969	권옥희·송영임 사범 해외 파견	최초의 해외 여성 지도자
성 장 기	1970	제1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개최	여성 공식 경기 시작, 41명 참가(남궁명석 최초 우승)
	1971	최초의 여성전문태권도장 개관	최초의 여성전문태권도장인 선미태권도장 개관(김영숙관장)
	1972	국기원 설립	기술 표준화지도자 양성의 중심기관 출범
	1973	세계태권도연맹(WTF) 창설	태권도의 국제화 공식화 시작
	1975	제5회 주한외국인및여자부개인선수권대회	여자부 대회 명칭 사용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태권도' 동아리 개설	김영숙 사범이 이화여대 학생들 지도
	1978	프레월드 여자부 국가대표 선발전	임신자 등 여성 선수 공식 대표 진출
	1979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여성 전용 조직 출범, 회장 이학선
		제1회 여성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후 개최
		한국국가대표선발전(대만국제초청태권도대회)	임신자, 최선자 금메달
발 전 기	1981	여성 심판자격취득	장정남
	1984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해체	대한태권도협회 의결
	1985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부 경기 시범종목 채택
	1986	한국여성태권도회	여성지도자 21명으로 창립
	1987	태권낭자회	한국여성태권도회→태권낭자회로 명칭변경 태권낭자회 계간지 발행
	1987	전국 춘계 종별 선수권 대회	최초 여성태권도심판 활동 서춘희(30세), 박정옥(27세), 양인옥(25세)
		제1회 세계여성태권도선수권대회	공식적인 여성 태권도 공식대회
	1988	대한태권도협회 여성분과위원회 신설	기술전문위원회 산하 위원회(장정남 초대 위원장)
도 약 기	1990	제12회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여자부 정식종목 채택
		제1회 태권낭자 회장배 여자 선수권 대회	회원들간의 경량급, 중량급 구분하여 진행
	1992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게임	태권도시범종목 채택
	1993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시범종목 채택
	1994	태권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부, 남자부 정식종목 채택
		한국여성태권도회	태권낭자회→한국여성태권도회 명칭 변경
	1995	제76회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정식종목 채택
	1999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김영숙 조직위원장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 II 장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1. 여명기(1945~1960년)

2. 태동기(1960년대)

3. 성장기(1970년대)

4. 발전기(1980년대)

5. 도약기(1990년대)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 II 장 1.여명기

해방과 전쟁, 그리고 여성 태권도의 씨앗





1 여명기(1945~1960): 해방과 전쟁, 그리고 여성 태권도의 씨앗

1) 사회·역사적 배경

1945년부터 1960년은 8·15 광복과 새로운 정권 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을 겪은 이 시기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로 기억된다.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불안정, 경제적 궁핍 속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사회적 토양을 마련하는 일이 힘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은 우리 것을 되찾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도 문화와 체육은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를 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과 1949년 교육법 공포는 민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기관의 확충과 교육과정 개정을 이끌었다. 제헌헌법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하며, 1950년 초등교육 의무화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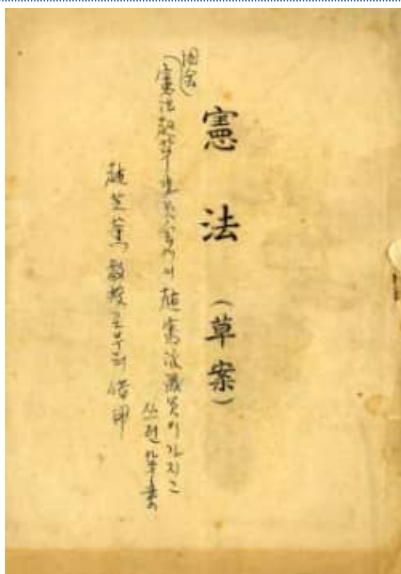


그림 1. 제헌헌법 초안⁶⁾



그림 2. 숙명여자고등학교 농구부 홍콩 원정 경기⁷⁾

교육의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1950년대 초반까지 전개된 교육개혁 운동인 새교육운

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7)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동은 일제의 잔재를 벗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민주 교육을 추구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오천석이 1946년 출간한 『민주주의 교육의 건설』에서 듀이(Dewey, J.)의 교육 사상을 소개했으며, 실천적으로는 윤재천이 『신교육서설』을 통해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교육을 강조했다. 새교육운동은 주로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 연구보다는 학습 지도법 개선에 주력했다. 하지만 전란과 교육시설 부족, 취학아동 수의 자연 증가 등으로 의무교육의 실효성은 미미했다.

광복 직후,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문화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힘썼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를 비롯해 예술원과 학술원의 창설이 이루어졌고, 국립극장과 시립교향악단도 창설되었다. 또한, 1947년 2월에는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가 결성되어 문화 발전을 도모하였다⁸⁾.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체육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일제 강점기의 군사적 체육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신체육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제1공화국은 전후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 별다른 경제 정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에 불과하며, 주요 수출품의 90%가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었다. 경제적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했으며, 1948년 런던올림픽에 선수단을 파견할 형편도 되지 않았다. 결국, 올림픽 선수단 파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올림픽 후원권을 발행해 국민 모금을 진행했고, 이는 한국 복권의 효시로 기록된다⁹⁾.

광복 후 체육계 지도자들은 교육과 체육의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미국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체와 정신의 균형 있는 발달을 추구하는 체육 이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적응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목표와 맞물렸다. 체육은 단순한 신체 훈련을 넘어서 사회적 교류와 민주주의적 활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이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복종을 강조한 체육에서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체육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또한 학교체육의 민주화 물결이 일면서 스포츠 활동의 강조가 커졌고, 학교 운동부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갔다¹⁰⁾.

8) 한국학중앙연구원(20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9271>

9) 국사편찬위원회(2006). 사료로 본 한국사, 제1권.

10) 김달우(1992). 해방 이후 학교체육의 재편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1945년~1955년을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광복 후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는 급변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은 여성에게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 전쟁 중 여성들은 가사노동 외에도 전시 성폭력, 강제 노동, 피난민 지원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다. 전후 복구 작업에서도 여성들은 중요한 경제적 기여를 했지만, 그들의 노동은 ‘보이지 않는 노동력’으로 간주되었고,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점차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다.



그림 3. 1948년 런던올림픽 로고¹¹⁾



그림 4. 최초의 올림픽 후원권¹²⁾

또한 이 시기의 여성 교육은 초등교육 의무화와 함께 일부 여성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으며, 일부는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반영한 내용에 한정되었고, 여학생들이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5·10 총선에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었지만, 여성 정치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여성은 여성단체나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집중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제헌 헌법은 여성의 평등을 명시하고, 5·10 총선에서는 여성에게 참정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의 학력 수준은 낮았고, 경제적 활동은 제한적이었다. 1954년 여학생 수는 남학생의 59%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어업에 종사하며 경제적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여성의 노동도 대부분 저임금과 열악한 조건에서 이루어졌고, 성차별과 임금 격차는 심각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성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

11) IOC(2025). IOC홈페이지, 1948년 런던올림픽 로고, <https://www.olympics.com/ko/olympic-games/london-1948>.

12)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3) 최희숙(1993). 한국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을 지속했다. 1950년대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권리 향상과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해 활동했으며, 이는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가정 내 역할과 현모양처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화기 이전까지 한국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당시 여성들은 주로 가사와 자녀 양육, 또는 각종 제례와 공동체 행사에서 소극적인 형태로 신체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런 활동들은 스포츠라기보다는 문화적 행사나 놀이의 성격이 강했으며,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거나 경쟁하는 형태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이 한국에 밀려오면서 서구의 새로운 문물이 소개되었고, 그 중 하나가 바로 학교체육과 근대 스포츠였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서구의 체육 문화가 일본을 통해 전파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여성들의 스포츠 활동은 그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 특히, 학교체육이 도입되면서 여성들은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첫 기회를 맞이했다.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특히 여성들은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구조에서 벗어나 점차 사회적 활동의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체육 분야에서도 이 변화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한국에서 여성 스포츠의 발전은 점진적이었다. 여성 스포츠의 발전은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한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 일어난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는 점차 확대되었다. 특히, 1945년 광복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는 여성 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개화기 이전에는 여성들에게 체육 활동이 제한적이었으나, 근대 스포츠의 도입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45년 이후 여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체육과가 신설되었으며, 여성 체육지도자가 배출되기 시작했다. 1945년 10월, 이화학당은 학칙을 변경하고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체육과를 신설하여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63년에는 체육대학으로 승격되었다¹⁴⁾. 이는 한국에서 여성 체육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으로¹⁵⁾, 1949년에

14) 이현정(2010). 한국 여성체육사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27-35.

는 최초의 체육지도자 13명이 배출되었고, 그들은 학교체육과 체육행사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신체 훈련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기실현과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 시기에 여성 스포츠의 학술적 뒷받침을 위하여 1954년 ‘대한여자체육연맹’이라는 명칭으로 한국여성체육학회가 발족하였으며, 2024년 70주년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여성 스포츠 발전의 학문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그림 5. 한국여성체육학회 홈페이지 및 한국여성체육학회지¹⁶⁾

이와 함께, 1950년대에는 여성 스포츠가 점차 사회적 인정과 참여를 얻기 시작했다. 당시 여성들은 학교 운동부와 다양한 체육 대회를 통해 점차 스포츠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은 국제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에는 숙명여자고등학교의 농구단이 홍콩 원정 경기를 가졌고, 1959년에는 경기여자고등학교의 배구단이 대만 원정 경기를 가는 등, 점차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을 펼쳤다¹⁷⁾.

1960년 12월 5개국 여자 농구 대회에서 한국의 대표팀이 참가하며, 학교 운동부가 한

15) 김달우(1992). 해방 이후 학교체육의 재편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1945년~1955년을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6) 한국여성체육학회 홈페이지. <http://www.kpeaw.org>

17)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국을 대표하는 스포츠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¹⁸⁾. 이러한 활동은 여성들이 스포츠를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경쟁과 성취의 공간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 여성선수들이 올림픽이라는 국제무대에 첫 발걸음을 내딛었고, 그 외에도 많은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하여, 한국여성스포츠를 세계에 알리기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는 때였다. 1948년 광복 직후 이루어진 런던올림픽에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박봉식 선수는 육상의 투원반 종목에 출전하였으며 당시 대한민국 선수로서는 유일한 여성선수였다. 물론 국제대회의 경험이 부족하여 좋은 성적을 획득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초의 여성선수라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박봉식 선수 이후 대한민국의 여성선수들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남성선수들 못지 않은 우수한 성적을 획득함으로써 전세계 스포츠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하게 되었다¹⁹⁾.



그림 6. 한국 최초의 올림픽 참가 여성 박봉식²⁰⁾

18) 한국체육사 편찬위원회(1999). 한국체육사.

19) 이현정(2010). 한국 여성체육사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27-35.

20)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여성 스포츠가 험난한 시대상황을 극복하고 발전해 온 과정처럼 이러한 복합적 조건 속에서 초기 여성 태권도 수련자들이 사회적 금기를 깨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다는 점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장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이후 여성 태권도의 등장을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한다.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사회는 일제강점기에 억눌렸던 전통 문화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무술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조명되었다. 광복전후 일본에서 유학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출발한 현대의 태권도장은 주로 남성 수련생이 주를 이루는 들을 위한 현대 태권도관(도장)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일본의 가라테와 중국 무술을 수련했던 무도인들이 귀국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장을 설립하면서 현대 태권도의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송무관(노병직), 청도관(이원국), 무덕관(황기), 조선연무관(전상섭), YMCA권법부(윤병인) 등 태권도 모체관(母體館), 또는 기간도장(基幹道場)인 5대관이 태동하였고 이때부터 협회 구성이 시도되었던 1960년까지 시기를 ‘초기 태권도’라고 칭하고 있다. 이 5대 기간도장이 설립되었으며, 각 관은 고유의 기술 체계와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하였다²¹⁾.

1945년 광복 이후 활발한 발전을 해오던 5대 기간도장은 이후 40여개의 군소도장으로 난립되었다가 다시 9개관으로 재정립되었다. 이 시기의 지도자들은 한국전쟁이후 수련 인구의 증가와 도장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전국적인 조직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기술과 수련체계의 통일성 뿐 아니라 승단심사제도의 통일과 타 스포츠 종목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태권도의 스포츠로서의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태권도가 가진 세계화의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대표단체의 필요성을 가지게 되면서 협회의 창립을 가속화하게 되었다²²⁾.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5대 기간도장은 제각기 흩어져 있는 관을 통합하여 협회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1950년 한국 전쟁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일부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부산에서 대한공수도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21) 국기원(2022). 국기원 50년사.

22)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1관 송무관



2관 한무관



3관 창무관



4관 무덕관



5관 오도관



6관 강덕원



7관 정도관



8관 지도관



9관 청도관

그림 7. 9개관 로고²³⁾

조직 직후 분란으로 인해 와해되었고, 1955년 최흥희를 중심으로 작명된 ‘태권도’라는 명칭을 활용하여 1959년 대한태권도협회가 조직되었으나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와해되면서 태권도, 당수도, 수박도가 공존하던 가운데 마침내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가 조직되면서 태권도 중앙조직이 완성되었고 이는 태권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었다²⁴⁾.

23) 강신철(2002).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수원: 자연과 사람.

결과적으로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는 모체관의 출현과 ‘태권도’ 명칭의 등장 및 제도화 시도의 시기로, 현대 태권도가 독자적인 무예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3) 여성 태권도의 여명 - 최초의 선구자 등장

광복 직후와 1950년대 초반에는 조직적인 여성 참여가 거의 없었지만,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 극소수의 선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김영숙 사범은 여성 태권도의 상징적인 출발을 알린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녀는 1957년, 10세의 나이로 오빠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시작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어린 소녀가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김영숙 사범은 태권도의 입문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그게 이제 오빠를 찾으러 갔다가 도장에서 하는 거 보고 나도 좀 하고 싶다. 오빠나 엄마는 절대 안되죠. 절대 안되죠. 그런데 도복은 그때 시절에는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외할머니 돌아가신 옛날에 상복 입으면 광목으로 된 치마 있잖아요. 그 광목 치마를 뜯어서 제가 도복을 만들어 입었어요. 제가 바느질을 좀 잘했어요. 그래도 계집애 안돼. 근데도 저는 끝까지 오빠없는 시간에 가서 운동을 했고 오빠가 또 교사들이나 사범들한테 내 동생 영숙이 와서 운동하면 절대 가르치지 마. 이랬는데 저는 새벽반 아니면 저녁 늦게 가서 했어요. 태권도를 그래서 저는 내가 반드시 이걸 꼭 하리라. 언젠가 내가 성공하리라. 하여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쪽 했어요²⁴⁾.

‘당시 승단 심사비가 50원 그리고 회비가 30원 할 때예요. 근데 그걸 못 낼 때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봐주고 이러지 않았는데 오빠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계집애 나오지 마! 오지 마 이거죠. 이제 체육관에 오지 마!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쁨을 받은 게 옛날에는 바닥이 나무잖아요. 나무인데도 고른 나무가 아니고 그 제재소에서 버리는 정도인 거 껌데기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서 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발이 빠지고 막 그러는데...²⁵⁾.

24)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5)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서울시 본 관장 한영태 관장님, 아현동 한영태 관장님 그분이 도장을 많이 차렸어요. 저기 을지로에서도 했고 미아리도 했고 신당동에도 했는데 그 당시에 정서는요 자기 클래스 외에 딴 클래스를 가지면 돌아가며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인지 영숙아 오 늘은 너 미아리 도장 가! 그러면 네! 그러고 가야 돼! 가서 제가 이제 여자 혼자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거 아니예요 그럼, 우리 딸도 가르칠까 이런 마음들이 들 수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시절에는 하루도 도장을 빠지면 안돼. 일주일 내내 주일만 빠지고 일 주일 내내 다니잖아요²⁷⁾.

1950년대엔 여자가 무슨 태권도냐 핀잔만 들었다고 회고할 만큼 강한 사회적 편견에 직면했다. 가족, 특히 어머니의 반대도 심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녀는 제대로 된 도복조차 없어 어머니의 상복을 뜯어 직접 도복을 만들어 입어야 했으며, 가족과 오빠 몰래 비밀리에 수련을 이어가야 했다. 수련 과정 또한 험난하여, 자신보다 체격이 큰 남성 수련생들과 대련하며 코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자료_한무관_9



- 1950년대부터 희극영화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백금녀와 이교운 관장. 이교운 관장은 뚱뚱한 체격이었지만 열정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했다고 백금녀 씨를 기억했다.

그림 8. 이교운 관장과 백금녀의 수련장면²⁸⁾

26)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27)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1950년대 자료 중 한무관의 이교윤 관장과 수련하고 있는 한 여성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다. <그림 8>은 당시 희극영화배우였던 백금녀가 이교윤 관장과 수련하고 있는 장면으로 여성의 태권도 참여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가 태권도를 수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이다.

1950년대 여성 태권도는 김영숙 사범과 같이 극히 소수의 개인이 거대한 제도적, 사회적 장벽에 맞서 고독한 투쟁을 벌인 시기였다. 조직적인 '발전'이라기보다는, 김영숙 사범의 불굴의 의지가 뿌린 최초의 씨앗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숙 사범이 상복으로 도복을 만들어 입은 행위는 매우 상징적이다. 상복은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과 슬픔을 나타내는 반면, 도복은 남성 중심적인 무도 세계를 상징했다. 그녀가 상복을 도복으로 재창조한 것은 이러한 이질적인 세계를 연결하고, 사회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태권도 수련자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려는 조용한 반항이자 창조적 행위였다. 이는 당시 태권도계에서 여성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존재였으며, 기본적인 수련 환경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28) 국기원(2015). 태권도 9개관 역사 자료집.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 II 장 2. 태동기

여성 태권도 보급의 시작과 인식 변화의 조짐





2 태동기(1960년대): 여성 태권도 보급의 시작과 인식 변화의 조짐

1) 사회·역사적 배경

1960년대 대한민국은 4·19 혁명과 5·16 군사 정변을 거쳐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정치적으로 격동기를 맞았다. 민주주의의 열망 속에서 시작된 제2공화국은 짧은 시간 안에 군사 정권에 의해 전복되었고, 이후 등장한 제3공화국은 안정과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국가 주도의 산업화와 체제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삶에도 구조적 영향을 미쳤다²⁹⁾.

한편, 여성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 구조 속에서 ‘가정의 중심’, ‘남성을 보조하는 존재’로 규정되었으며, 공적 영역에의 진입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전개와 더불어 산업과 교육의 문이 조금씩 열리며, 여성에게도 새로운 진출의 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산업화가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여성을 하나의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여성의 위치를 단지 가정 내의 보조적 존재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로 전환하는 기반이 되었다³⁰⁾.

정부는 경제성장을 견인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의 대중화에 주력하였고, 여성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초교육의 수혜를 입게 되었다. 특히 초등 및 중등 의무교육이 확대되며 여성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고, 일부는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해 교사, 간호사, 사무직 등의 전문직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여성 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상, 즉 ‘현모양처형 여성’의 재생산을 목표로 설계되었다. 교육 과정은 가정경제, 가사, 윤리 등의 과목에 집중되었으며, 전문학문 분야에서의 진출은 사실상 차단되었다³¹⁾. 결혼과 동시에 학업이나 직업을 포기해야 했던 ‘금혼학칙’ 역시 여성 교육의 한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적 장치

29) 복도훈(2014).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4·19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30) 권상화(2007). 광복 후 페미니즘이 여성체육에 미친 영향(1945~1960).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31) 김인아(1993). 한국 여성사회교육의 사적 고찰.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2003년까지 이러한 학칙이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여성의 학문 활동이 얼마나 제약받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수출주도형 산업화는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형성하였고, 이는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다. 봉제, 전자, 섬유 등의 산업 현장에는 대거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미혼 여성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으며, 이들은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산업전사’로 기능했다³²⁾.

그러나 이들 여성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 비위생적 작업환경, 주거 불안정 등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했고, 여성은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각종 보호로부터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은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되는 여성 노동운동의 토양을 마련하였으며, 그 시발점은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사회 곳곳에서 움트고 있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가족 내 평등한 지위,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이후 가족법 개정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었다. 이처럼 여성의 노동은 단순히 ‘산업의 보조적 역할’이 아닌, 사회변화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점차 확보해 나가고 있었다³³⁾.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성계 내부에서도 확산되었고, 여성단체들은 가족법 개정운동을 통해 호주제 폐지, 재산권 강화, 자녀 양육권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는 여성의 사적 삶을 규율하던 전통적인 법체계를 재구조화하려는 시도였으며,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이념적 투쟁이기도 했다. 여성운동은 또한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 이중 노동 구조의 해소, 여성 건강권 확보 등 다각적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운동은 이후 1970년대 신여성운동과 제도개혁의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³⁴⁾.

1960년대는 체육과 스포츠가 국가 정책의 중요한 축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박정희 정부는 체육을 국민 건강 증진의 수단이자,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구로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 1967년 태릉선수촌 설립,

32) 최희숙(1993). 한국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33) 조민지(2023). 1960-70년대 여성 서비스노동 연구 : 여성 버스안내원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34) 노현화(2019).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의 전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69년 체육심의회 설치, 체육국 독립 등은 스포츠 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조치였다³⁵⁾.

이와 함께 체육 주간·체육의 날 제정 등 체육을 생활화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국가적 관심은 여성 스포츠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 제도 내에서 여성 스포츠팀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탁구, 농구, 배구, 육상 등 다수 종목에서 여성 선수들이 국제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 여성 스포츠는 1960년대 후반부터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경기력의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 스포츠의 존재 가치, 여성 신체의 사회적 의미, 스포츠를 통한 여성 주체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였다. 탁구에서 1962년 아시아경기대회 및 1968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복식·단식 우수 성적을 기록하며 여성 탁구는 국가대표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농구는 1964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5위를 하였고 특히 박신자 선수가 세계 베스트 5(1964년)와 베스트 1(1967년)에 연속 선정되며 한국 여자농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³⁶⁾.

배구에서는 국세청, 동일방직 등 실업팀 중심의 성장과 더불어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 3위, 아시아경기대회 2위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육상의 백옥자는 ‘아시아의 마녀’로 불리면서 1970년 아시아경기대회 포환던지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여성 육상 발전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실업 스포츠팀의 창단을 촉진했고, 기업 주도의 스포츠 운영이 여성 생활체육 확대로 연결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단지 경기력 향상에만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사회 구조 내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었다³⁷⁾.

1960년대는 산업화, 교육확대, 체육정책의 강화라는 국가적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였으며,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점차 변화하였다. 교육과 노동, 법제도, 스포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성은 기존의 ‘보조적 존재’에서 점차 ‘참여자’이자 ‘주체’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 시기 여성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 참여를 넘어, 사회 구조를 뒤흔드는 전환점으로

35) 한국여성체육학회(2014). 한국여성체육학회 60주년 기념집.

36) 최영금(2012).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여성스포츠.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37)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작용하였다. 특히 여성 태권도의 등장 가능성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에서 싹트기 시작했으며, 이후 1970년대 본격적인 여성 무예인의 활동으로 이어지는 배경이 되었다. 태권도를 포함한 여성 스포츠는 남성 중심적 스포츠 구조에 균열을 가하고, 여성의 신체와 삶이 공적 영역에서 재정의되는 중요한 실천이었다.

결국, 1960년대 여성 스포츠는 여성 해방, 성평등, 사회 참여 확대라는 흐름의 일환으로 기능하였고, 이는 한국 현대 여성사와 스포츠사의 교차지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림 9. 태릉선수촌 전경(1967)³⁸⁾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1961년, 1960년대 초 발발한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은 태권도계 혁신의 계기가 되었다. 새 정권이 들어서자 숙원과제였던 유사단체 통합안이 추진되어 마침내 정식협회가 성립하였다. 195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졌던 태권도 공식 대표단체의 설립은 모든 태권도인의 염원이었고, 마침내 1961년 대한태수도협회(후에 대한태권도협회로 변경)가 설립되어 공인 승단심사는 협회 주관으로 일원화되었다. 독자적인 겨루기 경기가 1963년 제44회 전국체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승단심사에 채용되는 품새도 협회 차원의 새로운 내용이 제정되었다. 1960년대 태권도의 해외 보급이 시작되었고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미국 등지로 확산되었다³⁹⁾.

군부 주도의 정치 체제가 수립된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무도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본격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태권도 또한 통합과 정립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중심에는 대한태권도협회(KTA)의 창립이 있었다. 1961년 9월 16일, 기존의 대한공수도 협회와 대한수박도회를 통합한 대한태수도협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었고, 이는 국내 태권도계의 분열된 관들을 하나의 조직 아래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으며 현 대한

38)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39)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태권도협회의 시작이다. 대한태수도협회는 1965년 최홍희 회장 당시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960년대 초 대한
태권도협회 창립
총회 후식장면
있다. 사진 중앙
은 최홍희 회장
있다. 김승환, 김
성규, 김승환, 김
성규, 박준기 등이
있다.

그림 10. 대한태권도협회 창립총회 후 회식장면⁴⁰⁾

대한태권도협회는 흩어져 있던 관을 통합하여 태권도 기술 체계의 통일과 승단 체계의 정비에 나섰다. 이 시기를 통해 태권도는 단순한 도장의 무술이 아닌, 공식적인 국가 스포츠 무도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1962년에는 대한체육회에 정식으로 가맹되며,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공식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를 통해 태권도는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국가 단위 스포츠 대회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중·고등학교 및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선수 양성과 지도자 교육 체계도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국제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본격화되었다. 1964년 10명으로 시작된 베트남전쟁 당시의 태권도교관단 파견은 전쟁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태권도의 위상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최홍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시범단이 베트남, 대만,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지에 시범을 보임으로써 태권도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태권도가 국제무대로 진출하게 되었고, 해외에 태권도장이 설립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⁴¹⁾.

이와 동시에 기술적 통일을 위한 작업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태권도의 핵심 기술 체계를 정리하고 공통 품새를 제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후에 국기원이 제

40) 강기석(2002). 태권도 반세기: 인물과 역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41) 최광근(2011). 태권도 세계화에 따른 대표시범단의 창단. 한국체육사학회지, 16(6), 59-71.

정하는 공인 품새의 기반이 되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에는 태권도의 ‘한국 무예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강화되면서, 가라테의 흔적을 지우고 독자적인 발차기 중심 기술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며, 이는 겨루기 경기를 중심으로 태권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한 태권도 협회

연 혁
沿革



KOREA TAE KWON DO

태권도는 우리민족 고유의 무예로서 1천6백여 년전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행해온 국기(國技)이다.

이 국기를 근대(近代) 스포츠화한 태권도로서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기는 8·15해방과 더불어 일본 유학생 또는 중국에서 돌아온 몇사람의 지도자로서 보급의 시초가 되었다. 초기에는 서울에 청도관(靑濤館), 조선연무관(朝鮮研武館), 그후 기독교청년회관(基督教靑年會館)과 무덕관(武德館)이 생기고, 개성(開城)에서는 송무관(松武館)이 활발히 움직이었다.

제1차 통합회합

1946년 7월경 전상섭(田祥燮)씨, 이원국(李元國)씨, 윤병인(尹炳仁)씨와 개성에 노병직(盧秉直)씨가 주동이 되어 협회를 구성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졌으나 2, 3차의 회합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임시수도 부산에 대한공수도협회 창설하다

근 5, 6년간 각자 후배만을 육성해오다 뜻아니한 6·25동란으로 민족적 수난을 당하던중 우리 태권도계에도 재화는 면할 길 없었다.

이 나라 태권도의 선구자인 이 보배로운 사람들을 중에는 남북된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몇몇 지도자는 남하하여 전쟁 중에도 태권도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임시수도 부산(釜山)에서 노병직씨, 윤쾌병(尹快炳)씨, 황기(黃琦)씨, 이종우(李鍾佑)씨, 현중명(玄鍾攄)씨, 조영주(曹寧柱)씨, 김인화(金仁和)씨가 모여 보람찬 회당을 짓고 통합의 간판을 대한공수도협회(大韓空手道協會)라고 붙이었다.

그후 1개월도 안되어 무덕관 황기씨가 탈퇴하고, 다시 1년이 넘어 당시 청도관장 손덕성(孫德成)씨도 탈퇴하게 되었다.

서울 관도루 황기씨는 당수도협회를 조직하여

그림 11. 대한태권도협회(1971). 연혁 소개⁴²⁾

42) 대한태권도협회(1971). 연혁 소개. 태권도지 4월호(창간호)

3) 여성 태권도의 태동

(1) 점진적 확산과 초기 참여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태권도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고 있었으며, 1963년 전주에서 열린 제4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태권도 경기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경기는 남성들만이 참가하였다. '여자가 도복을 입고 운동하는 것을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여기었다'는 말은 여성 태권도를 바라보는 당시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이 되자 태권도를 수련하는 여성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한국 여성들에게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태동했던 시기는 박정희 정권이 실시했던 국민체육진흥법과 엘리트 스포츠정책을 보급했던 시기와 일치한다는 주장도 있다⁴³⁾.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부터 태권도가 일반 여성들에게 점차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고립된 개인의 등장을 넘어선 의미 있는 변화로 본다.

다음의 신문기사는 1961년에 발행된 것으로

“용맹한 여주인공들이 유연한 여자의 몸으로 숨쉬있게 유도과 태권도를 구사하는 씬이 시원스럽게 전개되고 있다...(중략) 또 다른 여자가 태권술을 써서 불량배를 넥아웃시키는 숨쉬는 영화를 구경하는 사람의 손에 땀을 쥐게 한다...(후략)”⁴⁴⁾

라는 내용으로 ‘태권도’와 ‘태권술’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1955년 ‘태권도’라는 명칭이 등장하였지만, 당시 주로 공수도, 당수도, 수박도 등으로 불리던 시점에서 태권도와 태권술이라는 호칭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익숙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성이 태권도를 사용하였다는 용어가 나온다는 것은 많지는 않았으나 하더라도 1960년대 초반에 일부 여성 수련생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966년 9월 20일 발행된 신문기사에 의하면 “跆拳道(태권)의 세 아가씨 榮譽(영예)의

43) 서성원(2016). 태권도역사와 문화의 이해. 서울: 애니빅.

44) 조선일보(1961). 만물상. 11월 5일자.

初段(초단)”이라는 제목하에

18일 漢城女高(한성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20회 태권도 승단대회에 3백여명의 억센 사나이들이 참가했는데 이중에 끼여있던 꽃같은 세아가씨가 당당히 初段(초단)을 얻어 큰 화제... 이들은 李英玉(이영옥)(18, 인화여상) 李京姬(이경희)(16, 상명여고) 洪順子(홍순자)(19무직)양 등 세女丈夫(여장부)(?)들인데 심사관들 앞에서 묘기를 유감없이 발휘, 커트라인 3백60점 (총점 4백80점)을 훨씬 넘는 3백70점을 얻어 당당히 승단, 웬만한 남자선수들을 무색케 했다. ... 모두 龍山용산지도관 소속인 이 아가씨들은 약 1년반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배운 동기는 「호기심」에서 였다고만 되풀이. ...이로써 태권도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여성유단자는 모두 5명이 됐는데 1명은 63년에, 또 1명은 65년에 승단했었다는 것⁴⁵⁾

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등장한다. 이 기사에 의하면 1966년 9월 18일 여성 태권도 수련생 3인이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열린 승단심사에 참가하여 초단을 획득하였으며, 이들의 합격으로 여성 태권도 유단자의 수가 5명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 3명이 추가됨으로써 5명이 되었다는 것은 기존에 2명의 유단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기사 내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1968년 4월 22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전북 완주의 김홍 양이 대한태권도협회 무덕관 전북본관에서 실시한 승단대회에서 3단의 자격을 획득,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고단자가 됐다”라는 기사⁴⁶⁾나 1969년 해외에 첫 파견된 여성사범이었던 권옥희가 3단이었던 것, 그리고 1971년 당시 이미 4단이었던 김영숙의 사례를 봤을 때 이들이 1966년 초단을 획득한 이들보다 먼저 초단을 취득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는 1960년대 후반에는 유단자인 여성 수련생의 수가 약 1백여명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유단자가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69년 4월 2명의 여성 태권도인이 해외지도자로 파견되었는데 태국측의 요청으로 권옥희(3단) 사범이, 미국으로 파견된 송영임(2단) 사범이 그들이다. 다음의 기사에 의하면 권옥희 사범은 1년간, 송영임 사범은 6개월간 파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조선일보(1966). 跆拳道(태권)의 세아가씨 榮譽(영예의) 初段(초단). 9월 20일자.

46) 경향신문(1968). 여자태권도 3단 완주 김홍양 획득. 4월 22일자.

여자跆拳道師範(태권사범), 海外(해외)진출

- 泰國(태국) 방콕 태권도 支館(지관)은 21일 한국의 여자 최고단자인 權玉嬉(권옥희)양(24세, 3단)을 태권도 사범으로 파견해 줄 것을 대한태권도협회에 요청해 왔다.
- 동 지관은 현재 泰國의 여자경기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할 여자사범이 없다고 지적, 파견기간은 1년간으로 해줄 것을 아울러 요청
- 여자태권도 사범으로서 처음으로 해외에 파견될 權양은 앞으로 1년간 방콕에 머무르면서 泰國 각지를 순회 태권을 지도 할 예정인데 權양은 德成女中(덕성여중)때부터 태권을 시작, 현재는 미8군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다.⁴⁷⁾

女子跆拳道師範(여자태권사범)파견

美(미)에 宋榮壬(송영임) 2단

- 3일 태권도협회는 오는 4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간 宋榮壬(송영임)(26. 2단)씨를 미국 시카고에 파견, 미국여성들에게 태권도를 시범보급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송)씨는 지금까지 태권도사범 해외 파견자 중 여자로서는 두번째 케이스가 되며 權玉嬉(권옥희) 3단이 태권도사상 처음으로 10일경 태국에 파견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유단자는 약 1백명 가량 되며 앞으로 여자사범 해외파견의 길이 계속 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⁸⁾

47) 조선일보(1969). 여자태권사범, 해외진출. 2월 22일자.

48) 조선일보(1969). 여자태권사범파견, 미에 송영임 2단. 4월 4일자.

권옥희 사범은 남궁명석의 구술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 도장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딱 한 명씩 그 양반이 45년생인데 권옥희라고 그 양반이 한국여성으로 최초로 외국을 갔었지. 상으로. 근데 이제 결혼하고 4년 4단까지 하다 그만 했어요.⁴⁹⁾

라는 내용을 통해 권옥희는 최초의 여성 해외사범이며 한국체육관에서 수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여성 태권도와 관련하여 1967년 30여년 만에 귀국한 최영의에 대하여 ‘태권왕’이라고 소개한 기사에 의하면 “태권도가 남자의 운동이라는 생각은 그릇된 것, 태권도의 기본기는 여성에게 건강과 미용호신의 실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조선일보, 1967년 12월 3일자).”고 주장하였다. 최영의가 수련한 무예는 가라데이지만, 최영의가 ‘태권왕’이라고 소개되고 최영의 스스로도 태권도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두지 않았던 것을 봤을 때 당시의 맨손무예를 ‘태권도’라고 칭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하는 무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성 태권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김영숙은 1967년 미아리 태권도장에서 사범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극장에서 상영되던 ‘대한뉴스’에 단골로 출연하여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다. 그녀는 다수의 남성 시범단원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겨루기, 호신술, 품새 등 태권도의 모든 면에서 남성들보다 더 완벽한 기량을 선보여야 했다. 이러한 대중적 노출은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이었지만, 태권도계에서 여성의 이미지를 서서히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49)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남궁명석 편

자료_무덕관_21



- 1960년대 후반 무덕관 홍종수 관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김영숙 수련생이 손날격파를 하고 있다.

그림 12. 김영숙의 수련장면⁵⁰⁾

이에 대해 김영숙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영화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거기에 이제 태권도가 나오죠. 이제 그 후에 이제 월남전도 막 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쟁 이후니까 건강들이 안 좋으니까 1m 70cm이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도 그걸 추려서 유단자들 추려가지고 그 촬영을 하기 위해서 국립제작소에다가 애기하고 경복궁 잔디에서 그 시범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 저 하나죠. 그러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스팅 그 팀 대련이라고 그러죠. 대련 붙으면 돼. 자기 거 그 다음에 또 호신술 자기들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격파하면 돼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멀티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호신술 받아야 해. 남자하고 하는 거 격파도 해야 해요. 스팅도 받아야 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하는 거를 그렇게 저는 어렵게 대련을 받고 그 격파하기 위해서는 이걸 고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치면 안 되니까 3개월 100일을 굳혀야 여기가 군살이 좀 배겨. 근데 저걸 그걸 관장님들이 나중에 어느 대회 때 애를 좀 데리고 가서 해야겠다. 그러면 내가 아파서 올라 봐 저쪽에서 막 보고 계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격파 연습을 할 때 그때는 새끼를 꼬아서 가져갔어요. 무슨 생각 하나 하면 내가 언젠가 이걸 성공해서 외국에 갈 거야.

50) 국기원(2015). 태권도 9개관 역사자료집.

그러면 외국에 가면 그 당시의 정서는 시범 끝나면 한복을 입어요. 제가 그 때 미8군이랑 이 쪽에 외국 분들을 가르쳤어요.⁵¹⁾

김영숙이 남성들보다 더 다재다능하고 완벽해야 했던 경험은 남성 중심 분야에서 여성 선구자들이 흔히 겪는 부담을 반영한다. 이들은 종종 개인의 기량을 넘어 자신이 속한 집단 전체의 잠재력을 대변해야 하는 ‘예외적인 존재’로 여겨지며, 이는 동등하지 않은 경쟁 환경을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김영숙은 태권도 9개관 중 무덕관 출신으로 시대별 출신 인사를 소개하는 표에서 유일한 여성으로 적혀 있다.

○ 시대별 무덕관 출신 인사

1940년대	김인석, 남삼현, 서상렬, 원용범, 유화영, 이강익, 이복성, 정창영, 최희석, 홍중수, 황진태 등
1950년대	강효종, 고의민, 김광수, 김봉철, 김정수, 문성열, 박명환, 박장규, 박효준, 백낙원, 양준목, 오광웅, 오용균, 유봉호, 이상인, 이억천, 이진수, 전재규, 정해열, 조규수, 조남동, 지상섭, 차영수, 최남도, 한용석, 황춘성 등
1960년대	고한수, 김세혁, 김영숙 , 김창수, 김현성, 노우종, 박경환, 오세영, 오수곤, 윤웅석, 이 봉, 이영석, 임준길, 주신규 등

그림 13. 1960년대 무덕관 출신인사로 표기되어 있는 김영숙⁵²⁾

또한 이 시기에 여성 태권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남궁명석이 등장한다. 10대 시절 태권도를 시작한 남궁명석은 공식경기에서 최초로 1위를 차지한 여성으로 기록된다. 남궁명석은 당시 여성들의 신체활동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운동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부친 덕분에 여성임에도 운동을 권장받았다. 부친은 “이 시대에는 여자도 운동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며 딸의 수련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가정 분위기는 그녀가 태권도에 입문하고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51)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52) 국기원(2015). 태권도 9개관 역사자료집.

미쳤다. 어린 시절 말괄량이였지만 몸이 허약하였던 그녀는 태권도를 시작했지만, 곧 멋진 사범이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고, 태권도는 그녀에게 자아실현의 수단이자 삶의 목표가 되었다. 태권도와의 인연은 우연히 도장 앞을 지나며 시작되었다. 도복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 매료되어 도장에 들어갔고, 부친의 가게 돈통에서 회비를 꺼내 입단하였다. 수련은 을지로의 한국체육관에서 이병로 사범을 스승으로 이루어졌으며, 당시 이 도장은 종합 무도 체육관으로, 태권도 외에도 해병대, 유도, 펜싱, 레슬링 등이 함께 훈련을 받았다.

다음은 태권도 입문에 대한 남궁명석의 회고이다.

그 당시 때도 나는 태권도를 내가 한 거는 몸이 약해서 했지만은 태권도를 하면 내가 태권도에서 시작 그런 거는 몰랐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거는 몰랐지만은 나도 사범이 멋진 사범이 돼야 되겠다하는 그런 꿈은 있었어요. 처음부터..

태권도를 처음 갔을 때는 어떻게 지나가다가 태권도 도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 같고 이렇게 보니까는 아주 그냥 저한테 딱 맞더라고. 저런 게 있었나. 운동도 그래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집에 바로 가서 우리 뭐야 아빠한테 그 당시 때 우리 아버님한테 나 태권도 한다고 그래 갖고 이제 쌀집을 하니까 태권도 회비를 갖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나는 돈을 썼거든. 그 당시에 그냥 돈통에서 꺼내 가지고서 그냥 입단시켜 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했어요.

한국체육관이라고 돼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는 종합도장이었거든. 종합도장에서 이제 태권도, 펜싱, 유도, 레슬링 그 다음에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이제 내가 딱 가니까는 이제 하는 걸 보더니 우리 사범님이 그때 당시에 회비 내지 말고 그냥 와서 해라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⁵³⁾

초기에는 여성 수련생이 거의 없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시합이나 시범 출전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여자니까 안 된다”는 말로 기회를 박탈당한 경험도 많았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그것을 극복했다. 시범단 유일 여성 단원, 국가대표 여성 선수 1호, 해외

53)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남궁명석 편

시범 대표로 활동하며 여성 태권도인의 길을 열었다. 그녀는 후배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악착같이 실력으로 증명하라”는 조언을 남기며, 진정성과 꾸준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언론, 방송, 영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태권도와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를 선도하였고, 여성 후속 세대의 참여와 진출을 견인했다.

(2) 여성 참여 공식 경기의 등장

1960년대 여성 태권도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는 1968년 개최된 제1회 주한외국인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서 여성부 경기가 처음으로 치러진 것이다. 이는 한국 여성 태권도 경기의 시작으로 간주되며, 여성들이 공식적인 경쟁의 장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한외국인' 대상 대회에 여성부가 포함된 것은, 당시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거나 태권도의 보편적 매력을 넓게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당시 참가인원은 60여명이었고 그 중 여성이 5명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⁵⁴⁾.

1970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제1회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겸 전국 여자부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에는 41명의 여자선수를 포함한 446명이 출전해 3명의 여자부 선수권자가 탄생했다.

새 챔피언 15명 국민학교 태권도

제1회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겸 전국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가 전국에서 41명의 여자선수를 포함한 4백46명이 출전한 가운데 24, 25양일간 漢城(한성)여고체육관에서 열려 金起範(김기범)(里門(이문)국교)등 15명의 국민학교 어린이 챔피언과 3명의 여자부 선수권자가 탄생했다.

◇국민학교부 각급승자

▲A조=(황)인규(핀급강릉) 李(이)창훈(플라이급大邱(대구)명천) 尹(윤)인섭(밴텀급崇仁(송인)) 孔(공)희배(페더급南大門(남대문)) 韓(한)규명(라이트급 전곡) (정)홍일(웰터급 · 漢江(한강)) 劉(유)창규(미들급春川(춘천)중앙) 楊(양)희태(헤비급 답십리) ▲B조=郭(곽)성철(플라이급南大門(남대문)) (정)용섭(밴텀급봉천) 金(김)지중(페더급政府(의정부)중앙) 金(김)기범(라이트급이문))

54) 조선일보(1968). 외국인 태권도선수권대회. 6월 11일자.

金(김)학철(웰터급靑丘(청구)) 宋(송)용만(미들급청구) 朴(박)진수(헤비급 창서)

◇여자부 개인전

▲A조(2단) 결승 남궁명석 판정 옴은실

▲B조(초단)결승 김순아 판정 최형숙

▲C조(1급~3급) 결승 김순옥 KO승 박영환⁵⁵⁾

여성 태권도 경기에 대하여 남궁명석의 구술채록에 의하면

겨루기하는데 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 하다가 남자들이 왔는데 이제 나한테 게임이 안됐거든. 하는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왜 우리는 시합이 없냐? 그래서 내가 이제 시합을 나갔어요. 시합을 그 당시 때 나갔는데 남자들 내가 다 내가 얼굴을 차 가지고 하나 KO를 시켰어 그 당시 때 그러니까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냥 딱 그쪽에 반대편 사범하고 그 학부형이 여자를 갖다가 왜 여기 시합에 보내서 망신을 시키냐고 막 그래가지고 경기가 중단됐어. 나 중에 못하게 해가지고 그때 내가 컴플레인을 했지. 협회에도. 그럼 우리가 하나 만들어줘라. 그래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게 시합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체전이 그때 이제 여자들 전국체전이 그때 생긴 거야. 그럼 나는 1966년도에 이미 시합을 나갔었지. 그러다가 이제 나 중에 67~68년도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세히 지금 모르겠어. 상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지금 어쨌든 그래서 1회, 2회, 3회 때하고 이제 최우수 선수까지 내가 했어요. 우승을 할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고 그러니까 중량급, 경량급, 중량급 그런 식으로 있었어.⁵⁶⁾

라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여성부 경기는 1968년에 시작되었지만, 1966년 비공식대회가 개최된 것을 볼 때 1960년대 후반부터 여성을 위한 대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5) 경향신문(1970). 새 챔피언 15명 국민학교 태권도. 10월 26일자.

56)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남궁명석 편

(3) 사회적 인식과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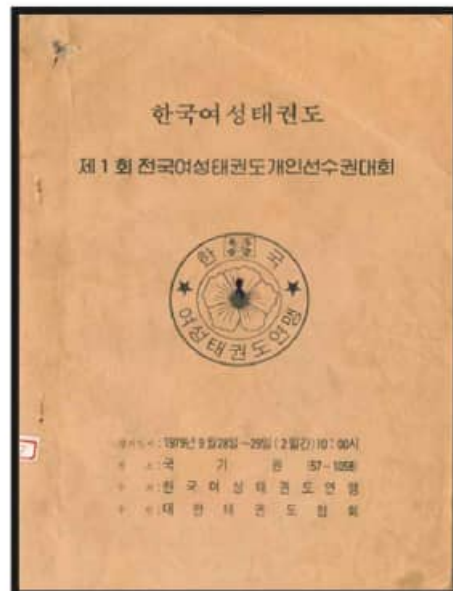
이러한 초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태권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강력했다. “태권도는 남성들의 운동이며 여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했고 소수의 여성 수련자들은 부정적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1960년대에 태권도를 수련했던 김영숙과 남궁명석 모두 이러한 편견 속에서 태권도를 수련했다. 가정에서부터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것에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김영숙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시합이나 시범에서 출전이 제외되기도 했던 남궁명석의 사례를 볼 때 이 시기의 여성들이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여성 태권도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태권도 수련은 여성의 태권도 수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한편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호신을 강조하는 형태로 인식되어 있었으며 이는 이후에 보다 공식화된 스포츠로서의 발전과는 다른 맥락을 보여준다. 이처럼 1960년대 여성 태권도의 등장은 건강과 호신이라는 생존을 위한 실용적 필요성과 스포츠 활동으로서의 초기 시도라는 두 가지 흐름을 동시에 보여주며, 이는 초기 여성 참여자들의 다양한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제 II 장 3. 성장기

조직화, 제도화 및 저변 확대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3 여성 태권도의 성장기(1970년대): 조직화, 제도화 및 저변 확대

1) 사회·역사적 배경

1970년대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강화된 시기로, 강력한 국가주의적 개발 정책 아래 여성의 사회적 역할도 국가 전략에 맞춰 재편되었다. 이 시기는 ‘근면한 여성 노동자’와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국가적 여성상(女性像)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강조되던 시기였다.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더욱 증가하였다. 특히 수출산업의 중심이 되었던 전자, 봉제, 섬유 공장에는 여성 노동자가 집중되었고, 그들은 저임금 구조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견디며 수출 산업의 성장을 떠받쳤다.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대 서울 청계천과 구로공단, 부천 등지의 여성 노동자들은 한국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공(女工)’으로 불리며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했다⁵⁷⁾.

한편,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970년대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노동자의 권리 문제와 함께 여성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일부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조직, 시위 참여 등을 통해 점차 정치적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⁵⁸⁾.

교육 기회는 더욱 확대되었고, 일부 중산층 이상 여성들은 전문직 여성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증가하며 여성들의 사회적 야망도 확대되었지만, 현실의 유리천장과 성차별은 여전히 견고하게 존재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여성운동의 새로운 물결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노동자, 학생, 기독교 여성 단체 중심의 사회운동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후 1980년대 ‘제2차 여성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법적으로는 일부 진전도 있었으나, 여전히 호주제와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유지되었고, 여성의 권리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57) 김효진(2010).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 생활사 학습.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58) 김성민(2006). 노동운동가 세대 간 변화에서 나타나는 지식인의 역할-1970년대 청계피복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제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여성은 공공 영역에서보다 가정 내 헌신과 희생을 기대받는 존재로 규정되었다⁵⁹⁾. 종합적으로 볼 때, 1970년대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양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였지만, 질적인 지위 향상은 더디게 진행되었으며, 국가가 주도하는 여성정책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이 시기의 여성 스포츠는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으며, 생활체육에서도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정치적 이념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민족의 주체성, 국민총화, 국정의 능률화, 국력의 배양과 조직화 및 사회복지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체육도 이러한 국가적 이념을 실천하려는 한 방식으로 강조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박정권이 조국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대전제 아래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에 집중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생산성 향상과 건강유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정책으로서 사회체육을 권장하기 시작하였다⁶⁰⁾.

197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군사 정권 하에서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점차 확대되었고, 여성의 교육 및 직업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여성체육 분야도 발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체육은 남성 중심의 환경이었고, 여성들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체육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며, 다양한 운동 종목에 참여하기 위한 여성들의 노력과 도전이 계속되었다. 이를 통해 여성 스포츠의 제도적 정비와 여성 선수들의 국제적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⁶¹⁾.

학교 체육에서는 여성 학생들의 체육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 체육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체육 교사들이 여성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 활동을 제공하며, 여성들이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여성 스포츠 대회와 전국체전에서 여성 종목이 확대되었고, 이는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들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여성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그중에서

59) 강인순(2009).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 재평가와 의미. 인문논총, 24, 5-50.

60) 김종희(2000).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61)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 배구, 농구, 육상, 마라톤 등에서 여성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졌다.

배구는 1970년대 초반,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1978년 아시아 배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여성 배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배구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고, 이후 여성 배구가 중요한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다. 농구에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 농구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으며, 국제 대회에서도 한국 여성 농구 대표팀이 활약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여성 농구가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성들은 육상과 마라톤에도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마라톤은 오랜 시간동안 여성이 참여할 수 없는 금녀(禁女)의 영역이었다. 이는 여성의 신체가 마라톤과 같은 고강도 운동을 견딜 수 없다는 비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으로 대표적인 마라톤 대회인 보스턴 마라톤 역시 여성이 참가할 수 없는 대회였으나, 1967년 캐서린 스위치의 참가 이후 1972년부터 보스턴 마라톤에 여성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국내에서도 1970년대 중반부터는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장거리 경주에 참여하였으며, 여성 마라톤 대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이러한 대회들은 여성들의 마라톤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이 운동에 도전하는 장을 제공하였다⁶²⁾.

1970년대 후반, 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미디어에서 여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여성 선수들의 성과와 활동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여성 스포츠에 대한 보도가 증가하며, 여성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스포츠에서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여성들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1970년대는 대한민국 여성체육과 여성스포츠가 발전한 중요한 시기였다.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여성 선수들이 활약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 스포츠의 제도적 정비와 미디어에서의 관심 증가는 여성 체육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의 변화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여성 스포츠의 전문화와 국제적 발전을 이끄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오늘날 여성 스포츠의 성장과 글로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62) 최영금(2012).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여성스포츠.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1970년대는 태권도가 국내 무도에서 벗어나 세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기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되었던 것은 기술의 표준화와 단일한 지도 체계의 확립이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1972년 국기원의 설립이다.

宿願! 태권도 중앙도장 개관



여기
붉은 햇살이 쏟아지는
黎明의 丘陵위에
跆拳道半萬年の
金字塔이 우뚝 섰다.

斯多舍이 武藝를 닦던
新羅 花郎道場이,
아킬레스의 勇氣를 기른
그리스 파라에스트라가
이제 이땅에 다시 탄생했다.
이름하여 國技院.

여기
용광로의 熱火처럼

우리의 情熱과 關志를 태우고
求道者의 參禪처럼
우리의 叡知와 精誠을 모아
이 丘陵위에 烽火를 밝힌다.

그것은 꿈의 宮殿.
겨레의 맥박이 뛰는
國技跆拳道의 심불이요
5大洋 6大洲를 잇는
世界跆拳道의 심장이다.

여기
땀어린 忍苦의 열매가
열리리라.
보람찬 繁榮의 길이 열리리라.

그림 14. 국기원 개관 獻詩(현시)⁶³⁾

63) 대한태권도협회(1973). 숙원! 태권도중앙도장 개관. 태권도지 3월호.

1972년 11월 30일, 서울 강남구(당시 성동구) 역삼동에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으로 서 국기원(Kukkiwon)이 설립되었다. 국기원은 태권도의 중앙도장으로서, 세계 태권도인의 기술 및 지도자 연수와 승품단 심사, 품새 표준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기원의 출범은 태권도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 아래 두려는 국가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으며, 기술의 체계화, 지도자 양성, 국제 태권도 조직 운영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림 15. 개원 당시 국기원의 모습⁶⁴⁾

국기원의 개원을 계기로 태권도의 승단 심사 체계가 정비되면서, 전국적으로 공인 도장들이 확산되었고 수련 인구가 급증하였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도 태권도장이 개설되며 지역 커뮤니티 체육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1967년 전국의 태권도장 수가 519개소에 불과했지만,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 자료에 따르면 도장 수가 1600여개소에 이르렀고 수련생의 수가 약 130만명으로 급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⁶⁵⁾. 각 도장에서 매달 정기적인 심사 및 수련생 시범대회가 개최되었다. 특히 ‘검은 띠’ (유단자)가 한국인의 자긍심으로 인식되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태권도 수련에 참여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수련하거나, 교회·성당 등의 종교기관, 군부대, 직장 내 태권도 동호회가 활성화되며, 태권도는 세대 간 소통

64) 국기원(2022). 국기원 50년사.

65) 서성원(2022). 1970-80년대, 태권도 수련층 어린이 편증 과정. 태권박스 미디어. 9월 8일자.

과 공동체 문화 형성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기(國技) 태권도’ 휘호를 받은 이후(1971)로 2018년 3월 30일 ‘태권도공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태권도법)’의 개정안에서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가 개정되기 전까지 비공식적이지만 대한민국의 국기로 인정받으면서 국민 정신교육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각종 국경일 행사나 체육의 날, 체육장 제도에서 태권도 시범이 자주 이루어졌으며, 국가 홍보 영상이나 교과서 속 체육 관련 이미지에도 태권도가 등장할 정도로 생활 속 무예로 정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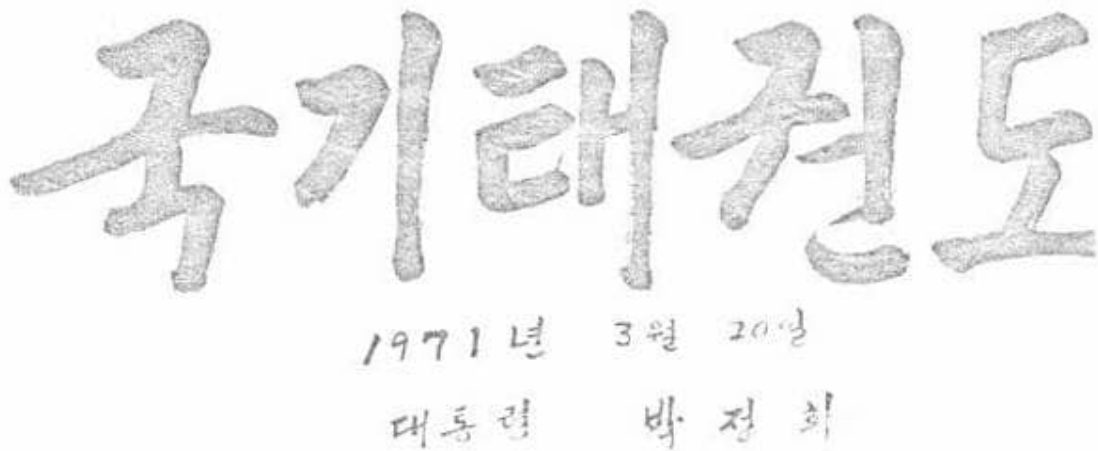


그림 16.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기태권도 휘호⁶⁶⁾

이후 본격적인 태권도계의 확산은 1977년 관 통합이라 할 수 있다.

1관 송무관, 2관 한무관, 3관 창무관, 4관 무덕관, 5관 오도관, 6관 강덕원, 7관 정도관, 8관 지도관, 9관 청도관의 1~9관으로 구분하였으며, 후일 무덕관의 분파작용으로 인해 무덕관에서 탈퇴한 사람들을 놓고 별도로 관리해 10관을 ‘관리관’ 대한태권도 협회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권도계의 고질적인 파벌의식과 행정, 기술체계의 난맥상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 1978년 7월말까지 10개관을 하나로 한 1978년 8월5일 총본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10개관을 폐쇄하기로 합의하여 태권도발전에

66) 대한태권도협회(1971).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기태권도 휘호. 태권도지 4월호.

요구되는 행정적 단일화를 꾀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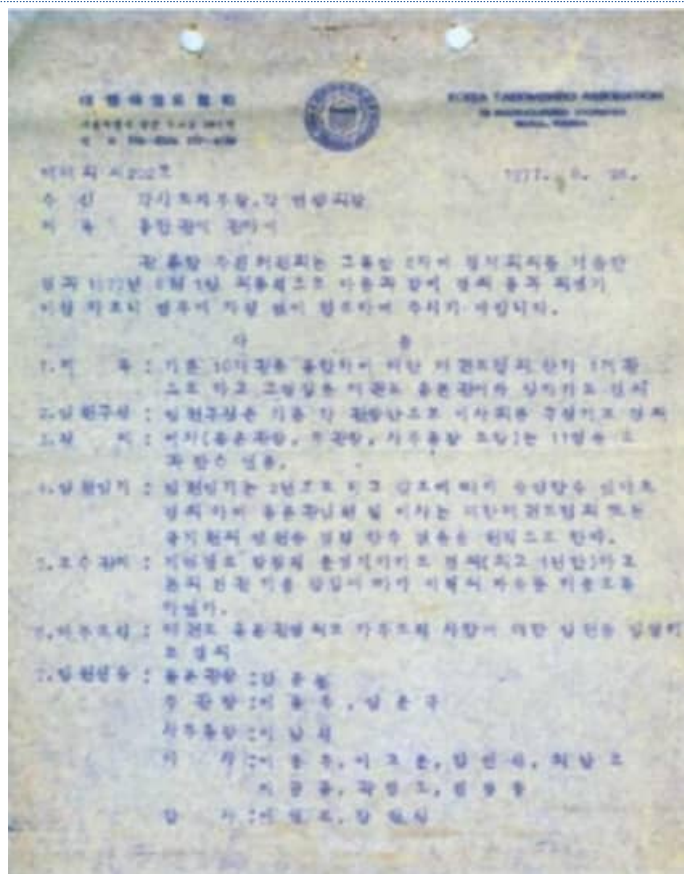


그림 17. 10개관 통합 결정 공문 및 결의문⁶⁸⁾

1970년대 국내경기로서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전, 전국학생체전 등에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포함되었고,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한태권도협회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선수 선발과 훈련 체계가 구축되었다. 또한, 경찰·군인 체육대회에서도 태권도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사회 전반에서의 전문 선수 경로가 다양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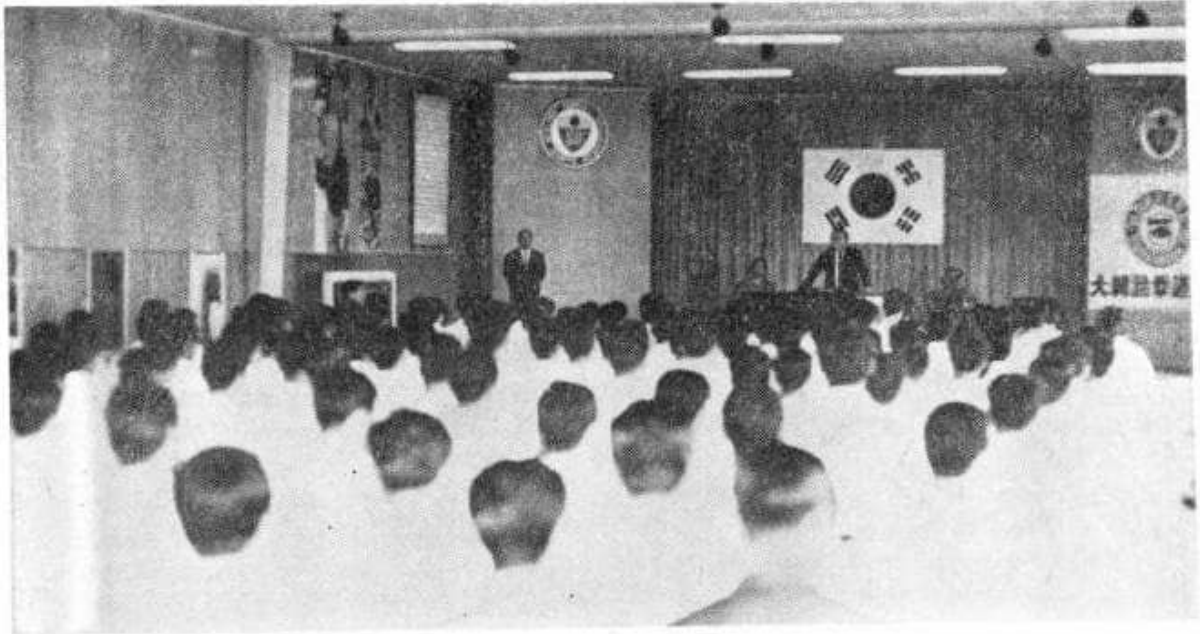
특히 이 시기에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제1기 지도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체계화된 태권도 지도자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67) 국기원(2022). 국기원 40년사.

68) 국기원(2022). 국기원 40년사.

遠大한 跆拳道發展의 第一步!

—第一期 指導者教育 盛大히 終了—



72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제 1기 지도자 교육이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연 3일간 대한체육회관 10층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지도자교육은 문교부에서 시행 예정인 각급학교 태권도교육 방침에 대비함과 아울러 고단자들의 자기개선을 목적으로 약 200명이 참가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김 운동회장은 수료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고단자들의 자성과 앞으로의 태권도인이 무엇을 통해 국가

민족에게 봉사할 것인가를 스스로 다짐하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기간의 교과목과 강사진은 다음과 같다.

체육이론에 현 우영, 경기 및 심판규정에 배 영기, 김 순배, 예외규범에 이 중우, 교양에 홍 중수, 지도자론에 이 재석, 협회현황에 엄 윤규, 구급법에 최 태진, 응급, 기본동작, 품세에 박 해만, 김 순배, 배 영기, 이 영섭, 한 열태 제씨였다. 그리고 수강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림 18. 대한태권도협회(1972). 제1기 지도자교육⁶⁹⁾

1970년대 태권도는 전문 경기 스포츠로의 성격을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한 시기로, 국내외에서 제도적 기반과 국제적 위상을 동시에 확대해 나갔다. 1973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고, 이 대회의 개막과 함께 세계태권도연맹(WTF, 현 WT)이 창립되었다. 이를 통해 태권도는 국제경기 종목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69) 대한태권도협회(1972). 위대한 태권도 발전의 제1보. 태권도지 5월호.



그림 19. 1973년 5월 25일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포스터와 홍보자료⁷⁰⁾



그림 20. 1973년 5월 25일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회식 모습⁷¹⁾

이후 세계선수권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하였다. 특히 한국은 1973년, 1975년, 1977년, 1979년 대회에서 모두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태권도 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였다. 예를 들어, 1975년 제2회 세계

70) 국기원(2012). 국기원 40년사.

71) 국기원(2022). 국기원 50년사.

선수권(서울)에서는 미국, 프랑스, 필리핀, 이란 등 다양한 국가에서 선수단이 참여해 국제화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975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국제스포츠연맹총연합회(GAISF)에 정식 가입하면서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고 1978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승인받으며, 태권도의 올림픽 진입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를 기반으로 1980년에는 마침내 태권도가 IOC로부터 정식 국제경기연맹(IF)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태권도가 세계 스포츠 무도, 특히 올림픽 무도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⁷²⁾.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1980년 세계태권도연맹이 IOC로부터 국제경기연맹(IF)으로 인정받은 일이다. 이를 통해 태권도는 올림픽 무도 진입을 위한 정당한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후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채택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학교체육 영역에서도 태권도의 입지는 1970년대에 크게 확대되었다. 먼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태권도부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팀은 시·도 단위 학생체전 및 전국 소년체전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등의 체육중학교에는 정식 태권도부가 운영되었으며, 엘리트 선수 조기 발굴과 체계적 훈련 시스템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초,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시간에 태권도를 정규 수업으로 운영하기도 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체육교사 연수를 통해 태권도를 교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현재도 태권도를 통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태권도교본을 제작하며, 미동초등학교의 태권도시범단은 1973년 창단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 시범 등을 통해 대한민국과 태권도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다⁷³⁾.

학교체육으로서 태권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예절, 집중력, 공동체성을 기르는 인성 교육 도구로도 평가받았다. 1973년 태권도지 자료를 보면 “태권도로 뭉친 새마을 학교-태권정신 구현의 기수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원도의 한 국민학교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일선 교사들이 발벗고 나서고 도교육위원회가 이를 뒷받침하여 생활교육의 일환으로서 태권도를 보급, 지도하는데 정열을 기울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특히

72) 이승민, 광정현(202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인식 및 제고방안. 무예연구, 16(2), 47-66.

73) 박종인(2024). 태권도 시범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이를 바탕으로 당시 강원도 교육위원회에서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기술지도 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은 태권도의 교육적 효과를 교육현장에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⁷⁴⁾.



그림 21. 교사들의 태권도수련 장면⁷⁵⁾

이와 함께 1973년 5월 25~27일 3일간 서울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고, 대회 직후인 5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WT, 당시 WTF)이 창설되었다. 초대 총재는 김운용이었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의 국제 경기 규칙을 제정하고, 세계 각국에 태권도 연맹을 조직하여 국제 스포츠 무도로서의 태권도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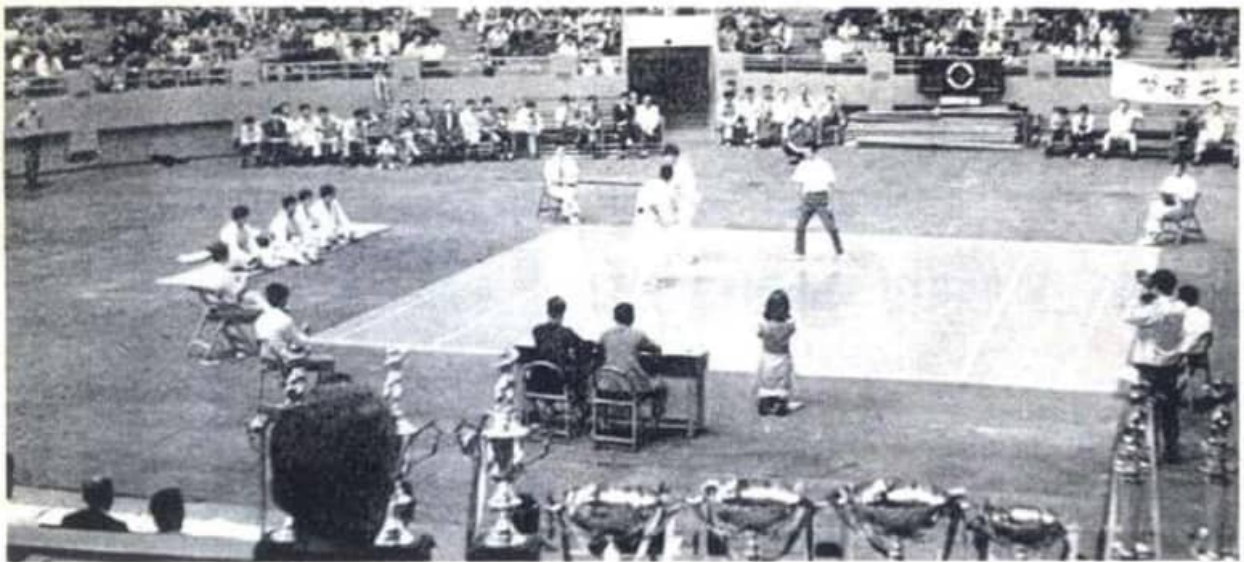
세계연맹의 출발과 더불어 태권도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게 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전 세계적인 태권도 보급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 그리고 세계태권도연맹의 주도로 각국에 지도자를 파견하고, 시범단을 조직하여 미주, 유럽,

74) 대한태권도협회(1973). 태권도로 뭉친 새마을 학교-태권정신 구현의 기수들. 태권도지 3월호.

75) 대한태권도협회(1973). 교사들의 태권도수련장면. 태권도지 3월호.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태권도를 소개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태권도는 빠르게 세계 각국의 체육 교육, 군사 훈련, 경찰 교육 등에 채택되었고, 각국 태권도 협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또한 국기원에서는 1974년 9월 6일 ‘국기원 상설 대표 태권도시범단’을 창단하여 기존의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주관한 1973년 4월 5일 ‘상설연무시범단원 선발대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출범을 하였다.



태권도는 국기에로 줄다름친다

===== 제 6 회 대통령배 쟁탈전 관전평 =====

제 6 회 대통령배 쟁탈 단체대항전이 서울신문사 주최 부협회 주관으로 5월 29일 30일 양일간에 걸쳐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고지 노력한 바 있으나 오늘날까지 성과를 보지 못 하였던 직장티일이 새로 등장하였다는 점 또한 큰 수확이라 아니 할 수가 없겠다.

그림 22. 대한태권도협회(1971). 제6회 대통령기 단체대항전 소개⁷⁶⁾

국기원 상설 시범단은 각종 주요대회의 개막식 행사는 물론 IOC위원회와 국제적으로

76) 대한태권도협회(1971). 제6회 대통령기 단체대항전 소개. 태권도지 7월호.

저명인사들의 방문 및 5대륙을 누비며, 태권도시범을 통해 국기태권도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국위선양을 통해 민간외교사절단으로서 그 역할로 다방면으로 외교적인 성과를 거두었다⁷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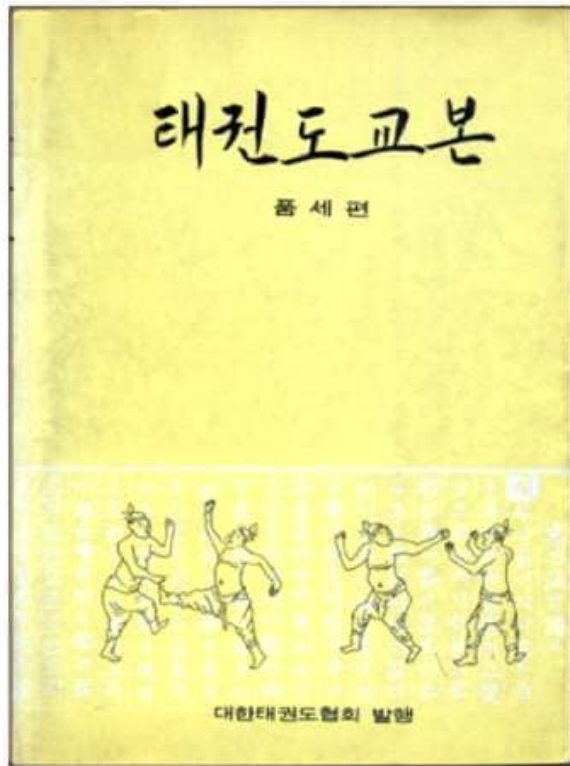
국기원에서 관리하는 정부과전 사범과 코이카, 세계태권도평화봉사단을 중심으로 태권도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도 태권도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태권도는 최초의 한류라고 인식되며, 이 태권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를 담당한 사람들이 정부과전 태권도 사범이기도 하다. 개발도상국 및 태권도 불모지에 태권도복 하나로 파견되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알린 대표적인 민간외교관이라고 볼 수 있다.

1972년 중앙정보부와 국정원으로 시작되어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의 관리를 거쳐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 사업으로 진행되기까지 40년이 넘는 역사를 거쳐 정부과전사범이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해외 파견 사범의 수는 54개국 54명에 이르고 있다⁷⁸⁾.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 국기원의 개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창설이 이루어지는 등 대내외적인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였으며, 이에 대한 뒷받침을 위하여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다양한 소식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1971년 4월 태권도지를 창간하였으며, 계절별로 발간하여 계간지로 불리기도 하였다. 또한 겨루기종목이 경기스포츠로 급 성장하였다면, 품새 및 격파는 태권도시범을 통해 관중들에게 기본격파, 품새, 겨루기, 격파, 호신술 등 교육적가치와 예술적 가치, 그리고 무도적 가치를 홍보하는 대표적인 콘텐츠로서 이러한 태권도 교육을 망라할 수 있는 교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1971년 태권도교본-품세편-의 제작을 이끌어내었다.

77) 최광근(2011). 태권도 세계화에 따른 대표시범단의 창단. 한국체육사학회지, 16(6), 59-71.

78) 국기원(2023). 2023 태권도 교육백서.

그림 23. 태권도교본⁷⁹⁾그림 24. 태권도지 창간사⁸⁰⁾

3) 여성 태권도의 성장

(1) 여성 태권도의 제도화 및 성장

여성 태권도는 1960년대 중반 시작되어, 1970년대 태권도 수련인구 중 여성수련생은 7백여명으로 전해지며⁸¹⁾,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4단 이상의 사범자격자와 조교급인 3단 유단자도 10여명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1971년 발간을 시작한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를 보면 제42회 전국 태권도 승단심사대회가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되었고, 당시 총 응심인원 316명 중 여성참여자 17명이었고, 최고득점자가 여성이었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79) 대한태권도협회(1971). 태권도교본-품새편.

80) 대한태권도협회(1971). 태권도지 창간호(4월호).

81) 강원식, 이경명(1999). 태권도 現代史. 서울: 보경문화사.

각종 태권도 대회

제42회 전국 태권도

승단 심사 대회

제42회 전국 태권도 승단심사 대회가 지난 2월 14일(일요일) 오전 10시에 한성여고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 인원과 득점자는 다음과 같다.

총출발(總出席)인원 316명

남자 296명

여자 17명(초단)

외국인 3명

단별 초단 197명

2단 51명

3단 30명

4단 18명

5단 20명

최고득점자 김동순(여자) 21400점

하위점자 박현원(남자) 380점

박철희(남자) 380점

송성환(남자) 380점



그림 25. 대한태권도협회(1971). 42회 승단심사 여자 17명⁸²⁾

1970년대는 박정희 정부 주도로 태권도가 국기(國技)로 지정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되던 시기였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장이었던 김운용은 태권도를 국위선양의 기수로 만들고자 했으며,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간접적으로나마 여성 태권도 발전의 토양을 마련했다. 또한 1972년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으로서 국기원이 설립되었다⁸³⁾.

그러나 이러한 제도화 과정 초기에는 여성 수련자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국기원 개원 당시 여성 태권도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여자 화장실이 마련되지 않았다. 100명의 교육생 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영숙 사범은 태권도 지도자 교육에 참석하여 수일간 불편을 겪은 후, 김운용 총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직접 여자 화장실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즉석에서 여자 화장실이 설치되

82) 대한태권도협회(1971). 42회 승단심사 여자 17명. 태권도지 4월호.

83) 국기원(2022). 국기원 50년사.

도록 만들었다⁸⁴⁾.

이 사건은 단순한 시설 문제를 넘어, 태권도의 중앙 기관 내에서 여성의 존재를 인정받고 기본적인 필요를 주장해야 했던 초기 여성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여성이 수동적으로 배려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시사한다.

1971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발간을 시작한 태권도지에서 1974년 6월호부터 ‘태순양’이라는 연재만화가 시작되었다. 이 ‘태순양’에서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이미 태권도계에 여성수련생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림 26. 1974년부터 태권도지에 연재된 ‘태순양’⁸⁵⁾

또한 1972년 태권도지 9월호에 보면 김명중이 여성과 태권도라는 칼럼을 게재하였다. 칼럼의 서두를 보면

날로 增加하는 跆拳道의 人口는 勿驚(물경) 130萬名에 達하고 있으며, 그 中에는 1,000여명
의 女子選手가 포함되어 있음을 본다.

各種의 大會가 벌어 질 때마다 새로운 選手가 登場하고, 男子를 능가하는 大壇하고 強靱한
競技를 보여 줄 때 태권도는 男子專用物의 鬪技競技가 아니고 男女 共히 즐기는 스포츠로
서 면모가 갖추어진 것이라는 確信을 가져보는 터이다.

돌이켜 지난날들에 女子 選手들이 보여준 競技의 內容에서, 그것이 果然「스포츠」(태권
도) 本然의 體力과 知慧와 技術을 겸하여 움직이는 運動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滿足한 答辯을
할 수 있는지는 저으기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現今의 女性들의 게임에 있어서 그런
類의 의문이 한낱 杞憂로 돌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⁸⁶⁾

84)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85) 대한태권도협회(1979). 태순양. 태권도지 3월호.

이 칼럼의 본문에는 여성의 태권도 수련 이유 중 3개월만에 10kg 감량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다른 스포츠에서 볼 수 없으며 歐美(구미, 미국을 뜻함) 여성들이 수 많은 종류의 운동 중에 태권도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1974년 태권도지 3월호에는 어린이 시범단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미국에 『跆拳道韓國(태권도한국)』의 이미지 심고 온 꼬마 태권도 시범단-코리아 리틀 트레저스”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시범단을 구성하는 단원들의 대부분이 남학생들이었지만 1명의 여학생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미취학 아동이었던 이진 양은 겨루기를, 서울 충무국민학교 6년생이었던 황두성 군은 송판 격파를 잘하며 모두 1가지 이상의 특기가 있다...(중략)⁸⁷⁾

김영숙과 남궁명석이 성인으로서 태권도 시범활동을 주로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시범단원 중 1명의 여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여성 수련생들이 점차 시범분야에서도 등장하게 됨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후 이규정을 코치로 한 ‘한국 비둘기 태권도 시범단’이 15명의 여성 유단자를 포함한 30명으로 조직되어 시범은 물론 봉사활동도 함께 하는 등 여성 태권도 시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⁸⁸⁾.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여성 태권도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장과 경기(스포츠)를 중심으로 점차 그 영역이 확장되어 가면서 시범분야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을 볼 수 있다.

(2) 여성 전문 구조의 등장

1970년대에는 여성들을 위한 태권도 수련 공간과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김영숙 사범은 1970년 이화여자대학교 인근에 국내 최초의 여성 전용 태권도장인 ‘선미도장’을 개관하여 여성들이 편안하게 태권도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86) 김명중(1972). 여성과 태권도. 태권도지 9월호.

87) 대한태권도협회(1974). 미국에 『태권도한국(태권도한국)』의 이미지 심고 온 꼬마 태권도 시범단-코리아 리틀 트레저스. 태권도지 3월호.

88) 최광근(2011). 태권도 세계화에 따른 대표시범단의 창단. 한국체육사학회지, 16(6), 59-71.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태권도

지난해 世界跆拳道聯盟이 韓國에서 結成됨으로 그동안 海外에서 피땀
흘린 사범들은 보람을 느끼고 더욱 분발하여 새삼 韓國의 태권
이라는 肯持를 키워야 하겠다. 宗主國으로서 韓國의 跆拳道
는 더욱 努力하고 꾸준히 世界에 뻗어가서 궁극적으로
이를 土着化 시켜야 하겠다. 이번號에서는 全美國人
을 놀라게 한 岬마 跆拳道使節과 海外에 進出하는
跆拳道人들을 紹介해 본다. ………(編輯室註)

美國에 『跆拳道韓國』의 이미지 심고 온 岬마 태권도 시범단 “코리아·리틀·트레저스”

그림 27. 미국에 태권도한국의 이미지 심고 온 岬마 태권도시범단 “코리아 리틀 트레저스”⁸⁹⁾

이에 대해 김영숙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70년도에 개관했고 개관식은 1971년도 5월 15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협회에다 의뢰를 하
니까 그 당시에 엄운규 관장님이 참석하셨지요. 우리 여성만 수련하는 도장이 생긴 것입니
다.⁹⁰⁾

남자들 속에 있으니깐 여자들이 오고 싶어도 못 열른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설사 부모
가 깨어 있어도 남자들 도장에 자기 자식을 열른 못 보냈지요. 일단 여자 사범이니깐 여성을
지도하는게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그게 계기가 돼서 여군 교관이 돼서 가르치고, 이대 학생
들도 가르치고, 가르칠 때 혹시나 여자라 우습게 볼까봐 저는 늘 열심히 준비하고 철저히 가
르쳤어요. 그래서 상공수로 가르치게 되었어요.⁹¹⁾

89) 대한태권도협회(1974). 미국에 『태권도한국(태권도한국)』의 이미지 심고 온 岬마 태권도 시범단-코리아 리틀 트레저스. 태권도지 3월호.

90)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91)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여성과跆拳道

金鳴鍾

..... ① 남로 増加하는跆拳道의人口는勿論 130萬名에 達하고 있으며, 그
 ② 中에는 1,000여명의 女子選手가 포함되어 있음을 본다.
 ③ 各種의大會가 벌어 질 때마다 새로운選手가 登場하고, 男子를 넘
 ④ 가하는大膽하고 強靱한 競技를 보여 줄때 태권도는 男子 專用物의 體
 ⑤ 技競技가 아니고 男女 共に 즐기는 스포츠로서 면모가 갖추어진 것
 ⑥ 이라는 確信을 가져보는 터이다.
 ⑦ 물이켜 지난날들에 女子 選手들이 보여준 競技의 內容에서, 그것이
 ⑧ 果然 「스포츠츠」(태권도) 本然의 體力과 知慧와 技術을 겸하여 움직이
 ⑨ 는 運動 이었는가 하는 물음에 滿足한 答覆을 할 수 있는지는 저으기
 ⑩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現今의 女性들의 「계열」에 있어서 그런
 ⑪ 體의 外면이 한낱 記號로 돌아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지난 5월에 있었던 第3回 女子部 競技에서 보여준 選手들의 技術 향상과 두각있는 覇氣를 찾아 볼수있는 놀라운 것 이었다.

B組의 勝者 김 인수는 이미 準決勝戰에서 팔옥이 脫 骨하는 不運을 맞았고 決勝에 進出하였을 때의 情狀이 초차도 참수없는 重傷의 상태였기에 隨部과 코호지 의 挽留가 있었으나 決勝에 참하였던 것이다.

중등부은 상하는 界限으로도 쉽게 判別할수 있었고 계열을 하는 途中에 상용하는 김 인수 選手의 모습은 관衆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었다.

男子도 아닌 女子의 몸으로, 더하기 부상을 골격의



목표로 갖춰진 經 經대선수의 근질근질 功績을 막아 내는 勇 氣보다 自身의 弱點을 克服해야 했던 고충은 태권도가 아니던 해낼수 없는 克己의 자세였다.

그는 마침내 第3回 大會의 女王이 되었고, 强하고 靚한 榮光의 매달을 획득 할 수 있었다.

한편 남궁 명석과 金 春玉의 決戰은 해당호 남궁 선수의 뛰어난 功績을 잘 존중 選手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視線이 집중되어 있는 競技였다.

그러나 결기의 내용은 예상한 지 없었고, 남궁 선수의 날아오는 공격의 시도가 번번히 무위로 좌절되었고 오히려 金 春玉 選手의 대담하고 진인(?) 스타일 정도 의 功績이 더해 갈때마다 관衆은 탄성을 지르고 때로는 숨을 죽여야 했다.

結局 南宮 選手의 勝利로 계일은 끝났으나 金 春玉 選手의 계일 중년의 보는 보기도문 주착이였음에 틀림 없다.

또한 이 두 選手가 보여준 競技가 跆拳道의 內容을 많이 行動으로 보여준 가장 적절한 說明이었다고 볼 수 있었다.

즉 힘과 知慧와 技術을 綜合한 功績적인 藝術의 극치 가 태권도임을 보여준 것이다.

때때로 筆者는 女子가 태권도를 하는 것에 대한 非 難적인 見解를 갖는 人들을 대할 때가 있으며 그 非 難 人들을 이해한 말로서 설득, 理解를 시킬 것인가 困難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筆者는 그런 人들에게 이 두 選手들이 보여준 競技로서 그 答辭을 대신하고 싶은 心情이었음을 부연하 는 바이다.

그림 28. 김명종(1972). 여성과 태권도⁹²⁾

또한 학교와 대학에서도 여성 태권도부가 창설되었다. 1975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에 태권도 동아리 ‘이화태권도’가 결성되었으며, 1972년 정란여자상업고등학교에도 태권도부가 창단되었고 1977년 은광여자고등학교에서 태권도부를 조직하였다. 1978년에는 한국 중·고 연맹회장기대회에 여자부 경기가 신설되는 등 8학교 체육에서의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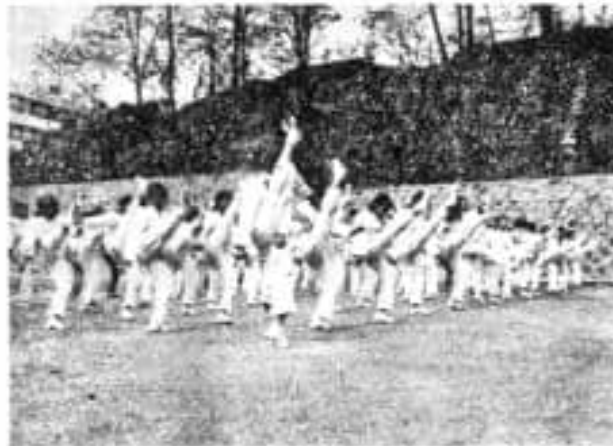
92) 김명종(1972). 여성과 태권도. 태권도지 9월호.

태권도 활동이 점차 활발해졌다.

이러한 여성 전용 도장이나 대학 동아리와 같은 '안전한 공간'의 등장은 매우 중요했다. 남성 중심의 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축감이나 불편함 없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수련하고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여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여성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꿈을 키우자 Cradle for Women Taekwondo Leaders

은광여자고등학교



200여명의 수련생이 기본동작을 익히고 있다.

국가원수를 아루모는 김남구 백암동의 은광여자 고등학교는 4,000여명이 하얀색 사탕을 이상으로 하여 드넓게 자리잡은 진리의 전당으로 지킴을, 부덕함임, 건강제임을 학교로써 이어나가 아성의 불과 함께 일방적인 전진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학문이 그렇듯이 전진교육을 위한 특별활동으로 과를 운동부와 합침, 우리유스스포츠는 이

학교의 자랑거리로 할 수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정기적으로 태권도부를 창설하여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이강목 교장은 태권도부 창설에 있어, 장인한 의력을 통한 지력, 지력을 원장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더욱 아슬아슬, 슬기롭게 연습적으로 국민 전진여성 태권도인들의 여성체육으로 자양성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한다. 또한 한보

그림 29. 은광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 창설⁹³⁾

93) 대한태권도협회(1977). 은광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 창설. 태권도지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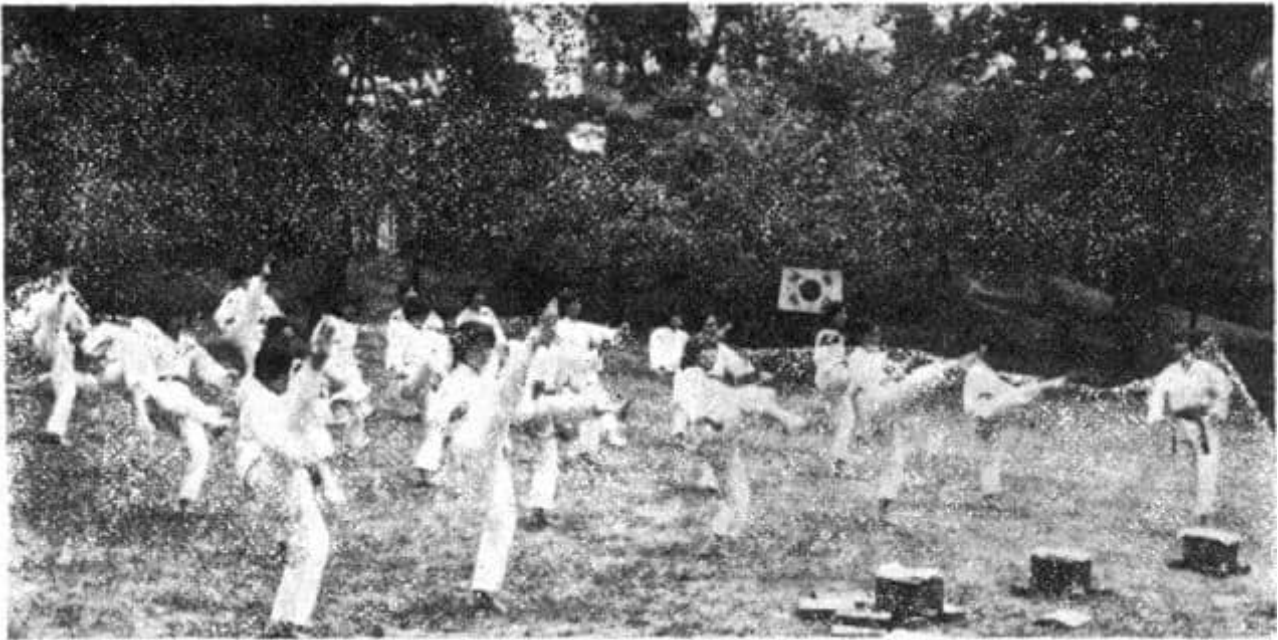


그림 30. 수련 중인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⁹⁴⁾

특히 태권도는 여성들의 호신술 및 건강, 체력향상의 목적으로서도 주목받게 되었는데 1973년 ‘여성을 위한 응급 호신술’이라는 기사나 1977년 ‘여대생들의 무술붐’ 등의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숙은 이 외에도 이 시기에 경찰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하였으며 다음의 회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걸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마포경찰서에 의경들을 지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형사인 오빠보다 선배가 양대기 형사님이 경찰들을 가르쳤어요. 그 당시 업무도 많고 가르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한 클래스에 120명이었어요.⁹⁵⁾

경찰서 수련관이 좁았어요. 버스 2대에다가 60명씩 태우고 오빠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오빠가 저쪽 버스에 타고 저는 이쪽 버스 타고 제가 그때 도복을 안 입고 츄리닝을 있었어요. 호창운동장에 가서 10명씩 딱 서는데 12줄인가 120명이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에서 운동하는 사람 손 들어올 때 파란 띠 노란 띠 너희들 나와 10명 나오더라고요. 오빠는 이 수련생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제가 가르쳤어요. 중령이 마이크를 주더라구요. 저는 마이크가 필요가 없었어요. 제 목소리로 진행하겠습니다. 90분정도 가르쳤는데 기세를 잡기 위해서 큰 소리로 지도했어요⁹⁶⁾

94) 대한태권도협회(1978). 태권도지 1978년 3월호.

95)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이다. 너희들이 말을 잘 들으면 나는 이걸 2시간에 끝내겠다. 1시간을 줄여주겠다. 말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끝에 한 사람이 허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마포경찰서 위에 도장이 있었거든. 앉아, 몇 줄에 누구 너 뭐야? 그랬더니 앉으라고 야 몇 줄에 누구 너 뭐야? 야 인마 너 거기 앉았어. 그러지 1시간 끝나고 질문 상황 손 들어 봐. 그랬더니 고놈이 손을 드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사범님 우리 지나가다 관장 사범님 도장에 가면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너처럼 쉽게 찌질 거리는 놈이 무슨 커피냐? 하고 더 당차게 받아친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서 미국 갈 때까지 가르쳤어요⁹⁷⁾

자료 무덕관 26



- 1970년대 초 무덕관 출신 김영숙 관장이 무덕관 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지도하고 있다.

그림 31. 여성 수련생을 태권도를 지도하는 김영숙⁹⁸⁾

96)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97)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98) 국기원(2019). 9개관 역사자료집.



그림 32. 이화여자대학교 태권도부 학생들과 김종선 교수와 함께⁹⁹⁾



그림 33. 1979년 7월 여자국가대표팀 코치활동¹⁰⁰⁾

1975년 대한태권도협회의 태권도지에 따르면 “여성의 해에 태권도 여걸들”이라는 제목하에 대농 청주공장 태권도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공식적인 여성 태권도실업팀은 1990년대에 출범한 “인천시청 태권도팀”이지만, 직장체육의 일환으로 충청북도 청주에서 직장태권도부가 출범했음을 알 수 있다.

<직장태권도부를 찾아서>

여성의해에 태권도 여걸들

—대농 청주공장 태권도부—



(출전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태권도 부원들)

그림 34. 대농 청주공장 태권도부¹⁰¹⁾

99)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책자, 개인소장자료.

100) 제1회 국제여성오픈태권도대회 책자, 개인소장자료

101) 대한태권도협회(1975). 여성의 해에 태권도 여걸들. 11월호.

이 시기의 또 다른 대표적인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재미 한국인인 김태연을 들 수 있다. 김태연은 1968년 가족과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고등학교에서 태권도를 강의하다가 1969년 버몬트에 태권도장을 개관하였다. 이후 1973년 세계태권도연맹으로부터 최초의 여성사범으로 공인받았다¹⁰²⁾.

또한 1978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던 프레월드게임의 미국 여자대표단의 감독은 공인 4단의 김경희로 1967년 미국으로 건너가 2개의 태권도장을 운영한다고 하였다¹⁰³⁾. 김태연과 김경희는 1970년대에 이미 해외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던 여성 태권도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후 여성 태권도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던 김영숙과 남궁명석 역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대한민국의 여성 태권도가 미국을 중심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초기 대회 및 선수권 대회

1970년 한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 여자부 태권도대회가 개최된 이후 1971년에는 한성여고 체육관과 장충체육관에서 2회 대회가 개최되었다. A조는 2단 이상, B조는 1단, C조는 1급에서 3급까지 단과 급을 제한했다. 이 대회에서 A조 1위는 남궁명석, 2위는 엄은실, 3위는 최춘희, 김춘옥 등이 각각 입상했으나 체급별 경기가 아닌 태권도의 단(段)과 급(級)의 형태로 진행되어 국가대표선발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35. 제2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이모저모¹⁰⁴⁾

102) 경향신문(1996). 대표적인 해외 여성 태권도지도자 김태연. 1월 25일자.

103) 경향신문(1978). 미여자대표단 감독은 4단의 한국여성. 7월 1일자.

104) 대한태권도협회(1971). 제2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이모저모. 태권도지 7월호.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등장하게 된 겨루기 경기에서 여성들의 활약은 197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중고등학교에서 여성팀이 창설되면서 여성 태권도 경기의 활성화를 이루어냈다. 정란여상과 은광여고, 인천체고, 청산여상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층 경기가 활성화되었고, 1968년 제1회 주한 외국인 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지만, 당시 한국 여성들이 참여하였는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1970년 제1회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1971년 전국여자 태권도 우수선발대회가 개최되었고, 1974년 개최된 제5회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기록을 보면 A, B, C급으로 구분하여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C급은 미국인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제3회 여자부 및 소년부 우승자

그림 36. 제3회 여자부 및 소년부 우승자 기념 사진¹⁰⁵⁾

女子部 優勝者 名單

A級	1	엄	인	숙
	2	장	선	남
	3	정	경	숙
		김	인	수
B級		박	영	애
	1	김	태	복
	2	최	형	순
	3	서	현	주
C級	1	Susan H. Cole(U.S.A.)		
	2	이	화	경
	3	이	명	순
		김	경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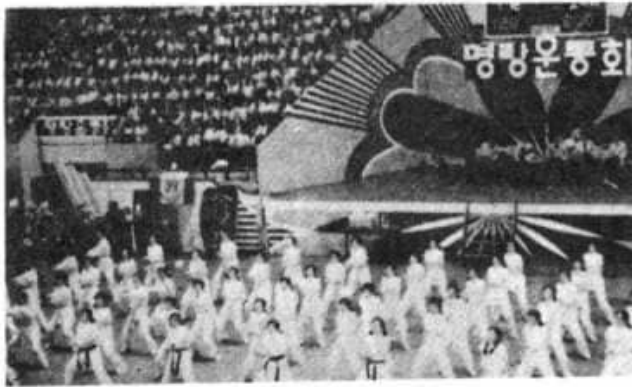
그림 37. 제5회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우승자 명단 및 입상자 사진¹⁰⁶⁾

105)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지 9월호.

106) 대한태권도협회(1974). 태권도지 9월호.



그림 38. 대한태권도협회(1972). 1971년도 전국여자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모습¹⁰⁷⁾



MBC-TV 명랑운동회 시간에 태권도 연무시범을 보이는 은광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원들.
Taekwondo demonstration in Eunkwang girl's high School.

이화여자대학교 태권도 부원들의 수련후 기념촬영
Women Taekwondoists of Ewha University.



그림 39. 은광여고 및 이화여대 태권도부의 활동¹⁰⁸⁾

1978년 제14회 협회장기 쟁탈전 겸 한국중·고개인선수권대회에서 여자 고등부대회가 열리면서 여자 선수들이 8체급에 출전하는 것으로 나타난 첫 번째 대회이다. 1978년 프레월드 초청여자부 선발대회에서 유단자 자격을 가진 선수들이 출전을 하여 임신

107) 대한태권도협회(1972). 태권도지 2월호.

108) 대한태권도협회(1978). 태권도지 3월호.

자, 유선섭, 김경주, 양현자, 김지연, 남궁숙, 김안나, 안선미 등이 공식적으로 여자 국제태권도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고, 여성 태권도경기의 기반을 잡은 대회라고 본다¹⁰⁹⁾.

1979년에는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이 발족하면서 제1회 한국여성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제3회 연세대 총장기 쟁탈 전국남녀고교태권도대회가 개최되는 등 1970년대 후반부터 ‘여성선수’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다양화되어 감을 볼 수 있다.



그림 40. 대한태권도협회(1972). 1971년 여자부 우수 선수¹¹⁰⁾



그림 41. 제1회 전국여성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상장과 메달(1979년)¹¹¹⁾

109) 신동선(2010). 한국 여성 태권도 경기의 변천과정.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110) 대한태권도협회(1972). 1971년 여자부 우수 선수. 태권도지 2월호.

111) 임신자 개인소장

(4) 최초의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창립

여성 태권도 발전의 중요한 분수령은 1979년 3월 30일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이 창설된 것이다. 초대 회장은 이학선이 맡았으며, 연맹은 '회장기대회', '한중친선대회', '여성 태권도대표선발전', '주한외국인 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며 여성 태권도 발전에 기여했다.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의 이학선 회장은 창립사에서 행주 치마의 유래를 예로 들며 태권도 발전을 위한 여성 태권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림 42. 이학선(1979).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창립 그 의의와 발전¹¹²⁾



그림 43.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창립총회(왼쪽, 이학선 회장, 오른쪽 김영숙 전무이사)¹¹³⁾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은 이후 1979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국기원에서 제1회 전국 여성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8체급 146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112) 이학선(1979).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창립 그 의의와 발전. 태권도지 7월호.

113) 김영숙 개인소장자료.

대회는 상인천여중, 은광여고, 청상여상, 동주여중, 배성여고, 인천체고, 정신여중 등이 참여하였다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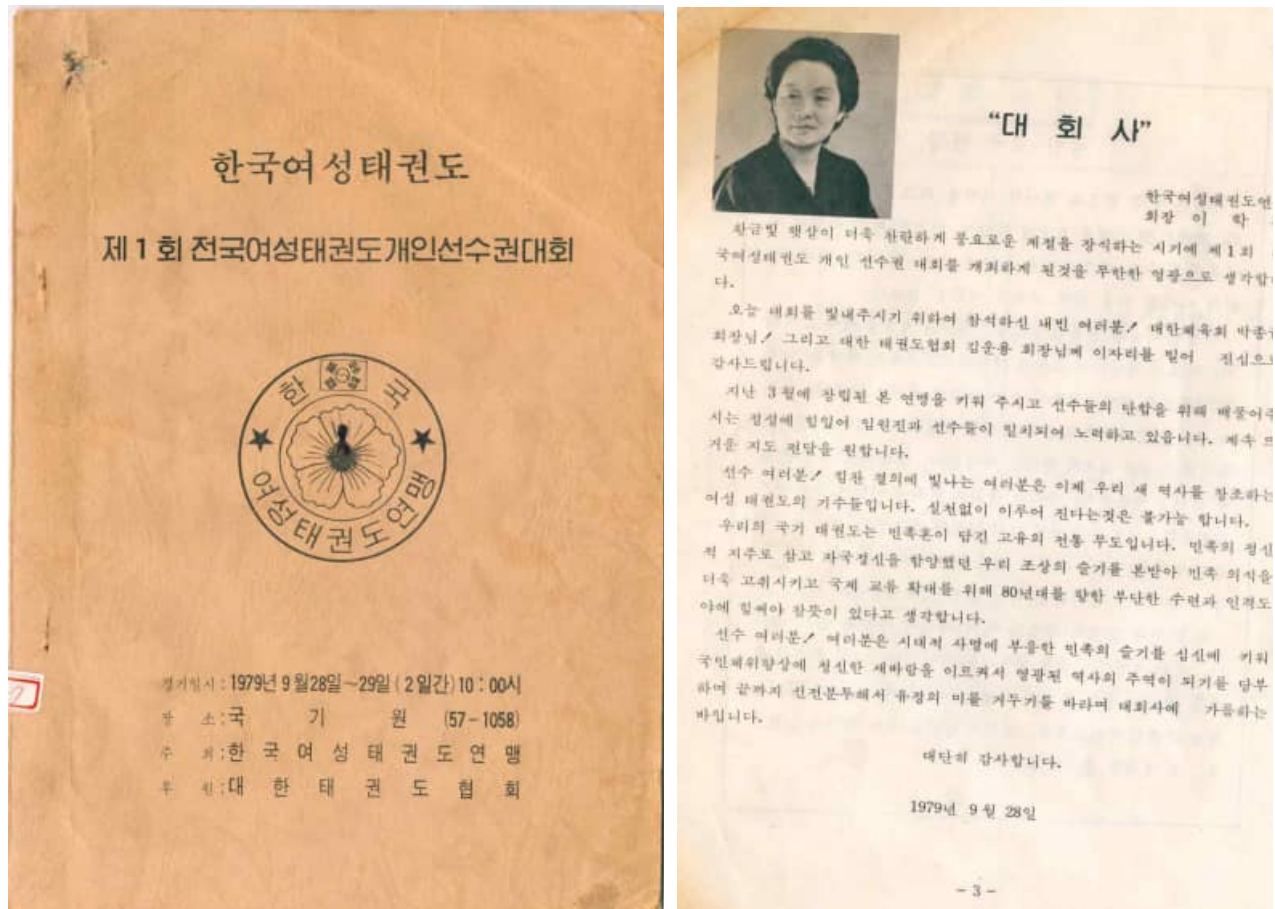


그림 44. 제1회 전국여성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대회자료¹¹⁵⁾

서영애 사범의 회고에서는

김영숙 사범님은 적극적으로 여성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셨어요. 지금은 미국에 계시는데 그래서 서울에서 한국 여성시범단 시범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태권도를 즐기게 되었죠. 그때가 한 16살~17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¹¹⁶⁾.

114)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115)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자료.

116)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서영애 편

당시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이 창단되기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여성 태권도인 스스로 여성의 인권과 활동을 위한 제도적인 협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1978년 여성시범단 시범 후 단체사진, 가운데 이학선 회장, 김영숙 사범¹¹⁷⁾

이에 따라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은 여성 태권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주관하기 위해 1979년 창단과 함께 본격적인 여성 태권도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여성 태권도에 관한 기본 방침 심의 및 결정, 국내·외 관련 대회 주관, 산하 단체 관리, 연구 발표, 자료 수집, 간행물 발간, 홍보 활동, 기술 교류, 합동 수련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은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연맹회장기대회, 한·중 친선대회, 여성 태권도대표선발전, 주한외국인선수권대회 등 여성 태권도 경기를 개최하였다.

117) 서영애 사범 개인소장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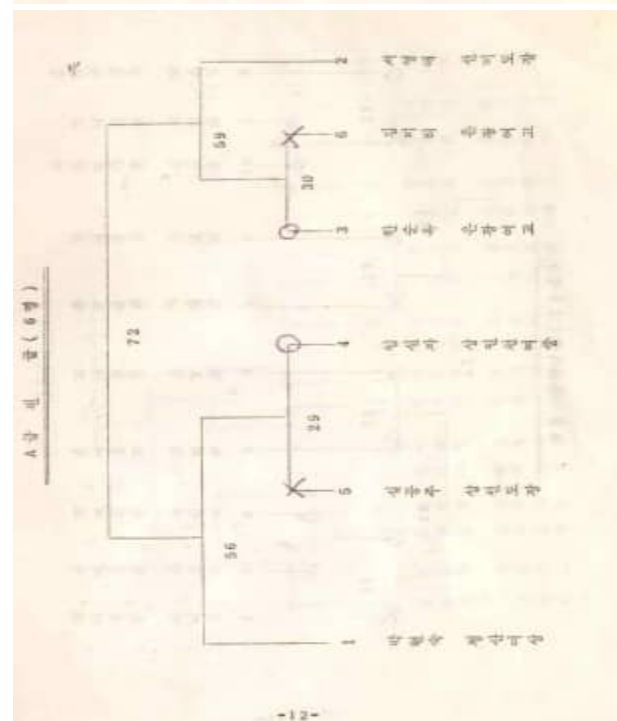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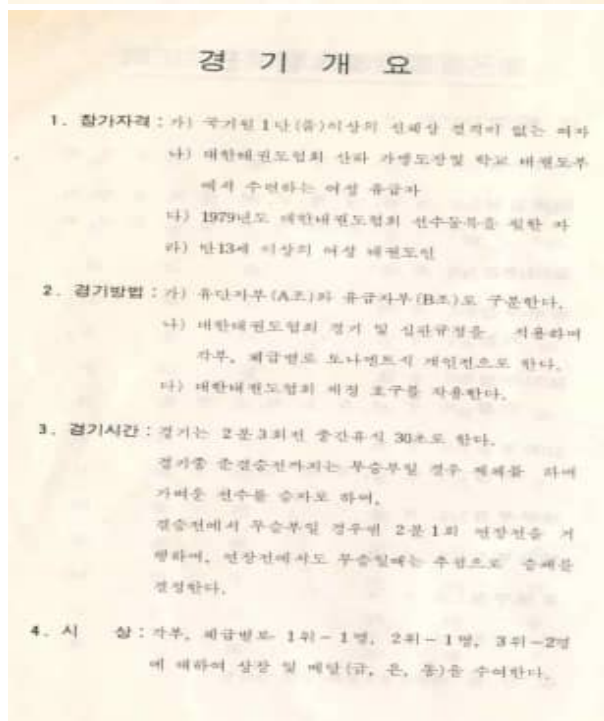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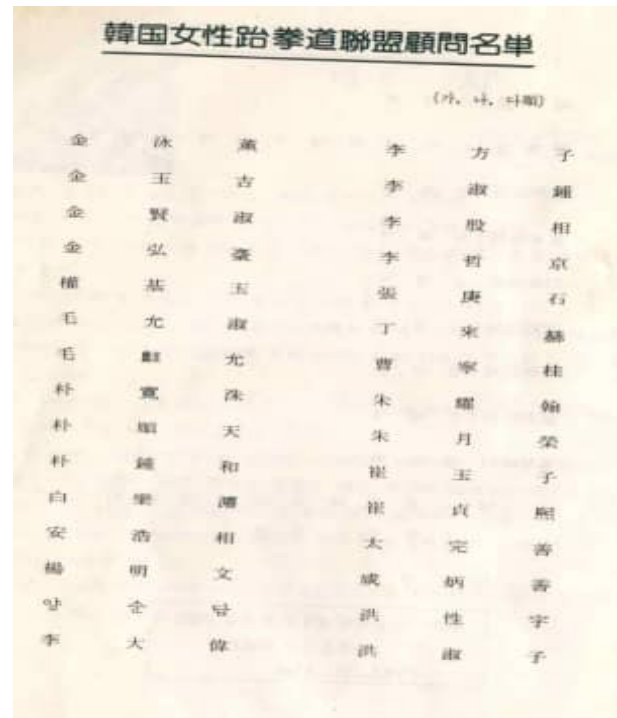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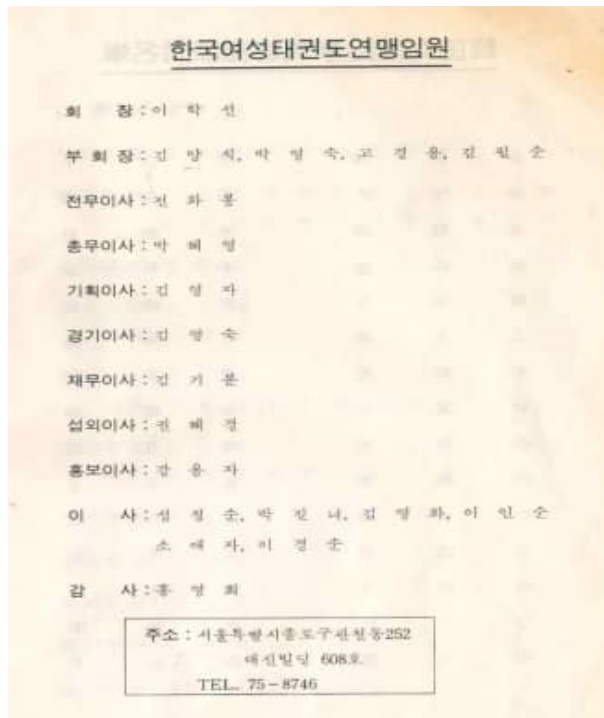


그림 46. 제1회 전국여성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대회책자 속지¹¹⁸⁾

[그림 46]은 1979년 3월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이 창단되고 9월에 개최한 제1회 전국 여성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대표책자로 책자의 내용에 설명된 자료를 살펴보면, 1979

118)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자료

년 9월 28일부터 29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선수는 1단이상 13세이상의 여자선수들이 참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회임원으로 이학선 회장과 김양식, 박영숙, 고경용, 김필순 부회장, 전무이사 전화봉, 총무이사 박혜영, 기획이사 김영자, 경기이사 김영숙, 재무이사 김기분, 섭외이사 권혜경, 홍보이사 강용자이며, 이사로는 성정순, 박길녀, 김영화, 이인순, 소애자, 이경순 마지막으로 감사로는 홍영희로 기록되어 있다. 경기종목을 살펴보면, 겨루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선수등록이 된 13세이상의 여성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유단자부와 유급자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리고 도장에서 수련하는 성인 여성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성 태권도인들은 여성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여성 태권인들의 새로운 도전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1982년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에 등록된 여성 유단자는 20,000여 명, 여성심판은 4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은 태권인들의 몰이해, 무관심, 재정난 등으로 와해되었다¹¹⁹⁾.

비록 재정난과 무관심으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여성 태권도인들을 위한 독자적인 조직의 출현은 여성 태권도의 공식적인 인정과 자치적인 발전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후 여성 태권도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태권도계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2002년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이 재창단되어 여성 태권도인의 대표단체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웠던 시기에 출발하였던 초기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의 활약 때문이라는 것은 과언이 아닐 것이다.

(5) 여성 태권도에 대한 담론의 형성

1970년대에는 여성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관련 담론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1972년 '태권도'지에 실린 김명종의 글 「여성과 태권도」에서는 당시 약 1,000여 명의 여성 수련자가 있음을 언급했으며, 1978년에는 김인수 감독이 여성 수련자 수의 급격한 증가를 지적하며 '여성 태권도 발전기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논했다.

119)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3, 129-142.

한국여성 태권도연맹(2016). 홈페이지 내 내용(2016년 4월 28일).

이 시기 정부의 국기 태권도 육성 정책은 여성 태권도에도 간접적인 혜택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향식 지원은 태권도의 남성적, 국가주의적 이미지를 강화하여 여성이 태권도수련자로서 인정받기 보다는 시대적으로 엘리트스포츠 선수 육성과 국가 프로젝트의 참여자로 인식되는 기본적인 정책으로 만들어 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적 지원이라는 양날의 검 속에서 여성 태권도는 기회와 동시에 미묘한 제약을 받은 차별을 받았다. 김영숙과 남궁명석이 초기의 태권도 문화에서 소수의 여성이 수련하는 과정에서 1명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토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성 태권도인’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애니메이션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의 여주인공인 ‘아라치’를 들고 있다. 아라치 역시 태권도를 수련하는 여성이지만, 애니메이션 상에 큰 활약 역시 조연에 그치고 있으며, 태권도지의 연재만화 ‘태순양’의 주인공 역시 제목은 ‘태순양’이지만, 주인공인 태순양이 실질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하는 장면의 묘사보다는 남성 태권도인을 응원하는 등의 부수적인 역할에 그쳐 당시의 여성 태권도의 위치를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그림 47. 태권도 태권도지에 연재된 ‘태순양’ 1편¹²⁰⁾



그림 48. 1977년 개봉한 태권동자 마루치아라치¹²¹⁾

120) 대한태권도협회(1974). 태권도지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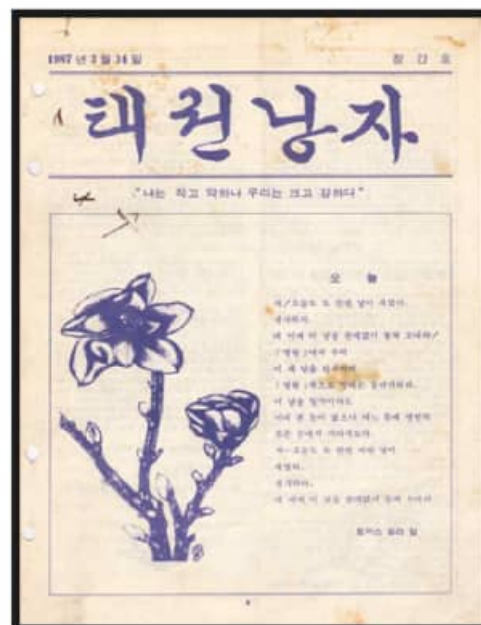
121)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5380>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 II 장 4. 발전기

국내·외 여성 태권도 경기 활성화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4 발전기(1980년대): 국내외 여성 태권도 경기 활성화

1) 사회·역사적 배경

1980년대는 엘리트 스포츠를 통한 생활스포츠 활성화를 꾀하는 체육정책의 전환기라 할 수 있다. 1982년 체육부를 발족하였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결정되었다. 1985년 대한체육회 내에 여성체육위원회를 부활시켰으며,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게임의 유치와 성공개최를 위한 엘리트체육과 각 지방에 체육시설을 보급 및 확대하였다¹²²⁾.



그림 49. 국제종합경기대회 로고¹²³⁾

이와 더불어 경기력향상과 과학화를 위한 스포츠과학연수원을 창설하였고, 우수한 외국인 선수와 코치를 초빙 및 선진체육 시설과 기술을 도입하여 스포츠시설의 근대화를 확대하였다¹²⁴⁾. 구체적으로 1981년 프로야구, 1982년 프로축구, 1983년 프로씨름 등이 출범하였고, 이는 관람스포츠와 생활스포츠 그리고 엘리트 스포츠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¹²⁵⁾.

122) 대한체육회(2025). 창립취지 및 연혁. <https://www.sports.or.kr/sports/main/contents.do?menuNo=200056>

123) 국제스포츠정보센터(2025). 홈페이지. <https://gsic.sports.or.kr/>

124)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125) 대한체육회(2025). 창립취지 및 연혁. <https://www.sports.or.kr/sports/main/contents.do?menuNo=200056>

국제적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스포츠에 대한 공적 관심을 가져왔고¹²⁶⁾, 여성의 국제 스포츠 참여는 곧 자연스레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변화와 여성 생활스포츠 참여를 확산시켰다¹²⁷⁾. 1980년대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의 양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대회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수영, 탁구, 체조, 배구, 농구, 핸드볼, 양궁, 베드민턴, 사격 등 여러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경기력을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하였다.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스포츠이벤트를 통해 많은 스타들을 탄생시켰다. 빼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는 물론, 특별한 스토리를 가진 선수들도 대중적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아시안게임이 올림픽에 비해 비중이 낮지만,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민동생’ 수영의 최윤희, 최윤희, 최윤희 선수, 육상의 임춘애 선수, 양궁의 서향순, 김수녕 선수, 탁구의 현정화 선수 등 여성 스포츠인들의 스타를 탄생시켰다¹²⁸⁾.

특히, 1982년 아시안게임 수영종목에서 최윤희, 최윤희 자매의 활약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사회상에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최윤희의 금메달은 한국 수영 사상 최초의 금메달이며, 금메달 3관왕, 동생 최윤희는 은메달 3관왕으로 시상식 때 한복을 입어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육상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3관왕을 안겨준 임춘애 선수의 가난과 역경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모습으로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비 인기종목이었던 여자하키는 1974년 제5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폐지되었다가, 1981년 다시 부활하여 처음으로 국제무대를 참가한 1982년 아시안게임에서 은메달을 차지하였고 1986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준우승을 차지하여 비인기종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기관의 실업팀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올림픽게임에서 양궁의 서향순 선수(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올림픽게임)의 금메달과 연이어 김수녕 선수(1988년 서울올림픽게임)의 최연소 국가대표 선수(당시 17살)로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글로벌 스포츠 분야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여성 진출이 활발하면서 여성스포츠 참여의 견인역할을 하였다¹²⁹⁾.

126) 김숙자, 허현미, 김양래(1995). 한국 여성의 스포츠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9, 51-58.

127) 이선영, 이성노(2024). 1980년 이후 한국 체육정책과 여성 생활체육 정책의 변천과 발달과정, 한국체육과학회지, 33(4), 1-19.

128) 신경훈(2023. 10. 6.). 최윤희부터 신유빈까지 아시안게임이 낳은 국민여동생들, 동아일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60702i>

129) 오대열(2024. 4. 16.). 한국을 빛낸 스포츠 영웅들, ‘양궁의 전설’ 김수녕,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kid/kid_literacy/kid_sisanews/2014/04/15/AXER5RCB6CFZGSP6T254WCONJU/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성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더디게 발전되었던 시기인 만큼 '88 서울올림픽 이후 여성 스포츠인의 증가와 생활스포츠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나아가 성 역할에서도 여성의 인식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올림픽을 계기로 인해 각종 여성을 위한 법제도 제정·시행이 되었다. 이처럼 국제스포츠에서 여성의 활약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¹³⁰⁾.

1980년대는 여성 엘리트 선수의 관심뿐만 아니라, 여성 스포츠 참여가 확대되었다. 종목에서도 다양한 여성 선수, 여성 지도자, 여성 심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 스포츠인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선 지도자와 심판 등으로 활동이 자유스럽게 영역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국제 스포츠 이벤트는 당시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 성차별과 같은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¹³¹⁾, 이는 여성 스포츠 활성화의 촉진과 함께 여성 생활 스포츠 참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로 나타났다¹³²⁾.

국민생활체육실태조사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당시 한국의 여성 스포츠 참여 인구는 1985년 18.6%에서 1989년 33.1%로 증가하였고, 1991년에는 42.9%로 증가하는 등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 이후 여성의 생활체육 참여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¹³³⁾. 이는 여성과 스포츠에 관계가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의 의식변화, 건강관리, 생활체육 참여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85년 대한체육회 내에 여성체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체육으로서 여성스포츠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여성스포츠의 대부분은 건강관리와 다이어트에 대한 유산소운동을 중심으로 에어로빅, 스트레칭 체조, 요가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88서울올림픽게임에 맞춰 '88국민체조' 등은 일상생활에서 응용되는 움직임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춰 개발하여 확산을 위한 전국 세미나 및 강습회가 진행되었다¹³⁴⁾. 송병권(2001)의 연구¹³⁵⁾에 의하면 1988년 이후부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남·여

130)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131) 정동구, 하웅용(2003). 광복 후 한국 여성체육문화 변천사, 체육사학회지, 8(1), 95-112.

132) 황옥철(2009). 광복이후 한국 여성 스포츠의 변천과 코칭문화 고찰, 한국코칭능력개발원, 11(4), 25-38.

133) 한국스포츠과학원(2025). 1991년도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https://www.sports.re.kr/front/board/bs/boardView.do?board_seq=74&pageNo=2&menu_seq=&con_seq=1377&keyKind3=&keyKind4=&keyKind5=&keyKind6=&keyKind7=&keyKind=TITLE&keyWord=

134) 이선영, 이성노(2024). 1980년 이후 한국 체육정책과 여성 생활체육 정책의 변천과 발달과정, 한국체육과학회지, 33(4), 1-19.

135) 송병권(2001). 해방이후 한국 여성스포츠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의 성비가 줄어들었으며, 남아선호문화보다는 남녀평등사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시기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문화속에서 1981년 여성스포츠회가 창립되었고 1980년 6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여성스포츠회’로 개정하여 체육부인가를 받아 엘리트 스포츠뿐만 아니라 생활스포츠에 관심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한국여성스포츠의 전국적인 확산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켰다¹³⁶⁾.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1980년대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의 성공개최를 위한 엘리트 체육의 집중과 환경조성을 위한 국민적 관심은, 태권도의 국제 스포츠로서 '세계화'와 1982년 용인대학교, 1983년 경희대 태권도학과(4년제 대학) 개설 등 태권도학과 중심으로 '학문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국제 스포츠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숨 가쁜 노력을 기울여온 태권도는 1975년 국제경기연맹(GAISF)에 가입하였고 198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83차 총회)로부터 태권도 종목과 세계태권도연맹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승인이 되었고, 국제 스포츠로서의 스포츠 외교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기반을 딛고 태권도는 1986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 1988년 서울올림픽 시범종목, 1983년 아메리칸게임과 팬암게임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등 세계 스포츠 종목으로 실적을 하나씩 쌓아갔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과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를 역임하고 있던 김운용 회장의 1986년 국제경기연맹(GAISF)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같은 해에 세계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선정되어 태권도의 국제 스포츠로서의 발전에 확실한 지렛대가 되어 주었다¹³⁷⁾.

더욱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에서 개회식과 폐회식때는 전 세계인에게 강렬했던 태권도 시범은 이후 2000년 시드니올림픽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¹³⁸⁾. 뿐만 아니라, 1986년 5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에서도

연세대학교

136) 권육동(2002). 한양순과 생애: 여성스포츠, 올림픽운동 및 사회체육운동, 한국체육철학회지, 10(2), 1-20.

137) 세계태권도연맹(2005). <https://www.worldtaekwondo.org/about-wt/about.html>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승인되는 등 1986년은 태권도가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하는 큰 쾌거를 얻는 한해였다.¹³⁹⁾

이처럼 '86서울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은 국제사회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면, 태권도 역시 태권도의 파생과 해외 보급이 시작된 지 불과 40여년만에 국제스포츠로서 기반을 다진 한국문화의 세계화 수준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¹⁴⁰⁾.

특히, '88서울올림픽에서 개막식 메가 시범은 전 세계인이 TV를 통해 태권도의 일치된 시범은 세계인에게 무예로서 태권도를 제대로 선보였다¹⁴¹⁾.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에서의 태권도경기와 태권도시범은 글로벌 태권도 대회와 태권도시범단을 통한 민간외교 사절단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국위선양을 하였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태권도지도자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는 시점이었다.

당시 태권도 3대 기관이었던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은 태권도가 무예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제 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의 강화, 지도자 교육, 경기체계 확립 등 글로벌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국기원의 경우 심사 교육, 승품·단 심사 교육, 태권도 사범지도자 교육, 승품·단 평가위원, 국가체육자격증(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등을 위한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을 운영하여 태권도 보급과 지도자 양성을 본격화하고 체계화하였다.

또한 태권도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태권도시범단의 육성과 시범 프로그램에서 기본 동작, 격파, 호신술, 군무, 겨루기 등 태권도의 다양한 기술들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사절단으로 태권도 세계화를 확산시켰다¹⁴²⁾. 특히, 대한태권도협회는 1971년 4월 15일 태권도 계간지인 태권도지 창간호를 발간하면서, 국내·외 태권도계의 소식을 전하는 소통의 창구로 연간 4회 발간하였다. 또한, 엘리트태권도선수를 육성하고 발굴하는 등 태권도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판교육, 경기규정, 안정장비개발, 전자 시스템 도입 등 글로벌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38) 정찬모(2008). 태권도의 세계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13(2), 1129-141.

139)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https://www.fisu.net/sports/taekwondo/>

140) 한승백, 오현택, 김동제, 권창기, 이상호(2010). 스포츠화 과정으로서의 태권도의 세계화,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15-25.

141) 정찬모(2008). 태권도의 세계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13(2), 1129-141.

142) 이진우(2024). 태권도 주요기관의 사업 탐색 및 세계화 방안, 한중경제문화연구, 28, 121-135.

143) 대한태권도협회(1986). 1986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프로그램. 태권도지 9월호.

아시안게임 공개행사 태권도시범「약동」

미동국민학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



아시아의 평화와 전진을 염원하는 대회이념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부각하게 될 공개행사에서 미동국민학교 어린이태권도 시범단은 특전사 소속 절병들과 함께 태권도 시범「약동」을 펼치게 된다.

방학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대위도 밋은 채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미동국민학교 체육관은 어린이들의 기합소리에 열기가 가득했다.

남들은 방학이라고 바다로 산으로 피서하는데 이렇게 매일 나와 연습하는게 싫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져 보았더니 어린이들은 “태권도 하는 것이 피서하는 것보다 좋아요”라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

특히 공개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이 참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각국의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는만큼 이를 지도하는 이규형사범(공인 7단·국제실편)은 더욱더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끼는 장면인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들 200여명으로 형성된 태권도 시범단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지도상의 어려움이며 군인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도 단적으로 어린이만 지도할때 보다는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 놓는다.

매일 밤 중에서도 줄을 잘못선다든지 하는 사소한 실수들이 눈에 보여 애를 태우곤 한다는 이사범은 절소 태권도를 가르침에 있어 “기술습득보다는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힌다.

다.

지난 7월 18일 하오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86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 공개행사 합동 예행연습에서 태권도 시범「약동」은 가장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프로그램으로, 한국인의 색색하고 용감한 기상을 나타낸 것으로 가장 많은 갈채와 호평을 받았다.

개폐회식 프로그램

순	시	시간(분)	출연인원
식	영 고	8	966
개	철철총질	5	1,318
행	북두각시	5	1,200
전	춘남맞이	7	2,244
공	개식동고	5	606
	선수단입장	25	337
개	대회기연도	5	20
	개회선언	1	1,300
행	대회기제양	5	233
	일화점화	5	118
사	선수단지장	8	300
식	신원지	10	2,289
후	거제외출경	5	854
공	봉치너	5	912
개	약동	5	900
행	고놀이	6	1,942
사	영원한전적	4	
개	개식동고	2	201
	태권실대	5	800
회	선수단입장	25	637
	3기제양	4	112
식	아리랑	20	601
	개회선언	3	
행	대회기제양	3	12
	상화소화	2	1,000
사	강장수형대	13	504

그림 50. 1986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프로그램¹⁴³⁾

[그림 51]은 대한태권도협회(1980) 태권도지 7월호에 실린 체급별 회전 경기를 측정하는 스태프워치기구이다. 계시원의 부주의와 착오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다목적용 자동식 전자 디지털 개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스포츠로서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¹⁴⁴⁾. 이처럼 글로벌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한 각 체급별 남·녀 엘리트 선수선발과 육성, 전국체육대회와 실업팀 육성, 국내태권도대회 유치와 활성화, 국내 심판교육 및 상임심판 선발 등으로 국내 태권도 보급과 저변확대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⁴⁵⁾.

144) 대한태권도협회(1980). 전자 디지털 자동계시기의 개발 및 장비. 7월호.

145) 대한태권도협회(2025). 사업목표 및 기능. <https://www.koreataekwondo.co.kr/c001/c0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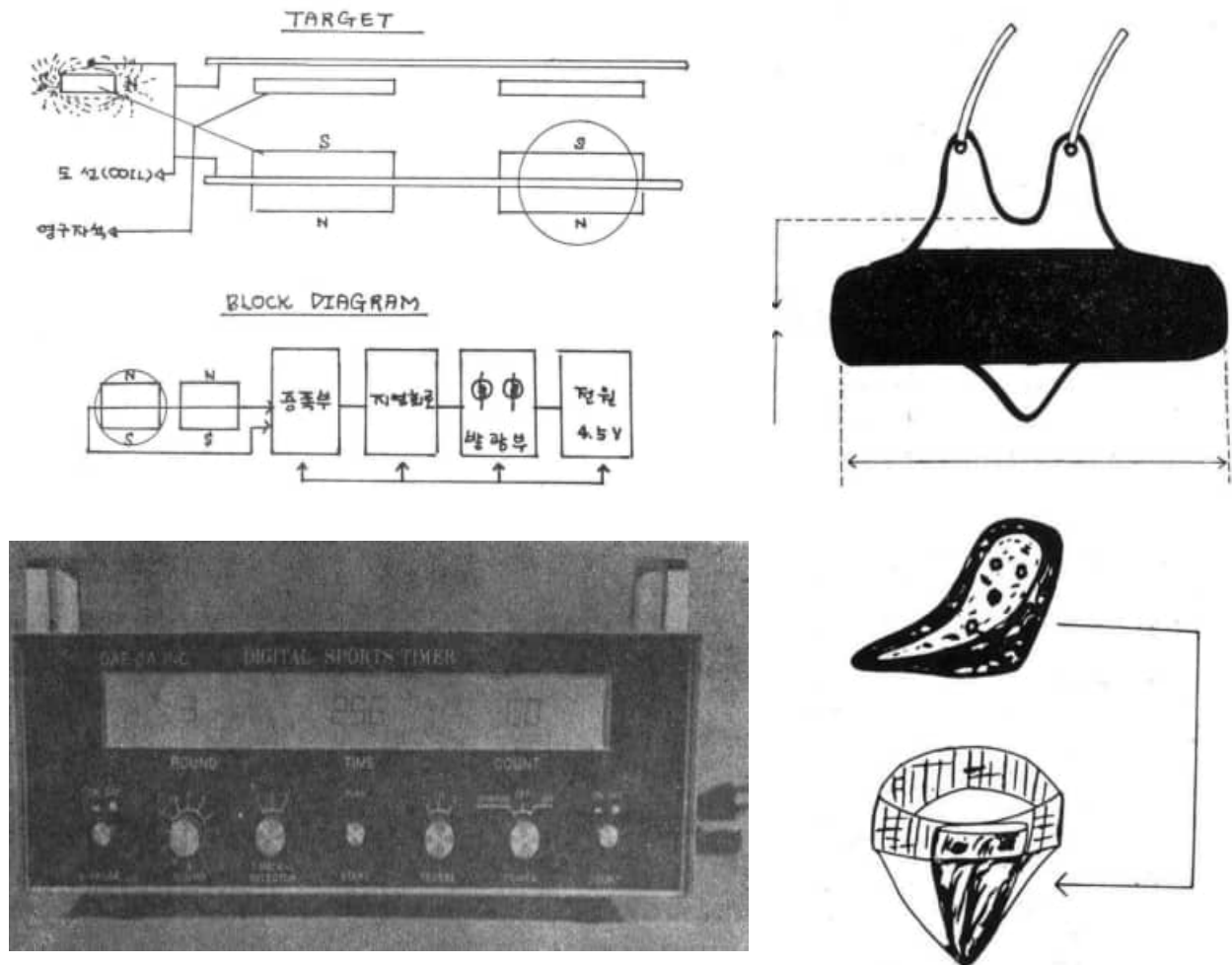


그림 51. 전자 디지털 자동계시기의 개발 및 장비

태권도지 1980년 7월호에 연재만화 태순양의 내용을 살펴보면[그림 52], 대한태권도 협회의 국내경기 활성화와 국제대회에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한 예이다. 이는 태권도를 국제 경기화하기 위한 국내경기에서 다양한 노력을 제도권에서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⁴⁶⁾

146) 대한태권도협회(1980). 태권도지 10주년 기념특집호. 7월호.



그림 52. 대한태권도협회(1980) 태권도지 10주년 기념특집호

당시 김운용 회장이 대한태권도협회와 세계태권도연맹의 수장으로 있었던 만큼 태권도 경기의 경기화와 세계화가 일사불란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⁴⁷⁾.

이처럼 1973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대부분 단일종목 태권도대회만 개최하였으나, 1986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대회에 태권도 종목이 정식종목으로 승인받으면서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글로벌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한 시대적 관심과 엘리트 체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태권도경기를 적극적으로 지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스포츠로 거듭나기 위한 세계태권도연맹과 대한태권도협회는 국내 및 해외 경기화를 위한 경기규칙 규정, 심판 양성, 지도자교육 등 세계태권도연맹 회원국 모집 및 대륙별연맹 관리, 국제심판교육 및 세미나, 국제대회 유치와 확장을 위한 글로벌 스포츠로서 개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¹⁴⁸⁾.

147) 하태은(1999). 광복 이후 군 태권도의 발전사 연구, 세계태권도학회지, 3, 25-28.

148) 세계태권도연맹(2025). <http://www.worldtaekwondo.org>

기존의 태권도 교육은 심신수련(心身修練) 및 호신(護身)을 연마하는 태권도 기술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 진출이 이루어졌다면,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의 유치를 기반으로 1980년대는 본격적인 무예스포츠로서 경기화를 통한 태권도 지도자 및 스포츠 종목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⁴⁹⁾.

대한태권도협회 1988년 9월 태권도지 자료를 살펴보면, '88서울올림픽게임때 태권도 시범종목에 참가한 나라가 32개국, 183명의 선수가 출전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당시 세계태권도연맹에 가입한 국가만 해도 112개국이며, 대회에 출전한 나라들은 그동안 세계대회 전적 등을 고려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이 출전 자격을 부여할 만큼 참가한 나라들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태권도 강국으로서 인정받았다고 한다. 태권도 강국을 중심으로 나라의 태권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태권도연맹은 참여국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 인구, 관심도, 최초 태권도 전파자 등을 조사하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정치적·외교적·사회적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표 2]¹⁵⁰⁾.

표 2_1. '88서울올림픽 태권도종목에 참가한 나라 중 설문지를 작성한 나라명단. 대한태권도협회(1988) 9월호

 가 나 (GHANA) 1. 수련인구: 약 10,000명 2. 유단자 수: 약 200명 3. 체육관(도장) 수: 약 22개소 4. 사범 수: 약 25명 5. 태권도가전파원지: 약 10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최기철 (국명) 한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최기철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2명 9. 태권도의 인기도: 높다 10. 협회결성년도: 1978년도 11. 협회의 형태: 독립협회	 요르단 (JORDAN) 1. 수련인구: 약 4,000명 2. 유단자 수: 약 580명 3. 체육관(도장) 수: 약 26개소 4. 사범 수: 약 27명 5. 태권도가전파원지: 약 14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권희화 (국명) 자유중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3명 9. 태권도의 인기도: 보통 10. 협회결성년도: 1979년도 11. 협회의 형태: 비독립협회	 일본 (JAPAN) 1. 수련인구: 약 5,000명 2. 유단자 수: 약 100명 3. 체육관(도장) 수: 약 20개소 4. 사범 수: 약 20명 5. 태권도가전파원지: 약 8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이기도 (국명) 한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이기도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명 9. 태권도의 인기도: 낮다 10. 협회결성년도: 1980년도 11. 협회의 형태: 독립협회	 독일연방공화국 (FEDERAL REP. OF GERMANY) 1. 수련인구: 약 200,000명 2. 유단자 수: 약 5,000명 3. 체육관(도장) 수: 약 1,000개소 4. 사범 수: 약 800명 5. 태권도가전파원지: 약 20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권희화 (국명) 한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권희화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70명 9. 태권도의 인기도: 높은편이다 10. 협회결성년도: 1968년도 11. 협회의 형태: 독립협회
 버진제도 (VIRGIN ISLANDS) 1. 수련인구: 약 2,000명 2. 유단자 수: 약 200명 3. 체육관(도장) 수: 약 15개소 4. 사범 수: 약 100명 5. 태권도가전파원지: 약 10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로이 워싱턴 (국명) 미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김민준 (감독)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명 9. 태권도의 인기도: 매우 높다 10. 협회결성년도: 1978년도 11. 협회의 형태: 독립협회	 필리핀 (PHILIPPINES) 1. 수련인구: 약 100,000명 2. 유단자 수: 약 3,000명 3. 체육관(도장) 수: 약 250개소 4. 사범 수: 약 400명 5. 태권도가전파원지: 약 19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홍성원 (국명) 한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홍성원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7명 9. 태권도의 인기도: 매우 높다 10. 협회결성년도: 11. 협회의 형태: 독립협회	 이란 (IRAN) 1. 수련인구: 약 100,000명 2. 유단자 수: 약 4,500명 3. 체육관(도장) 수: 약 600개소 4. 사범 수: 약 400명 5. 태권도가전파원지: 약 14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사파비 (국명) 이란 7. 최초의 한국 사범: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명 9. 태권도의 인기도: 매우 높다 10. 협회결성년도: 1987년도 11. 협회의 형태: 독립협회	 오스트레일리아 (AUSTRALIA) 1. 수련인구: 약 30,000명 2. 유단자 수: 약 1,000명 3. 체육관(도장) 수: 약 400개소 4. 사범 수: 약 100명 5. 태권도가전파원지: 약 20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김환용 (국명) 미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김환용, 노계철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70명 9. 태권도의 인기도: 매우 높다 10. 협회결성년도: 1972년도 11. 협회의 형태: 독립협회

149) 한승백, 오현택, 김동제, 권창기, 이상호(2010). 스포츠화 과정으로서의 태권도의 세계화,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15-25.

150) 대한태권도협회(1988). '88서울올림픽에 태권도종목에 참가한 나라 중 설문지를 작성한 나라. 태권도지 9월호.

표 2.2. '88서울올림픽 태권도종목에 참가한 나라 중 설문지를 작성한 23개국 나라(대한태권도협회(1988) 9월호, 연구자 재구성)

 니제르 (NIGER) 1. 수련 인 구: 약 1,800명 2. 유 단 자 수: 약 17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9개소 4. 사 범 수: 약 1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6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조 형 구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조 형 구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높음편이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88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코트디부아르 (Côte D'Ivoire) 1. 수련 인 구: 약 65,000명 2. 유 단 자 수: 약 18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49개소 4. 사 범 수: 약 5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4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김 영 태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김 영 태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매우높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3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네팔 (NEPAL) 1. 수련 인 구: 약 1,000명 2. 유 단 자 수: 약 36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1개소 4. 사 범 수: 약 1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6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신 재 관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신 재 관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매우높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5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1. 수련 인 구: 약 20,000명 2. 유 단 자 수: 약 2명 3. 체육 관(도 장) 수: 도장: 24개소, 군정시설 25개소 4. 사 범 수: 약 6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15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이 희 번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이희번(동부), 노승욱(서부)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5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높음편이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5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비독립협회
 말레이시아 (MALAYSIA) 1. 수련 인 구: 약 20,000명 2. 유 단 자 수: 약 5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150개소 4. 사 범 수: 약 30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28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이 종 화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우 계 일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2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높음편이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1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뉴질랜드 (NEW ZEALAND) 1. 수련 인 구: 약 5,000명 2. 유 단 자 수: 약 4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116개소 4. 사 범 수: 약 14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13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이 정 남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이 정 남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2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매우높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5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비독립협회	 이집트 (ARAB. REP. OF EGYPT) 1. 수련 인 구: 약 50,000명 2. 유 단 자 수: 약 2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150개소 4. 사 범 수: 약 10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14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Mr.노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Mr.노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2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높음편이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8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네덜란드 (NETHERLANDS) 1. 수련 인 구: 약 12,000명 2. 유 단 자 수: 약 1,0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115개소 4. 사 범 수: 약 13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10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박 영 수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박 영 수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낮 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9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영 국 (GREAT BRITAIN) 1. 수련 인 구: 약 6,000명 2. 유 단 자 수: 약 3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200개소 4. 사 범 수: 약 20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21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이 기 하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이 기 하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200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높음편이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67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캐나다 (CANADA) 1. 수련 인 구: 약 500,000명 2. 유 단 자 수: 약 20,0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1,500개소 4. 사 범 수: 약 50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23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국 명) 7. 최초의 한국 사범: (성명) (국 명)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20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보통이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6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이탈리아 (ITALY) 1. 수련 인 구: 약 10,000명 2. 유 단 자 수: 약 2,0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200개소 4. 사 범 수: 약 18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22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박 선 재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박 선 재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8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보통이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66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폴란드 (POLAND) 1. 수련 인 구: 약 2,000명 2. 유 단 자 수: 약 4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20개소 4. 사 범 수: 약 3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16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국 명) 7. 최초의 한국 사범: (성명) (국 명)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2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낮 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80년 폴란드 가라다 연맹장단(현재 태권도협회 소속) 11. 협 회 의 형 태: 비독립협회
 카타르 (QATAR) 1. 수련 인 구: 약 50,000명 2. 유 단 자 수: 약 3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6개소(군부대) 4. 사 범 수: 약 3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9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나 종 율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나 종 율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2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매우높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79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터 키 (TURKEY) 1. 수련 인 구: 약 2명 2. 유 단 자 수: 약 900~1,0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800개소 4. 사 범 수: 약 60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10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조 수 세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조수세, 권재화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2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매우높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1981년도 11. 협 회 의 형 태: 독립협회	 프랑스 (FRANCE) 1. 수련 인 구: 약 10,000명 2. 유 단 자 수: 약 1,000명 3. 체육 관(도 장) 수: 약 300개소 4. 사 범 수: 약 300명 5. 태권도가전과원지: 약 19년 6. 최초로 태권도를 전달한 사람: (성명) 이 관 영 (국 명) 한 국 7. 최초의 한국 사범: 이 관 영 8. 현재 활약중인 한국인 사범 수: 약 12명 9. 태 권 도 의 인 기 도: 보통이다 10. 협 회 결 성 년 도: (성명) (국 명) 11. 협 회 의 형 태: 비독립협회	

또한 1980년대는 국제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경기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뛰어 넘어 태권도 종목이 ‘학문화’로 성장하는 시기였다. 국제 스포츠종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정치적·정책적 활동뿐만 아니라 ‘학문화’를 도모함으로써 세계인이 인정하는 스포츠적 가치와 교육적 가치를 정착화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최초의 태권도학과 개설은 1982년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에서 주간 50명, 야간 50명으로 학생을 선발하였다¹⁵²⁾. 다음 해 1983년 경희대학교가 종합대학 최초로 수원캠퍼스에서 태권도학과를 개설하여 40명을 선발하였다¹⁵³⁾. 이후 1990년대 계명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는 첫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태권도학과 신설은 오늘날 [무예]에서 [스포츠]로 그리고 [태권도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으로 인정받은 데 큰 역할을 하였다¹⁵⁴⁾.

당시 경희대학교 입학한 임신자교수의 회고에 의하면,

경희대학교 1기생이에요. 그 당시 제가 83학번이니까요. 그 시절에는 연세대학교총장기 대회가 있었어요. 나도 졸업하면 반드시 연세대학교에 갈꺼라는 목표를 갖고 있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특기자를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1기라서 여성이 4명, 나머지 남자 7명이 선발되서 총 11명의 특기생으로 4년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¹⁵⁵⁾.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원리와 삶의 본질을 다루는 학문이 ‘철학’이라면, 교육을

개막식 공개행사 벽을 넘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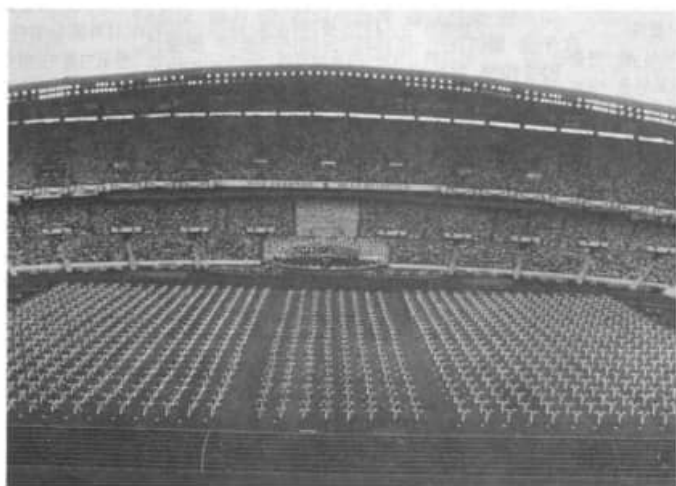


그림 53. 1988년 올림픽개임 행사¹⁵¹⁾

151) 대한태권도협회(1988). 1988년 올림픽개임 행사. 태권도지, 9월호.

152) 용인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yongin.ac.kr/>

153)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http://sports.khu.ac.kr/01/03.php>

154) 김지혁(2022).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문적 정체성 찾기, 한국체육철학회지, 30(3), 59-74.

155)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임신자 편

근대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화하는 것이 ‘교육학’이다, 그리고 체육, 즉 신체운동을 통한 인간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체육학’이다. ‘태권도학’은 체육학 영역에서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었고 할 수 있다¹⁵⁶⁾.

3) 여성 태권도의 발전기

(1) 여성 태권도 참여 인구 증가

여성 태권도가 본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시기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 유치와 개최를 통해 태권도종목에서도 여성 태권도인의 수련 인구 증가와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 시기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엘리트 스포츠정책을 보급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메가 스포츠의 유치와 성공개최를 위한 엘리트 선수의 관심과 여성 태권도 참여 인구가 증가하고 본격적인 여성 태권도 지도자들이 제도권에서 참여했던 시기이다¹⁵⁷⁾.

1979년 창립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에 등록된 여성 유단자 수만 해도 약 2만 명에 달했으며,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신설은 여학교 태권도부 창단과 태권도학과 여자선수 선발 붐이 일어났다.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 1980년 7월의 기록에 의하면, 1980년 6월 14일 ~ 15일 제11회 주한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참가인원이 336명으로 외국인부 130명, 여자부 206명이 참여하여 여자부 선수의 증가와 여성 엘리트 태권도 선수들이 대회참여와 여성 태권도 인구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¹⁵⁸⁾.

국가적 차원에서 엘리트 체육의 육성으로 여성 태권도 수련층은 증가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 여성 태권도 선수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는 연간 4-5회 불과하여, 여성 태권도 선수가 없어서 남성 선수와 스팅하는 일은 비일비재하였다. 겨루기 종목의 경우 남녀 체급별 경기로 세계대회에 출전하는 여성 선수들을 꾸준히 선발시켜 출전시켰다. 그러나, 여성 엘리트 선수의 육성보다는 체급별로 남녀 기준에서 국제대회로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모색으로 보이며, 실상 여성 태권도인이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훈련환경과 처우는 매우 열악했음을 알 수 있다. 최광근(2009)은 1980년대

156) 김지혁(2022).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문적 정체성 찾기, 한국체육철학회지, 30(3), 59-74.

157)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발전과정, 14(3), 129-142.

158) 대한태권도협회(1980). 주한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태권도지 7월호.

세계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 3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여성 임원이 없었으며, 여성 태권도 수련인을 위한 환경과 제도권에서 여성에 대한 처우가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⁵⁹⁾.

김영숙 사범은 당시 코치로 해외 대회를 나갔었는데 열악한 환경속에서 더욱 차별을 받고 있었던 여성선수에 대한 상황을 회고하였다.

프리월드대회 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었어요.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남자들은 단복을 입혀주고 여자들은 단복을 안 해줬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요. 동대문시장에 가서 옷감을 딱 끊어다가 아는 양장점에서 8명의 선수들의 단복을 입혔어요.¹⁶⁰⁾

당시 여성의 스포츠 참여와 엘리트스포츠로 육성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선수조차도 여성으로서 차별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에서 전원 남성으로 기술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내용을 보아 현장에서는 더 열악한 환경과 차별속에서 여성 태권도인들은 태권도를 수련한 것으로 보인다.

1980년 4월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에 수록된 국기원 기술기구 임원과 대한태권도협회 임원명단을 살펴보면, 여성 수련생을 포함한 그 당시 여성 태권도인을 배려하는 환경과 대외활동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¹⁶¹⁾.

159)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29-142.

160)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김영숙 편

161) 대한태권도협회(1980). 1980년 국기원기술기구임원명단. 태권도지 4월호.

○ 기 술 기 구 임 원 ○					
기술지도위원					
이 용 우 이 교 윤					
기술심의역					
이 병 로 김 인 석					
기술업무간사					
최 남 도					
원장실근무					
박 해 만 이 기 해					
교육분과위원장: 김 용 서					
교육분과부위원장: 이 규 정 홍 정 부 임 춘 길					
교육분과위원: 고 국 환 노 영 일 박 인 권 전 만 식 이 병 훈					
임 현 장					
연구분과위원장: 정 중 성					
연구분과부위원장: 우 필 옥 김 상 하 이 규 석					
연구분과위원: 최 길 현 김 정 기 이 종 문 김 종 길 범 기 철					
공 세 화 한 규 인 임 홍 수 맹 만 호					
서울지방심사위원					
(승단부)					
김 재 기 신 장 식 김 봉 기 고 철 성 김 영 작 전 성 환					
전 재 규 이 병 규 지 희 용 강 영 복 문 창 남 이 영 철					
김 형 빈 임 순 호					
(승품부)					
이 상 연 김 정 인 이 남 호 장 기 승 강 신 익 유 문 규					
박 덕 규 전 창 식 김 진 휘 유 수 응 김 종 찬 김 창 호					
박 현 섭 이 전 오 최 종 수 이 기 형 장 재 성 강 종 만					
이 영 덕 노 부 귀 김 봉 식 고 성 훈 김 정 태 이 정 응					
권 호 열 김 강 인 이 영 환 정 창 규 김 영 삼 구 정 도					
〈國 技 院〉					

그림 54. 국기원 기술기구임원¹⁶²⁾

162) 대한태권도협회(1980). 1980년 국기원기술기구임원명단. 태권도지 4월호.

전 문 위 원 회

지 도 위 원 : 김 순 배

경기분과위원회

위 원 장 : 곽 병 오

부위원장 : 최청대, 김용휘, 문한종

위 원 : 박용국, 김석만, 한명학, 유광종, 신인철, 김호주

심판분과위원회

위 원 장 : 김 순 배

부위원장 : 이영근, 이상달, 백수남

위 원 : 조준호, 김중영, 조경수, 손향성, 유상철, 한만규, 장순권, 김춘근, 이무용,
박왕규, 박종명, 김용길, 조한우, 강성민, 김석환, 윤병선, 김교준, 전판선,
최돈오, 최준배, 이창무, 윤석호, 이종찬, 양성박, 최재무, 김영철, 한상진,
장용갑, 이창규, 박경선, 노달선, 임동범, 임용목, 윤오노, 백남식, 이규형,
장남웅, 김종섭, 김광배, 김혁배, 백남진, 김진위, 최석철, 신범승, 정해주,
김윤호, 이성택, 김경찬, 심명구, 이호영, 김연경, 김경호, 조호철, 박종률,
이재호

국제분과위원회

위 원 장 : 송 상 근

부위원장 : 송봉섭, 주계문, 이승국

위 원 : 전중오, 허 영, 유현목, 홍재학, 허 송, 한창수

편집분과위원회

위 원 장 : 원 상 옥

부위원장 : 박강열, 김진환, 문선호

위 원 : 강국형, 배동승, 정구득, 이종호, 신문희, 이석원

상벌분과위원회

위 원 장 : 이 승 완

부위원장 : 이완기, 김종익, 정순규

위 원 : 엄용석, 이영세, 한효봉, 신우철, 최정도, 최대웅

도장관리분과위원회

위 원 장 : 전 용 하

부위원장 : 허지희, 김대연, 박부철

위 원 : 정경덕, 오함숙, 조정진, 나종열, 김정량, 최용준

시범분과위원회

위 원 장 : 권 경 옥

부위원장 : 유승선, 신재도, 이규현

위 원 : 조형구, 구정희, 최봉호, 조봉남, 이종관, 이신화, 김현성, 이석수, 김창용,
조병현, 차용훈, 심명구, 김영인, 안주태, 이규현

〈大韓跆拳道協會〉

그림 55.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임원¹⁶³⁾

163) 대한태권도협회(1980). 1980년 기술전문위원회 임원. 태권도지 4월호.

최근까지 국기원에서는 태권도를 빛낸 사람들을 선정하여 ‘자랑스런 태권도인’을 시상하고 있다. 역대 자랑스런 태권도인의 150여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여성 태권도인은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아 여전히 태권도의 제도권은 여성보다는 남성중심과 성비에 대한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이어와 자리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⁴⁾.

이처럼 1980년대 경제력 성장과 엘리트 체육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여성 태권도 수련층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태권도학과 개설은 대학 진학을 혜택과 함께 여성 지식인층의 증가 및 초·중·고등학교 태권도부팀도 활발하게 육성되었다. 그럼에도 여성 태권도인은 태권도계에서 여전히 폐쇄적이고 국한적인 제약을 받았으며, 대회장에서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임원으로서 단장, 감독, 코치, 심판 등의 제도권의 임원은 남성들의 전유물로서 여성 태권도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다¹⁶⁵⁾.

이러한 가운데 1985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여자부가 신설되었고, 아시안게임 및 올림픽게임 유치에 박차를 가하였다. 아시안게임과 올림픽게임 유치와 개최는 엘리트 체육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급속도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 분야에서도 성장판을 자극하는 성장 체조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와 성인 여성층을 위한 친숙한 태권체조와 태권에어로빅, 태권무 등 다양한 태권도 시범이 성행하였다¹⁶⁶⁾.

특히, 태권도 시범에 음악을 가미하면서 볼거리를 더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여성호신술을 삽입하여 극적인 여성 수련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88 서울올림픽게임 이후 태권도를 더욱 성장시키고자 정부와 체육부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는 어린이 및 여성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태권체조, 태권에어로빅 등 개발하여 쉽게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서 더욱 확대시켰다.

이렇게 즐거운 음악과 생활체조와 접목한 태권체조는 대학에서도 여성 태권도 수련 열기로 이어졌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태권도' 동아리를 통해 태권도 수련과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하였고, 여성 대학 태권도부 간의 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¹⁶⁷⁾. 여성 태권도 수련층의 증가는 곧 여성 태권도의 활성화와 대회 참여가 증가하였다.

164) 국기원(2025). <https://kukkiwon.or.kr/>

165) 이경명(2002). 여성 태권도활성화방안,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학술자료집.

166)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29-142.

167)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29-142.

이처럼 여성 태권도대회 활성화와 태권도학과의 개설은 자연스레 여성 태권도 지도자들을 배출되는 통로였지만, 대부분 선수 생활에서 경력이 단절되고 일선 지도자로 취업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였다.

1979년 창립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은 1980년대 초반 왕성하게 활동하였으나, 사회적 편견과 여성에 대한 인식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상황으로 1984년에 해산되었다. 그럼에도 여성 태권도인을 잡초처럼 생명력을 유지하는 수련을 하였다.

당시 서영애 사범이 수련했던 태권도장의 환경에 대해 회고한 자료를 살펴보면,

탈의실이 없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운동 끝나면 오빠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훌렁훌렁 벗고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저는 이제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찢찢 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초반이지, 시간이 지나니깐 뭘 갈아입든지 말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됐는데 지금 도장들은 네 여자 탈의실 따로 남자 탈의실 따로 그리고 바닥도 제가 다닐 때는 마루바닥이었고 지금은 매트라고 하죠. 매트가 다 깔려 있고 시설 자체도 굉장히 안전을 위주로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제가 다닐 때는 안에 들어가면 약간 무서울 정도의 분위기였죠. 무겁게 약간 칙칙하게 근데 지금 도장들은 굉장히 화사하죠¹⁶⁸⁾.



그림 56. 대한태권도협회 선수등록증¹⁶⁹⁾

168)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서영애 편

169) 서영애 개인소장자료

서영애 사범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찍 결혼하여 태권도 수련이 단절되었지만, 다시 태권도를 배우고자 아이를 낳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서영애 사범은 당시 여성으로서 운동하는 환경이 좋지 않았으나, 태권도 자체가 즐거움이어서 태권남자회 활동과 함께 꾸준히 겨루기 및 태권도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하였다고 회고하였다.

겨루기대회 저도 나갔는데 제가 첫 겨루기 대회를 그 당시 국가대표랑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국가대표였을 거예요. 임신자 선수랑 했는데 저는 긴장이 돼서 정말 발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더라고요. 이 발이 올라가야 차는데 발이 안 가요. 그런데 상대 선수는 저를 올라가면서 때리고 내려오면서 때리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즐거웠어요. 네 왜냐면 잘하는 선수는 이렇구나 올라가면서 때리고 내려오면서 때릴 수 있는 실력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지! 라고 하면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즐긴다고 했잖아요? 지는 것까지 즐겁더라고요¹⁷⁰⁾.



그림 57. 1988년 여성 태권도선수권대회 주부 태권도 선수 서영애 은메달¹⁷¹⁾

170)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서영애 편

171) 서영애 개인소장자료

태권도를 배우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겨루기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기 둘을 출산, 딸을 둘 출산하고 나서도 다시 또 한 번 제가 겨루기 선수로 등록했더니 제가 우리나라 1호 주부 선수가 되더라고요. 최초 주부 선수 1호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시합을 안 뛰다가 아기 낳고 나서 시합을 나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16강부터 뛴 것 같아요. 근데 16강부터 제가 다 RSC로 이기고 올라갔어요. 결승전까지. 그런데 결승전에서는 1대 0으로 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1등한 선수가 유명해진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났더니 제가 너무 유명해져 있더라고요¹⁷²⁾.

전국대회 겨루기를 뛰었는데 아기 엄마가 낳아서 시합을 뛰었는데 결승전까지 갔다! 그래서 네 눈 땀는데 방송국에서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눈 떠보니 스타가 돼 있더라 하는 걸 그때 또 한 번 느꼈고 그렇게 이제 겨루기가 경기가 있던 시절이니까 저는 이제 계속 겨루기에 굉장히 재미를 또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겨루기 코치 생활을 굉장히 길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품새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도자 교육 들어가고 여러 가지 교육이 항상 품새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승단할 때마다 품새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품새는 계속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재밌으니까 틈틈이 학생들 겨루기 지도하면서 틈새로 제가 이렇게 품새를 학생들도 저 하는 걸 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 학생들이 잘한다고 박수 쳐주니까 좋아서 또 더 하기도 하고 품새는 그냥 때와 장소 없이 즐겼던 것 같아요¹⁷³⁾.

이렇듯 경력단절이었던 서영애 사범은 당시 아이를 낳고 운동하는 현실이 매우 한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낭자회를 통해 태권도 수련과 제도권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을 통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위상을 끌어올리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에서 여성 스포츠인의 활약은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였고, 여권신장도 동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사회적인 여성의 권위와 스포츠 참여에 대한 붐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종목은 격투 스포츠로 사회적 고정관념과 남성주의적 환경으로 많은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에

172)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서영애 편

173)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서영애 편

계약과 불평등이 존재한 사회였다. 그럼에도 여성 태권도인을 중심으로 태권도선수로서, 지도자로서, 심판으로서, 소외계층이었던 여성 태권도인의 여권신장을 위한 노력을 꾀하였다.

(2) ‘태권낭자회’ 결성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 등 겨루기종목은 남녀 각각 체급별 선수들을 동등하게 선발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자선수들의 운동환경과 처우 및 여성 임원의 제도적 참여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태권낭자회는 여성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여성지도자의 권익을 위해 결성된 모임이었다.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 및 여성이 참여하는 국제태권도대회의 활성화는 여성 태권도인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여성 태권도 사범 및 관장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여성 태권도인들의 성장을 도모하는 구심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¹⁷⁴⁾.

최초 심판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당시 태권낭자회 고문으로 활동하였던 장점남(개명, 장정희)사범은 태권낭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여성연맹이 탄생하기까지는 정말 긴 세월 필요했어요. 여성연맹도 탄생했지만, 당시 여성들이 태권도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태권도사범들과 여성지도자들끼리 친목도모형태의 서로 교류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했어요. 1986년 “태권낭자회” 모임을 갖게 되었지요. 만나서 운동도 하고 소모임으로 하다가,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어 “여성 태권도회”로 발전시켰지요¹⁷⁵⁾.

1979년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창립 이후 1984년 대한태권도협회 정기총회에서 ‘왜 여성 태권도연맹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남성태권도연맹도 있어야 남녀 평등이 아닌가?’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던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여성태권도연맹이 자립하기 위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해체를 의결하였다. 당시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들을 체급별로 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태권도인에 대한 배려와 제도적 정책이 전무한 상

174) 태권낭자회(1987) 태권낭자 창간호. 3월 14일

175)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장점남(장정희) 편

태에서 결국은 재정난이라는 이유로 해체되었다¹⁷⁶⁾.

2년 후 여성 태권도 지도자들은 여성태권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986년 인근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 21명이 모여서 ‘여성 태권도회’를 창립하였고, 1987년 미혼이 많았던 모임의 특성을 고려하여 ‘태권낭자회’로 여성 태권도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태권낭자회를 결성했던 해에 교육부를 담당하였던 정효심 사범의 구술채록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80년대도가 넘어가면서 여자 사범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심판, 여성 사범들이 활동하다보니, 우리가 모임을 만들면 전국에 있는 사범들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성 사범 몇몇이 생각을 나눠 만든 단체가 “태권낭자회”였어요. 우리는 1986년 8월에 동대문구에 있는 해룡체육관에서 첫 모임을 갖게 되었어요¹⁷⁷⁾.

여기 저기 수소문해서 일단 3단 이상자를 모아서 21명이 모여서 그때는 태권낭자회가 아니고, 여성 태권도회로 창단하게 되었어요’ 여성 태권도회로 명칭을 사용했다가 그 이듬해 여러번 모임을 했조, 우후 87년에 ‘태권낭자회’로 명칭을 변경했어요. 그 당시 결혼한 후배들이 몇 명 없었어요. 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냥 정겹게 ‘낭자회’라고 하였지요¹⁷⁸⁾.

태권낭자회에 참여한 여성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활동하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 교육 및 정보 교류, 정기적으로 지도자수련과 심판교육 등 전문성을 연마하였다. 또한, 일반 여성을 위한 호신술 강좌 개설, 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여성 태권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¹⁷⁹⁾.

또한, 수도권에서 한정되었던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태권낭자회의 활동과 교육 및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87년 3월 14일에 ‘태권낭자회’ 계간지를 발간

176) 김영인(2002). 한국 여성 태권도 발전과정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학술자료집.

177)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정효심 편

178)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정효심 편

179) 김영인(2002). 한국 여성 태권도 발전과정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학술자료집.

하였다.

정효심 사범은 당시 여성 태권도회에서 태권낭자회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1986년 여성 태권도회로 시작해서 87년 태권낭자회를 변경했어요. 3단에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서울 근교만 했어요. 그러다 인원이 많아지다가 중간에 경기인과 비경기인, 체육관 출신과 학교출신으로 갈라지게 되었죠¹⁸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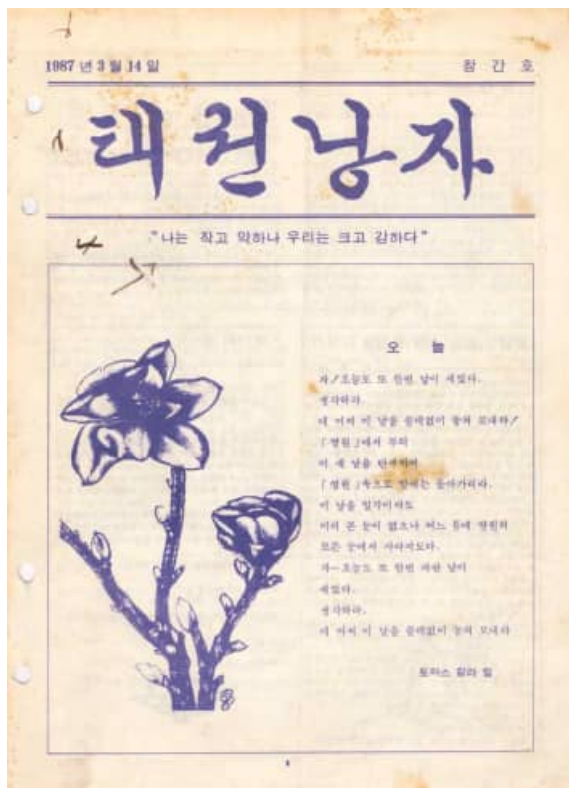


그림 58. 태권낭자회 창간호 표지 및 부서조직¹⁸¹⁾

이렇듯 '태권낭자회'는 여성 주도의 풀뿌리 조직으로 여성 태권도인들에게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남성적 성향이 강한 태권도 제도권에 여성참여의 발판이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태권낭자회' 계간지는 1987년 3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매년 4회(3, 6, 9, 12

180)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정효심 편

181) 태권낭자회(1987). 태권낭자 창간호 표지 및 부서조직.

월호) 책자를 우편으로 배포하였으며, 1993년까지 출판되다가 1994년 ‘한국여성태권도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간되었다.



그림 59. 태권남자회 창간호에 소개된 임원 명단(1987)¹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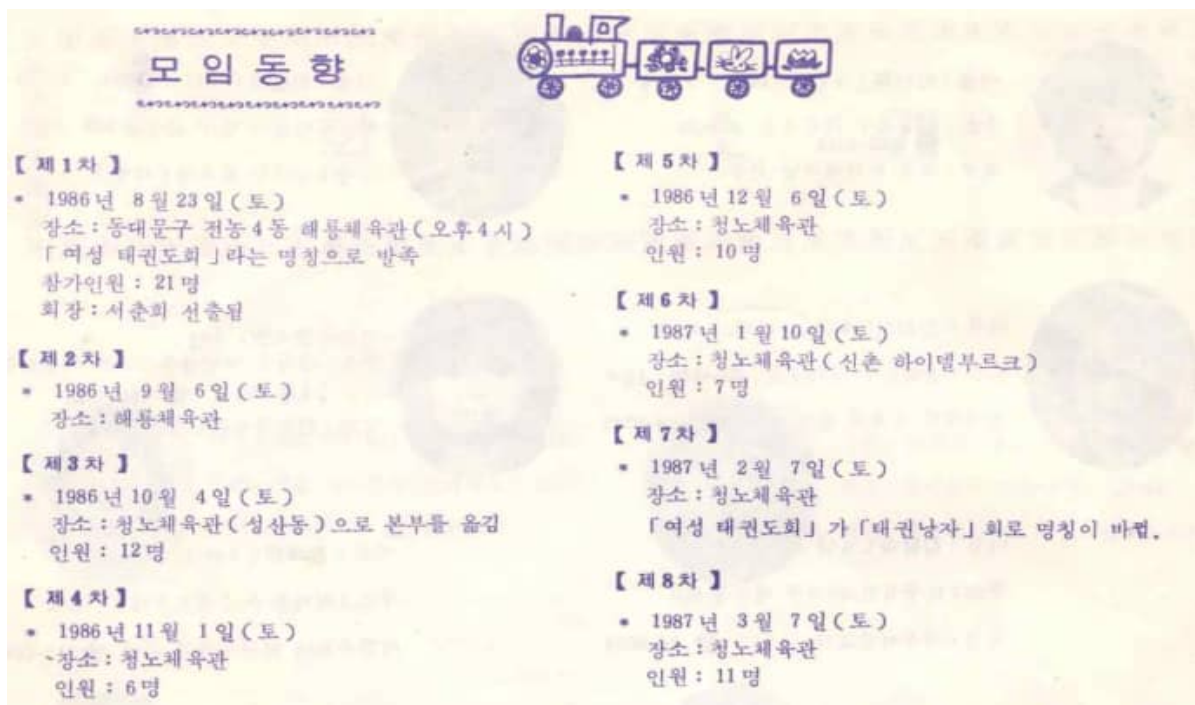


그림 60. ‘태권남자회’ 창간호에 실린 태권남자회 일정 알림(1987)¹⁸³⁾

또한, 정효심 사범은 ‘태권낭자회’ 계간지에 여성 태권도인의 동향 보고 및 회원들의 활동들을 자세히 기재하였으며, 지도자 교육 및 심판교육, 심사교육때 전국적으로 여성 태권도인을 모집하였고, 계간지를 통해 소식을 전달하였다.

1987년 3월부터 창간호를 냈어요. 당시는 일반전화 외에는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지방으로 찾아다닐 수 없고, 우리가 태권낭자회지를 만들어 각 지역에 보내자, 우편으로 우리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 사항을 낱알이 기재해서 지방에서도 여성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국기원이나, 협회에서 강습회, 교육이 있으면 지방에서는 모를 수 있어서 낭자회지 뒷면에 일정도 실었어요. 1년에 44회, 3, 6, 9, 12회 로요¹⁸⁴⁾.



그림 61. 1989년 태권낭자회 태권도 수련 모습. 맨 앞에 장정남 사범¹⁸⁵⁾

고등학생때 태권도를 수련했고 결혼 후 전업주부로 아이들의 엄마로 1988년 여자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서 은메달을 단 첫 주부 태권도선수 서영애 사범 역시도 태권낭자회를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서영애 사범은 태권낭자회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함께 정기적으로 겨루기, 품새, 격파 기술들을 꾸준히 교육하고 연습하면서 제도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였다.

182) 태권낭자회(1987). 태권낭자회 임원 명단. 태권낭자 창간호.

183) 태권낭자회(1987). 창간호에 실린 태권낭자회 일정 알림. 태권낭자 창간호.

184)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정효심 편

185) 태권낭자(1989). 1989년 태권낭자회 태권도 수련 모습. 맨 앞에 장정남 사범.

이처럼 한국 여성 태권도 성장과 기반은 ‘태권낭자회’가 주도하에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의 활약은 여성 태권도인들의 권위를 향상시켰고 1993년 전국체육대회 여성부 승인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4) 여성 심판 및 지도자의 등장

1980년대는 각종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에서 태권도가 승인대회로 인정되는 시기인 만큼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도자 교육과 함께 심판 교육 및 보수 교육이 국내·외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1972년 1월 25일 제1회 심판강습회를 개최하는 시점에서 전문적인 태권도 심판을 양성하기 시작했다¹⁸⁶⁾.

당시 태권도기관의 대부분이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태권도계에서도 조금씩 여성 태권도인의 참여에 대한 변화의 인식이 확산되었다.

1981년 3월 최초의 여성 심판 자격증을 취득한 장정남 사범은 여성심판의 선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여성 태권도 지도자들의 심판교육 및 지도자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마침내 1987년 3월 대한태권도협회 주최 춘계 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서춘희(당시 30세), 양인옥(당시 25세), 박정옥(당시 27세) 등 3명의 최초 여성 심판이 위촉되어 활동하였다¹⁸⁷⁾.

이러한 여성의 태권도제도권의 진출은 여성 태권도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 1988년 대한태권도협회 기술 전문위원회 산하에 여성분과 위원회가 신설하여 초대 위원장으로 장정남(개명, 장정희)사범이 임명되었다. 이는 여성 태권인으로서 제도권 안에서 최초의 임원으로 기록되고 있다.

당시 장정남사범의 구술채록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1981년도 3월에 심판자격증을 여성 최초로 받았죠. 당시 국기원에서 연수를 받는데 여자는 혼자였어요. 말하자면, 남자취급을 하고, 불량스러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런 선입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인지 국기원에 가거나, 행사가 참여할 때는 항상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다녔어요. 남성들과 편견을 두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¹⁸⁸⁾.

186) 강원식, 이경명(1999). 태권도 現代史. 서울: 보경문화사.

187) 전난희(2017). 여성 태권도 심판의 삶에 대한 연구, 국기원연구, 8(4), 97-126.



그림 62. 기왓장 15장을 격파하는 장정남 심판¹⁸⁹⁾

1980년대 여성 태권도 수련인의 양적 증가로 인한 여성심판 및 임원의 참가도 점점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태권도 경기에서의 심판 및 임원은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어찌면 몇몇 소수의 여성 심판들은 태권도계의 문화적 소수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 요구되었던 시기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단체에서 일하는 여성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남성적 가치관과 경험에 기반을 둔 남성들만의 문화 속에서 고통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성(Gender) 고착화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¹⁹⁰⁾.

최연소 국가대표 여성 태권도 선수로 선발되었던 임신자 교수와 태권도장 사범을 하였던 정효심 사범의 구술채록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188)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장정희 편

189) 장정남(장정희) 개인소장자료

190) 김용욱(2013).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저는 중, 고등학교를 학교체육안에서 태권도를 배웠어요 당시 무도 태권도라는 개념보다는 스포츠종목으로 엘리트체육을 했어요. 자연스레 대학을 졸업하고 코치가 되었죠.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여자선수들을 국가대표로 선발되면, 여자 지도자가 임원으로 참가해야 되는데, 우리 태권도 종목은 방이 하나 더 열어야 돼서 이번에는 여자코치를 같이 갈 수가 없다고 하고..이런 식으로 성차별을 많이 받았죠. 좋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다른 것들도 여자이기에 받는 차별이 무수히 많았던 시기예요 여자선수는 30%가 넘는데 여자임원은 한명도 없었던 시절이었어요¹⁹¹⁾.



그림 63. 전국대학대항태권도대회 여자부 입상자(앞줄 가운데 임신자 선수)¹⁹²⁾

제가 79년부터 82년까지 태권도사범을 했어요. 체육관을 맡아서 최초로 여자 지도관장을 했어요. 입관할 때, 부모와 수련생들이 “아 여자사범이다. 관장이다” 짹 짹 훑어봐요. 여자 사범이 운동을 제대로 가르치겠어? 선입견이 많았어요 이럴수록 더 당차게 큰 목소리도 인사하고 가르쳤어요¹⁹³⁾.

191)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임신자 편.

192) 대한태권도협회(1984). 전국대학대항태권도대회 여자부 입상자. 태권도지 12월호.

193)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정효심 편

그림 64. 1987년 태권남자회 수련이후 단체사진¹⁹⁴⁾

1986년 6월호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지에서 김영인 청산여자상업고등학교 태권도부 감독은 태권도대회가 남녀 체급별로 치러지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태권도인의 선수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 태권도인에게 맞는 운동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기고하고 있다.

이제 새로이 한국여성 태권도의 확고한 위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외국선수들에 비해 불리한 신체적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알맞은 체력 훈련과 독특한 기술 동작을 개발함은 물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많은 국내경기 및 국제경기에도 참여하여야 하며, 국내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기인을 육성시켜야 한다¹⁹⁵⁾.

1980년대 태권도대회의 활성화는 여성 태권도인의 증가와 대학을 졸업한 태권도 지식인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자연스레 태권도장 경영과 태권도 심판 그리고 학교 코치로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그림 65. 제2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영신여고 10년째 우승)¹⁹⁶⁾

194) 서영애 개인소장자료. 1987년 태권남자회 수련후 단체사진.

195) 대한태권도협회(1986). 김영인 청산여상 태권도부감독, 여성특집 기고편. 태권도지 6월호.

196) 또한, 1980년대 초반 태권도학과가 개설된 후 태권도학과 입시 특례 입학으로 단순 스포츠종목이 아닌, 학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에서 교과목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는 대학에서 태권도학과를 개설하고 전국적으로 태권도학과가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많은 태권도 지식인층을 배출하였다. 이는 태권도 경기종목뿐만 아니라, 연구 및 지도자교육, 심판 교육, 행정 및 제도권에서 여성 태권도인의 수도 조금씩 증가하였다.

1980년대는 태권도가 단순히 스포츠종목에서 보다 학문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태권도산업에 영향을 주었다. 1985년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유아 및 어린이 수련생의 증가로 인해 전문화된 어린이 전문지도 사범교육을 통해 태권도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법, 인성교육, 수련활동, 기술훈련 등 체계적이고 과학화된 교육으로 인정받았다.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태권도는 성장기 어린이 및 사회화를 위한 태권도수련생이 증가하면서 여성 태권도사범의 취업도 조금씩 증가하였다.



그림 66. 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1기 졸업생 24명 배출¹⁹⁷⁾

(5) 국제 대회 참가

여성 태권도는 1980년대에 국제 무대로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1982년 7월 국기원에서 제 1회 한·중(대만) 친선 여자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었으며, 1987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성부가 신설되었다. 1985년 여성부의 신설은 본격적인 엘리트 여성 태권도 경기가

196) 대한태권도협회(1988). 제2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영신여고 10년패 우승). 태권도지 9월호.

197) 대한태권도협회(1987). 태권도학과 1회 졸업생 24명 배출. 태권도지 3월호.

활성화 되었으며, 우수 선수들의 대학 특례입학을 통해 여성 엘리트 태권도를 성장시켰다.

특히, 세계대학스포츠연맹(FISU)과 세계태권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제1회 세계 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여성부를 출전시켰다. 1987년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제1회 세계여성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어 여성 태권도가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¹⁹⁸⁾.

표 3.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대표선수¹⁹⁹⁾

핀	플라이	밴텀	페더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
도재선	오명화	임신자	이은영	김지숙	전오순	김현희	장윤정



그림 67. 1985년 제7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부신설) 임신자 밴텀급 우승²⁰⁰⁾



그림 68. 세계대학스포츠연맹에서 태권도를 유니버시아드 공식종목으로 승인한 후 첫 종합우승 사진²⁰¹⁾

198)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199)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00) 임신자 개인소장자료

201) 또한, 한국에서 사상 최초의 '88서울올림픽게임 태권도경기에 출전할 여자국가대표 선발전을 개최하여 서울올림픽게임과 곧 있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여자 대표선수들을 선발하여 출전시켰다. 구체적인 체급별 여성 태권도 선수명단은 [표 4]와 같다.

표 4. 1988년 서울 올림픽 출전한 여자 대표선수²⁰²⁾

핀	플라이	밴텀	페더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
이화진	추난률	박선영	김소영	이은영	김지숙	김현희	장윤정

당시 서울올림픽의 시범종목으로 태권도는 남자선수 32개국 120명, 여자선수 16개국 63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4일간 열전을 가졌다. 그 중 한국을 제외한 34개국의 임원과 코치 52명 중에서 한국인 사범이 21개국에서 24명의 지도자가 파견되어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태권도기술을 전파하였다²⁰³⁾. 그 당시 여성으로는 트레이너로 참여한 박필순 사범과 국제심판으로 서춘희, 외국인 Anita-Suh-Dormbaha 여자 심판이 참여하였다.



그림 69. 한국여성으로서 유일한 서춘희 심판(좌), 아니타서·도른바하 심판(우)²⁰⁴⁾

당시 태권도 경기에 참가한 국제심판은 총 28명으로 이중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서춘희 심판과 네덜란드 Anita-Suh-Dormbaha 심판만 여성 심판으로 참여했다.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으로서 Anita심판은 유일한 여성 국제심판이었으며, 38살 주부로 태권도

201) 임신자 개인소장자료

202)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03)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29-142.

204) 대한태권도협회(1988). 서울올림픽 태권도 여성심판. 태권도지 9월호

4단을 취득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인 남편인 서명수 사범(태권도 7단)과 태권도 부부로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아니타 심판은 1983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국제심판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취득하고 '84년, '86년 유럽선수권대회와 '87년도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활약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당시 여자 심판으로 참여한 아니타 심판에게 여자로서 태권도 심판의 어려움을 묻자

처음에 심판으로 경기장에 섰을 때는 선수나 코치들이 심판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몇해동안 계속 노력하다보니 지금도 남녀구별없이 심판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²⁰⁵⁾.

외국인 국제심판 홍일점 네덜란드의 아니타·서·도른바하여사

—남편은 태권도7단의 서명수사범—

태권도 경기에 참가한 국제심판은 총 28명으로 이중 한국의 서춘희씨와 네덜란드의 아니타·서·도른바하씨만이 여자심판으로 눈길을 끌었다.

서춘희씨는 국내경기 때에 여러번 심판으로 나와 심판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진데 이어 이번 올림픽에서는 국제심판으로 활약하는 영광을 안았다.

을 둔 가정주부로 국제심판경력 5년의 베테랑이다.

서명수씨가 1969년도에 네덜란드의 태권도사범으로 나가게 되어 1974년도에 네덜란드에서 결혼식을 올린 도른바하씨는 서명수씨와 함께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원래는 독일태생인데 네덜란드심판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는 수련생의 일원으로 서명수씨의 부모님을 뵈었을 뿐 완고하신 부모님께 부인될 여자라고는 감히 소개를 못했다고 하는데 이 때 얼굴만 보이고 네덜란드로 돌아가 결혼한 서명수씨는 부인과 함께 4년뒤인 78년도에 다시 부모를 찾아뵈고 인사를 드리자 며느리로 받아들여주신 부모님을 아내인 도른바하씨가 얼마나 감사해

그림 70. '88서울올림픽에 참여한 국제여성심판(서춘희, 아니타 심판)²⁰⁶⁾

205) 대한태권도협회(1988). 서울올림픽 태권도 여성심판. 태권도지 9월호

206) 대한태권도협회(1988). 서울올림픽 태권도 여성심판. 태권도지 9월호



그림 71.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장에서 어린이 시범단 시범 사진²⁰⁷⁾

그 당시 16개국에서 63명의 여성 태권도 선수가 출전하였으며, 한국은 플라이급 추난룰, 미들급 김현희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때 사마란치 IOC위원장이 태권도경기장을 방문하는 등 올림픽 정식종목을 채택하기 정치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2. 미들급 김현희 선수 시상식(좌), 사마란치 IOC위원장 플라이급 추난룰 선수 1위 시상²⁰⁸⁾

207) 대한태권도협회(1988).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장에서 어린이 시범단 시범. 태권도지 9월호

208) 대한태권도협회(1988). 미들급 김현희 선수 시상식(좌), 사마란치 IOC위원장 플라이급 추난룰 선수 1위 시상. 태권도지 9월호

금메달을 향한 집념으로 체격·체력의 열세 극복하고 승리

경희대학교에 재학중인 김현희선수는 '85년도에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7회세계선수권대회와 제1회 세계대학태권도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을 갖고 있다.

국민학교 때 그냥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수련을 하기 시작했다는 김현희선수는 현재 3단으로 이번 올림픽의 영광과 함께 선수로서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현희선수는 결승전에서 7회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이며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인 강직 네덜란드의 마가레타선수를 맞아 내려찍기 등 그녀의 주특기로 압도하며 우세승을 거두었다.

1m73cm의 키에 63kg인 김현희선수는 한국의 여자 중량급이 체격이나 체력면에서 외국의 선수들에 비해 약세에 있어 우려해 왔으나 그동안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집념으로 땀 흘린 결과 오늘의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태권도 첫메달의 영광과
사마란치 IOC위원장으로부터
메달수상한 행운의 여고생

여 자 부

미들급 김현희



플라이급 추난률

영신여고 2학년에 재학중인 추난률 선수는 지난 2월 네팔에서 거행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예선에서 탈락, 올림픽

을 앞두고 있는 코칭스텝에서는 추난률선수가 국제대회 경험이 전혀 없는 데다 처녀출전한 국제대회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급에 출전한 대만 선수가 제1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 금메달리스트일 뿐 아니라 서독선수는 제7회 세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여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리라 확신하지 못하였는데 추난률선수는 이러한 기우를 말끔히 씻고 태권도 첫메달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추난률선수는 이날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마리아 엔젤라 나란호선수를 맞아 밀어 차기와 돌려차기 등으로 점수를 올려 가볍게 승리를 거두었는데 추난률선수는 이날 시상식에서 사마란치 IOC위원장으로부터 메달을 수여받는 영광을 차지.

그림 73. '88서울올림픽 여자부 입상자 인터뷰 내용²⁰⁹⁾

또한 국민적인 관심을 도모와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 이화여대 강영화 교수가 '태권도찬가'를 직접 작곡하는 등, 올림픽을 기점으로 김운용 회장이 한국인 최초로 IOC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어 한국스포츠 외교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에 결정적 발판이 되었다.

209) 대한태권도협회(1988). '88서울올림픽 여자부 입상자 인터뷰. 9월호.



태권도 찬가

한 국 인 작사
장 영 화 작곡

태권도 찬가는 일본도장의 취한은 물론, 각종 태권도 행사 등에서 노래가 불리며 있으며, 태권도인의 단결과 화합의 조성이 이루어 질 것이며, 태권도 정신의 함양과, 몸보신 및 활력으로 태권도의 노래를 제작 발표하였으니 널리 보급되어 애창 되기를 바랍니다.

태권도 찬가 제정의 의의

태권도 찬가는 일본도장의 취한은 물론, 각종 태권도 행사 등에서 노래가 불리며 있으며, 태권도인의 단결과 화합의 조성이 이루어 질 것이며, 태권도 정신의 함양과, 몸보신 및 활력으로 태권도의 노래를 제작 발표하였으니 널리 보급되어 애창 되기를 바랍니다.

태권도 찬가 제정의 의의

태권도 찬가는 일본도장의 취한은 물론, 각종 태권도 행사 등에서 노래가 불리며 있으며, 태권도인의 단결과 화합의 조성이 이루어 질 것이며, 태권도 정신의 함양과, 몸보신 및 활력으로 태권도의 노래를 제작 발표하였으니 널리 보급되어 애창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74. 태권농자에 실린 태권도 찬가²¹⁰⁾

210) 태권농자회(1989). 태권도찬가. 태권농자 12월호.

(6) 지속적인 어려움

이렇게 양적 팽창과 국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태권도'에 대한 사회적 물이해와 배타적 사고는 여전하였으며, 여성들의 태권도 수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제도권에서 성차별은 여전하였다.

1992년 4월 15일에 제정되었던 경기용품 중 몸통보호대와 여성용 살보대를 더 안전하게 보완하고 개정하는 등, 선수의 권익과 경기력에 관한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남성 선수들에 비해 여성선수, 지도자, 심판, 임원 등 제도권에서조차 여성성을 강요당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었다.

1986년 은퇴한 임신자 선수는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여성 태권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하였다. 여성 선수들을 위한 주요 전국 규모 대회가 부족하고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여성부 경기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여성 태권도 활성화 방안 시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보다 많은 여자대학팀들이 참가하였다면, 좋았으리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성 태권도 활성화가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남자선수들에 비하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여성 태권도 선수 활성화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 등에 여자태권도선수가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²¹¹⁾.

올해 저는 졸업을 했어요. 전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였으나, 태권도학과 졸업생들을 수용할 만한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사회적 현실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의 금나무체육관에서 코치로 후배들을 지도하고 있어요²¹²⁾.

저는 졸업을 하고 나서 평소 서울과 경기도 인천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 고향인 전북에 내려가 학교에서 태권도를 지도할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직접 지방의 여성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부딪쳐 보았더니 여성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전문한 상태였습니다²¹³⁾

211) 대한태권도협회(1986). 임신자 인터뷰. 3월호

212) 대한태권도협회(1986). 임신자 인터뷰. 3월호

213) 대한태권도협회(1986). 제53회 지도자교육 중 최선자 연수생 인터뷰. 태권도지 3월호



그림 75. 제1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
(플라이급 오명화 선수)²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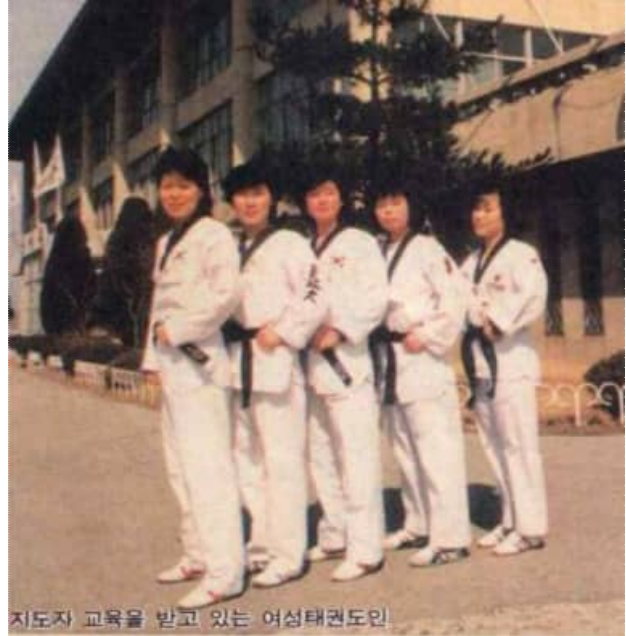


그림 76. 제53회 사범교육 연수생 149명중 여성 5명
(전오순, 최선자, 임신자, 문숙현, 전애연)²¹⁵⁾

태권도 종목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각 대학의 태권도학과 개설로 이어졌다. 최초의 태권도학과를 개설한 '1982년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100명, 1983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신설을 시작으로 태권도 학문에 대한 지식인층이 점점 늘고 있으나, 정작 여성 태권도인의 취업은 매우 제한적이였다. 국제대회는 1970년대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여성 태권도인의 운동환경과 취업환경은 문턱이 높았으며, 1980년대 여성 태권도의 발전은 '두 걸음 전진, 한 걸음 후퇴'와 같은 양상이 보였다.

국내 및 국제 태권도대회의 활성화로 인한 태권도산업현장에서 지도자들의 증가와 국제시장에 진출이라는 긍정적 효과 이면에는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미비로 인한 여성 태권도인의 지원과 배려는 여성 태권도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제도권의 지원과 노력이 요구되었던 현실이었다.

1988년 4월 서울에서 태권도국제심판 강습회를 참여한 박정옥 국제심판은 한국여성으로서 유일하게 심판위촉을 받아, 국제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그녀는 '태권도가 국기라고 하면서 외국 여성들보다 모든면에서 뒤처지는 느낌이었고, 여성 국제심판도 3명에 불과하여, 앞으로 많은 국제심판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과 각종 대회에 여성

214) 국기원(2012). 국기원 40년사

215) 국기원(2012). 국기원 40년사

심판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고 논평하였다.

인터뷰 / 국제심판 · 박정옥



세계대회 한국 통일점 코트 지휘자

국제심판 박정옥(30, 소사체육관자영)은 이번 대회에 한국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심판위촉을 받았으며 국제대회는 처음임에도 멋지게 경기를 주도하였다는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개나리빛 노오란 심판복에 남색 넥타이를 댄 긴 품이 근사하게 보이기도 했다.

- 국제심판자격은 언제 취득하였으며 국제경기는 어느정도 치루었습니까

「88년 4월 서울에서 국제심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여 자격시험에 패스하였죠. 국제대회는 이번 세계대회가 처음입니다」

- 여자의 몸으로 어려운점은 없습니까

「여자이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국내심판 경력 4년이 많은 도움을 준것 같습니다.

- 여성 국제심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한 말씀 주십시오

「태권도가 국기라고 하면서 외국여성들보다 모든면에서 좀 뒤진 느낌입니다. 국제심판도 불과 3명뿐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국제심판이 배출되어야 겠으며 각종 대회에 여성심판들도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활발하게 발전되어 질것으로 봅니다.

■ 참 가 기 ■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 것을 배웠으며 선후배 간에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

지영숙
· 본회부회장
· 방송공사지도사범

제 9회 세계대회와 제 2회 여자세계대회가 '88 올림픽이 성대하게 치루어진 잠실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여성 태권인들이 대거 자원봉사자로서 활약하여 매우 훌륭한 치루어냈다는 격찬을 받은 좋은 대회였다.

다른 부서에도 여성 태권인들이 자원봉사자로서 활약하였지만 특히 안내부에서는 16명전원의 태권인들이 열과 성의를 다하여 봉사하였다.

어려움속에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의 흐트러짐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지를 가지고 치루어냈다고 자부한다.

전원 고운 한복을 입고 안내데스크에서 자상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며, 차를 끓여 대접할 때에도 웃음과 예의를 잊지않고 봉사하던 후배 여자사범들이 대견하기까지 하였다.

대회가 끝난후 후배들은 한결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많은것을 배웠으며 선후배 간에 좋은 만남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또한 모든 태권도 행사에 언제든지 참여하여 봉사의 정신을 또다시 보여주고 싶다고들 한다.

태권도가 좋아서 운동을 하였으며, 이제 댄스야 할 수 없는 태권도 삶이 되었노라고.....

그림 77. 국제심판 박정옥 인터뷰²¹⁶⁾

‘88올림픽게임 이후인 1980년대 후반에도 여전히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은 많은 어

216) 태권낭자회(1989). 국제심판 박정옥 인터뷰. 태권낭자회 계간지(12월 30일)

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1990년 3월 30일 태권낭자회의 계간지 내용에서 발췌한 자료를 살펴보면, 1989년 한 해 동안 여성 태권도 활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그림 78].



그림 78. 태권낭자회 1990년 3월 30일 목련호, 창간 3주년 특집호 내용 발췌²¹⁷⁾

217) 태권낭자회(1990). 창간 3주년 특집호 내용 발췌. 3월 30일 목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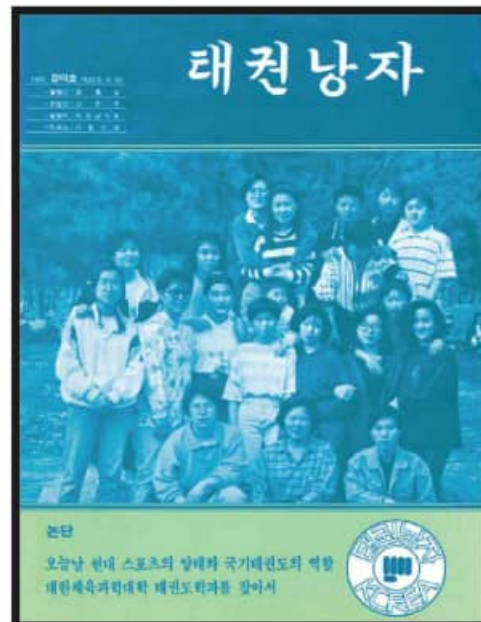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 II 장 5. 도약기

올림픽과 여성 태권도의 위상 강화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5 도약기(1990년대): 올림픽과 여성 태권도의 위상 강화

1) 사회·역사적 배경

올림픽 개최 후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스포츠 문화의 패러다임은 화합과 평화의 공존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00년 파리올림픽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테니스와 골프 두 종목에 불과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여성 스포츠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였다²¹⁸⁾.

표 5. 역대 올림픽 여성 종목의 변화(이재희, 김민정, 진지형, 2015 연구자료 재구성)²¹⁹⁾

년도	올림픽게임(여성 종목 승인)	년도	올림픽게임(여성 종목 승인)
1900	테니스, 골프	1964	배구, 루지
1904	양궁	1976	조정, 농구, 핸드볼
1908	테니스, 피겨스케이팅	1980	필드하키
1912	수영	1984	사이클링
1924	펜싱	1988	테니스, 탁구, 세일링
1928	육상, 체조	1992	베드민턴, 유도, 바이애슬린
1936	알파인스키	1996	풋볼, 소프트볼
1948	카누	1998	컬링, 아이스하키
1952	승마스포츠	2000	역도, 5종경기, 태권도, 트라이애슬론
1960	스피드스케이팅		

[표 5]는 올림픽게임에 여성이 참여한 종목의 자료이다. 기존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과 비 종목이 성(gender)의 고정된 프레임으로 사회 인식이 형성되었다면, 1990년대는 다양한 종목에서 여성 스포츠인이 참여함으로써 여성 스포츠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88서울올림픽게임 이후 1990년대에는 선진 복지국가 구현에 있어서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정책이 전개되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정책들이 함께 활발히 진행되었다.

218) 전수진(2012. 3. 9). 양성평등 완성한 런던올림픽.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total_id=757025

219) 이재희, 김민정, 진지형(2015). 변화하는 올림픽, 패러다임의 전환: 올림픽과 양성평등, 한국여성체육학회, 29(3), 207-218.

신현군²²⁰⁾은 인류 역사적으로 여성의 체육활동 및 스포츠 참여에 극히 제한적이었던 봉건적인 사고방식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는 선진국형 잣대라고 하였다. 특히 한국에서의 여성 스포츠 참여는 남존여비가 뿌리 깊은 유교문화를 근간으로 하다 보니, 스포츠 분야에서도 매우 더딘 발전을 가져왔다²²¹⁾. 정준영²²²⁾은 대부분 기존에 여성의 제한적인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남성에게 용기를 주고 승리한 남성에게 영광을 수여하는 관객의 역할로 제한적인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져 여성 스포츠인의 인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렇듯 올림픽이후에 여성 스포츠는 새로운 도약기에 나타난 두 가지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여성의 생활스포츠 참여가 확대되었으며, 보편적으로 대중화를 가져왔다. 이는 일상생활속에서 스포츠를 생활화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1991년에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되어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스포츠 문화의 창달’를 목표로 정부 주도하에 생활스포츠를 장려하였다²²³⁾.

이처럼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는 새로운 체육의 인식과 변화를 가져 왔고, 나아가 국민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복지사회 구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의 표본이 되었다. 즉,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체력 향상과 여가 선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스포츠 시대가 도래되었다²²⁴⁾. 실제 ‘2002년 한국의 체육지표’에서 여성의 체육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1994년에는 43.8%에서 1997년에는 53.3% 2000년에는 57%로 스포츠 참여활동이 꾸준히 상승하는 있음을 알 수 있다²²⁵⁾.

둘째, 프로 여성 스포츠의 대중화를 꾀하였다. '80년대에 남성의 야구, 축구, 농구, 배구가 이미 프로 종목으로 각광을 받았다면, 1990년대는 골프와 농구 종목에서 여성 프로스포츠 대중화를 꾀하였다.

여자골프는 1978년 5월 26일 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4명의 여성 프로선수로 출발하여 1988년 12월 5일 한국여성프로골프협회(KLPGA)의 창립 후 1990년대 6월 제1회 서울여

220) 신현군(2014). 쿠베르탱과 여성스포츠, 한국철학학회지, 22(4), 173-197.

221) 이재희, 김민정, 진지형(2015). 변화하는 올림픽, 패러다임의 전환: 올림픽과 양성평등, 한국여성체육학회, 29(3), 207-218.

222) 정준영(2003).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서울: 책세상.

223) 한국스포츠과학원(2025). 2002년 1990년대 국민생활체육지표 보고서, <https://mcst.go.kr/>

224) 황옥철(2009). 광복이후 한국 여성 스포츠의 변천과 코칭문화 고찰, 한국코칭능력개발원, 11(4), 25-38.

225) 한국스포츠과학원(2025). 2002년 한국의 체육지표, <https://www.sports.re.kr/index.html>

자오픈골프대회를 개최 시작으로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1997년 IMF로 경기가 침체되었던 시기에 온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맨발의 투혼’으로 알려진 박세리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하기까지는 불과 몇 년이 걸리지 않았다.

박세리 선수는 1998년 US여자오픈대회에서 최고의 여성골퍼를 물리치고 당당히 메이저리그에서 한해 4연승을 하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안겨주는 역할을 하였다²²⁶⁾. 이후 펄신, 김미현, 박지은 등의 분투로 세계적인 한국 여자골프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림 79. 1988년 US여자선수권대회 모습²²⁷⁾

골프뿐만 아니라, 여자 농구종목에서도 1997년 2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여자프로농구 연맹’의 창단과 이듬해 1998년 여자 프로농구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여성 프로농구 역시 더욱 활성화되었다²²⁸⁾.

여자 프로 스포츠의 출범과 창단은 스포츠미디어를 통한 선수의 경기력과 투명성이 확보되었고, 직업 스포츠선수로서 직업의식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나아가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 여성 스포츠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여성 스포츠인인 사회적 진출과 제도권에서 여성 스포츠 지식인의 참여를 더욱 가속화시켰다²²⁹⁾.

스포츠가 점점 대중들의 생활속에서 보고, 참여했던 스포츠의 영역에서 점차 사회 전반의 정서적 흐름과 맥락이 대중적인 스포츠 문화 활동으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이는 여성 프로스포츠의 왕성한 활동은 여성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인정받은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1990년대 여성 프로스포츠의 출범과 창단은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도 영향을

226) 송용준(2025). 여 골프사에 길이 남을 박세리 ‘만발 투혼’,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01513198>

227) 송용준(2025). 여 골프사에 길이 남을 박세리 ‘만발 투혼’,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01513198>

228)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2025). 연혁. <https://www.wkbl.or.kr/about/history.asp>

229) 황옥철(2009). 광복이후 한국 여성 스포츠의 변천과 코칭문화 고찰, 한국코칭능력개발원, 11(4), 25-38.

미쳤으며, 스포츠인으로 바라보는 첫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시대를 이끄는 스포츠 문화의 개척자로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여성 스포츠 문화를 창출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포츠 상업화의 수단으로 여성 스포츠인의 가치를 ‘섹시코드’, ‘여성미’를 강요하고 있어 제도권에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²³⁰⁾.

2) 태권도의 역사적 배경

1980년대를 통하여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태권도의 보급과 활성화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향한 대내·외적으로 본격화되었다. '88서울올림픽 게임에 이어 '92바르셀로나올림픽게임에서 시범종목 채택되었고, '93 뉴욕 매디슨 스퀘어가든에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야심찬 태권도의 국제화 전략의 행보를 보였다.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국내 또한 올림픽종목 채택추진위원회를 1994년에 구성하여, 당해년도 1994년 9월 4일 제103차 IOC 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 승인종목으로 태권도가 채택되는데 다각적인 협력을 도모하였다²³¹⁾. 이는 글로벌 태권도로서 성장하기까지 20여년의 짧은 기간내에 국제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마침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놀라운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올림픽종목 채택의 여파는 국내 태권도에 있어서도 커다란 성장을 가져왔다. 다수의 태권도 실업팀의 창단과 함께 자연스럽게 초·중·고등학생 태권도 선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태권도학과 입학 특전을 적용되는 1991년 용인대학교총장기전국남녀고교태권도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학팀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대는 학교팀의 성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권도장의 붐도 함께 일어나 태권도 전반에서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 심지어 1996년 태권도를 한국문화의 10대 문화상징 중의 하나로 지정될 만큼 그 우수성을 세계에 인정받게 된 한국의 무예스포츠로 글로벌 태권도의 새로운 도약기에 접어들었다²³²⁾.

230) 김형준(2015. 4. 23.). 여성 유니폼 ‘섹시코드와 성 상품화’ 사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4231541087557>

231)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32) 이재희, 김민정, 진지형(2015). 변화하는 올림픽, 패러다임의 전환: 올림픽과 양성평등, 한국여성체육학회, 29(3), 207-218.



그림 80. 1995년 9월4일, 2000년 시드니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기념비 제막식²³³⁾



그림 81. 정식종목 채택 자료²³⁴⁾

1997년 4월호 태권도지의 내용에 의하면,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고등부 출전한 선수가 1,333명으로 1988년부터 거의 2배 이상 선수가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종별 선수권 고등부의 참가인원이 1,000명을 돌파한 것은 90년도는 1,027명이고, 91년에는 1,054명이 출전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으로 해석된다.²³⁵⁾

고등부 1,333명 -사상최다

올해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올해 전국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고등부에 출전한 선수는 1,333명으로 대회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다.

종별선수권 고등부의 참가인원이 1,000명을 돌파한 것은 90년의 1,027명이 처음이고, 다음이 지난해의 1,054명이었다. 올해의 고등부 참가 인원이 1,300명을 넘어선 것은 유년 시절 태권도를 익힌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고도 운동을 계속하는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태권도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이 자극이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88년보다
거의
두배

종별선수권 고등부 참가인원

연 도	인 원
87년	865명
88년	767명
89년	864명
90년	1,027명
91년	977명
92년	945명
93년	888명
94년	958명
95년	963명
96년	1,054명
97년	1,333명

그림 82. 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 고등부 출전기록²³⁵⁾

233) 국기원(2022). 국기원 50년사

234) 대한태권도협회(1994).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9월호

235) 대한태권도협회(1997). 고등부 1,333명-사상최다. 4월호

이처럼 태권도 겨루기 경기화가 단기간에 올림픽 무대에 오르면서 세계인의 스포츠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전국적으로 태권도 지도자 진출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겨루기종목의 활성화는 무예로서 태권도와 스포츠로서 태권도가 분리되는 괴리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경기인 출신과 비 경기인 출신으로 양분화가 되었고, 겨루기의 비약적 발전은 상대적으로 품새, 격파, 호신술 등의 기술체계가 겨루기 경기에 밀려 심사 및 시범 형태로 발전하는 무예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나치게 겨루기 경기 중심으로 치우쳐 태권도의 불균형을 우려한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은 1992년 겨루기 종목을 제외한 태권도를 즐기는 동호인이라면 다양한 연령층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태권도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김기동(2020)²³⁶⁾은 태권도의 지나친 스포츠화가 무도로서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아가 무도의 본질과 생활 태권도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태권도한마당은 ‘태권도로 하나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현재까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활성화를 도모하며, 세계인의 축제로 매년 개최되어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²³⁷⁾.

당시 신문언론의 내용에서 태권도한마당대회의 취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올림픽 종목채택을 최종목표로 스포츠화의 길을 숨 가쁘게 달려온 태권도가 무도로서의 본모습을 되찾는 한편 새로운 생활스포츠로서의 또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힘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각종 국내대회의 운영과 국가대표 선수관리 등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경기행정에만 매달려 왔던 태권도협회는 이 같은 움직임에 착안, 격파, 호신술, 품새 등 무도태권도는 물론 태권체조, 태권 에어로빅 등 생활태권도의 일대 경연무대를 올 12월에 마련키로 하고 그 준비에 부산하다. ‘제1회 태권도한마당’이라 이름 붙여질 이 대회에는 1,000명 이상의 유단자들이 출전, “태권도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원식 협회 전무이사는 장담하고 있다²³⁸⁾.

236) 김기동(2020). 제1회 태권도한마당의 개최 배경과 역사적 의의,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821-833.

237) 국기원(2025). 세계태권도한마당.

<https://kukkiwon.or.kr/base/contents/view?contentsNo=69&menuLevel=3&menuNo=60>

238) 강기석(1992. 9. 28.). 경향신문, 태권도 武道의 제모습 되찾는다

태권도한마당대회 참가자격으로는 태권도 활성화를 도모와 생활 태권도 동호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년부(초, 중), 청년부(고, 대, 35세 미만 일반), 장년부(35세 이상), 여성부(고교 이상) 등 4개부로 구분하여 품새와 격파 중심으로 1992년 12월 9일 올림픽 공원에서 제1회 태권도한마당대회(총292팀 1,346명의 선수)가 개최되었다.



그림 83. 제1회 태권도한마당대회(1991), 어린이부터 실버층까지²³⁹⁾

제1회 태권도한마당대회 세부 종목을 살펴보면, 품새경연은 일반, 창작품새 부문으로 구분하고 격파종목은 위력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품새(기존품새로 불리움)부문은 기존의 유급(단)자 품새를 경연하는 종목이었으며, 창작품새와 건강품새는 참가자가 직접 품새를 창작, 발표함으로써 태권도기술 개발에 일반인의 참여를 시도하였다²⁴⁰⁾.

이처럼 오늘날 태권도한마당대회는 명실공히 태권도의 本脈을 되찾고 세계 태권도인들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대회로 평가되고 있다²⁴¹⁾.

3) 여성 태권도의 도약기

(1) 조직적 연속성과 발전

1980년대 여성 태권도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태권낭자회’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태권낭자회의 슬로건처럼 [나는 작고 약하나 우리

239) 대한태권도협회(2014). 제1회 태권도한마당대회(1991), 어린이부터 실버층까지.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40)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41) 이숙경(2020). 세계태권도한마당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자산과 브랜드태도 및 대회충성도에 관한 연구, 11(3), 131-146.

는 크고 강하다]의 의미는 혼자보다는 함께, 여자는 약하나 우리는 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 태권도인의 발전을 위한 공동 목표를 갖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함께 집단적 행동과 사고를 기반으로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단체의 모체인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은 1979년에 창립되었지만, 심각한 경영난으로 활동과 중단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해체되었으나 1986년 한국여성태권도회로 이듬해 1987년 ‘태권낭자회’로 재창립되어 전국 여성 태권도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 나갔다. 급기야 1990년에는 제1회 태권낭자 회장배 여자 선수권대회를 꾸준히 개최하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여성 지도자와 수련층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태권낭자회는 전국 여성 태권도인의 소식을 전하고자 ‘태권낭자회 계간지’를 제25호(1993년 3월)호까지 [태권낭자회]로 발행하여 전국 여성 태권도인의 제도권 진출과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이렇게 한국 여성 태권도는 다양한 이름으로 끊임없이 탄생하고 중단하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쳤으나, 2002년 대한태권도협회 산하기관으로 한국여성태권도연맹이 재창단되어 현재까지 꾸준히 여성 태권도인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표 6]은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의 경기단체 변천 과정으로 제도권에서부터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여성 태권도 단체로 기반을 다지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6.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경기단체 변천과정(연구자 재구성)

년도	1979~1984	1986	1987~1993	1994	2002
명칭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한국여성 태권도회	태권낭자회	한국여성 태권도회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이처럼 1990년대 한국 여성 태권도 역시 많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엘리트 스포츠로서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특히, 1993년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신설 및 올림픽게임 정식종목 채택 확정은 초·중·고·대학교 및 실업팀에서 여자부팀을 창단으로 이어졌고, 스포츠로서 여성 태권도 종목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당시 태권도 실업팀은 1991년 2월에 대구, 전북, 대전에 남녀 각각 한 개팀이 창단되었으며, 실업팀만 해도 9개 팀으로 증가하였다²⁴²⁾. 그 이후에도 대구은행, 대전시 동구

청, 중앙투자신탁, 크라운맥주, 현대정공, 현대자동차, 보령군청 등의 여자 태권도 실업팀의 창단으로 본격적인 여성 태권도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실업팀 창단은 태권도계의 위상변화와 기존 실업팀과 신생 실업팀의 기술변화와 선수선발에 경쟁이 치열해졌고 기술적 상향 평준화 현상이 일어나 태권도 선수로서 새로운 직업군이 창출되었다.



그림 84. 태권남자 1990년 3월 30일 목련호 계간지 표지²⁴³⁾



그림 85. 19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태권도종목 금메달리스트²⁴⁴⁾

이렇듯 1990년대는 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세계대학선

242)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29-142.

243) 태권남자회(1990). 목련호 표지. 3월 30일.

244) 대한태권도협회(1997). 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태권도종목 금메달리스트. 태권도지 7월호

수권대회 등에서 여자부 정식종목 채택 등은 제도권에서 여성 태권도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 여성 태권도 선수들은 물론 대학을 졸업한 태권도 선수들과 지도자, 국내심판, 국제심판 및 태권도장의 증가로 태권도산업 전반에서 다양하게 여성 태권도인이 배출되었다.

이와 같이 엘리트 스포츠가 학교 안에서 성장했다면, 생활 스포츠로 태권도는 학교 밖 태권도장을 기반으로 활성화되었다. 엘리트 태권도 만큼이나 태권도장에서 여성 태권도인의 활약은 여성 태권도인의 제도권 활동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졌다²⁴⁵⁾.

1990년대는 엘리트 겨루기종목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1992년 태권도한마당을 기점으로 품새, 태권체조, 호신술 등의 생활체육으로서 많은 태권도경연대회가 탄생하였다. 경기 스포츠로 겨루기의 성장은 수직적으로 상승한 반면, 상대적으로 겨루기외에는 품새와 격파종목은 상대적으로 외면되었다.

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은 생활태권도를 육성하기 위해 태권도종합경연을 개최하여 생활 태권도 수련을 기반으로 한 여성태권도인의 대회 참여와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²⁴⁶⁾.

또한 제8회 용인대학교총장기 전국남녀고등학교 태권도대회에서 겨루기 외 품새종목도 신설하여 태권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인대회로 승인하여 42개교에서 110명이 출전하였다. 겨루기종목의 활성화에 이어 품새종목의 경기화를 통해 태권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²⁴⁷⁾.

이처럼 엘리트 종목으로 겨루기와 경연 종목의 품새, 격파 및 태권체조 등의 경기화는 곧 여성태권도인의 참여와 활동범위가 더욱 왕성해졌다. 태권낭자회는 태권도 전반에서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계간지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제1회 태권도 한마당에서 기존품새분야에서 1위를 한 서영애 사범의 회고에 의하면²⁴⁸⁾,

245)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29-142.

246) 국기원(2014). 국기원 40년사

247)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248) 태권도 지식자원 3차 아카이빙 구술채록 최종보고서 서영애 편

제가 1992년 국기원에서 태권도 한마당을 제1회 한마당이 열렸잖아요. 그때 제가 품새 분야에 출전을 했었거든요. 품새 분야에 출전을 하면서 최고점을 받아서 그때 든 생각이 나 내가 정말 품새를 잘하는구나! 우리 동네에서 뿐만이 아니라 동네에서 항상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도 잘하네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한마당 같아요.

그때부터 품새에 더 애착이 생기고 그러다가 제가 2003년부터 품새 심판을 보기 시작했어요. 품새 심판을 보다가 2005년도에 2006년도에 세계 대회가 생긴다라는 정보를 얻고 제가 이제 2006년도에는 심판 등록을 안 하고 선수 등록을 했어요.

그냥 특별히 지도받고 출전하지 않았고 그냥 제 평소대로 태권남자회에서 연습한 실력대로 그 대로 나갔어요. 그 대로 나갔는데 1등을 그때는 1등 2등 안 했거든요. 등수를 먹이지 않고 그냥 점수로만 해서 우승자 이렇게 해서 코끼리 도자기를 받았는데... 그냥 즐기지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나는 정말 품새를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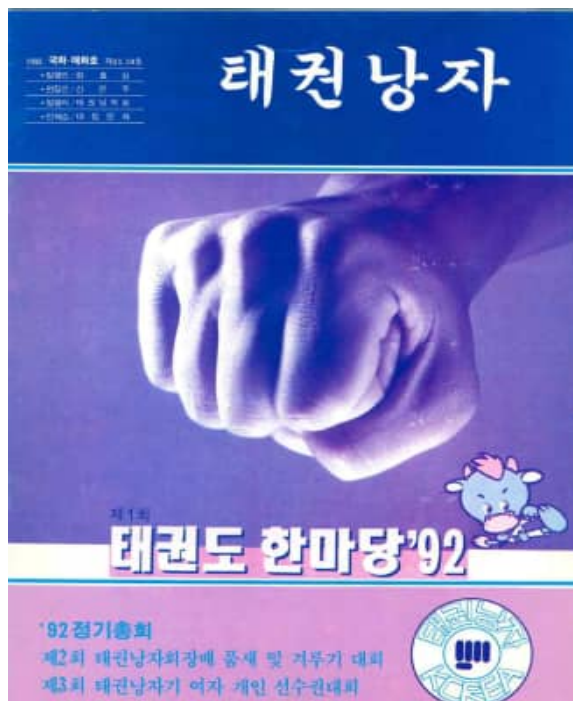


그림 86. 태권남자회 1992년 제23, 24호²⁴⁹⁾



그림 87. 제1회 태권도한마당 기존품새 공동1위자 서영애, 김혜연 사범²⁵⁰⁾

249) 태권남자회(1992). 태권남자 제23, 24호

제1회 태권도 한마당대회 기존품새 1위

수상의 기쁨

서 영 애
(청북선 체육관)

92년 초 국민일보에 나온 태권한마당에
도 시합은 겨루기만으로 굳혀지다 시퍼란 현
시점에서 뿌리를 찾는 듯한 새로운 의미의 태권
도 대회가 정말 대회가 열리는구나 격과, 품
새, 창작품새, 태권무, 태권 에어로빅 등등...
특히 내 눈에 뜨인 날말은 품새였다. 평소 품
새에 자신이 있던 나였기에 기사를 보는 순간
꼭 참가하리라 결심을 했고 청북선 체육관에서
품새를 제일 잘하는 꼬마 (변일구 국4)와 함
께 준비를 했다.

그러던 중 11월 중순쯤 정효심 회장님의 특별
지시를 받았다. 태권도를 사랑하는 우리 모임
에서 당연히 참가하여야 하는게 도리일 것이라
구. 그래서 모임을 가진 결과하기로 하였고 마
감을 며칠 앞두고 머리를 싸매어 품새를 만들
었다.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었고 그나마 지방
회원과의 합류까지 해 연습을 하는 등 많은 우
여 곡절 끝에 참가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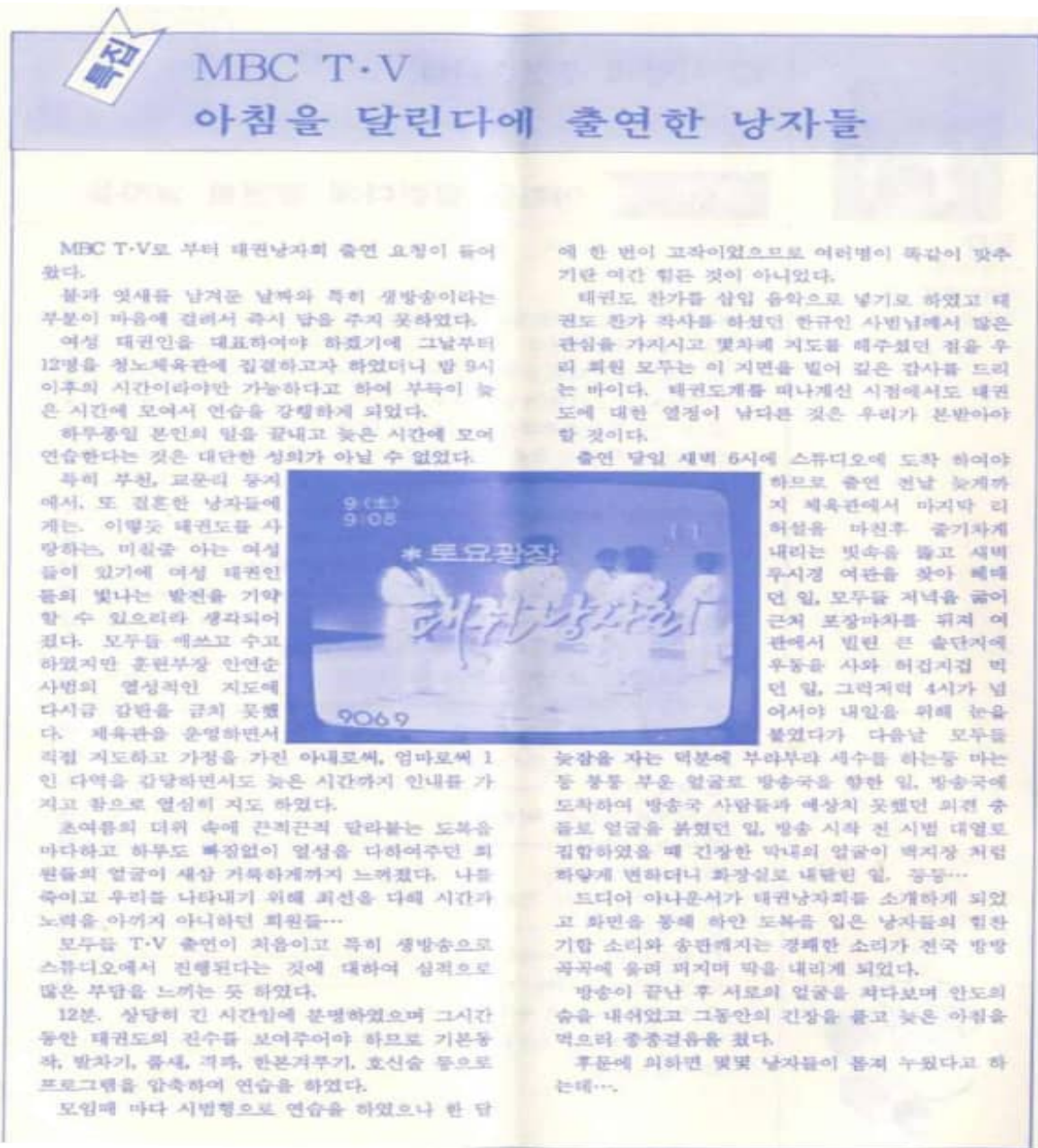
첫 대회이지만 운영위원들의 천재적인 두뇌
(?) 덕분에 제법 부드럽게 진행되었고 격과 대
회가 열릴 때는 태권도의 맥을 찾는 듯한 묘한
감회가 느껴졌다.

창작품새 부분에서는 눈이 휘둥구레질 정도
로 멋진 작품들이 많이 나왔고 태권회 팀은 참

가하는데 큰의의를 두기로 하고 덩달한 마음으
로 출전하였지만 막상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해
서운 하였고 그나마 여성팀이 2팀 이었는데
다 떨어져 더 안타까웠기도... 기존품새 부문에
서 우리 꼬마는 예선 탈락해 마음이 아팠다.
아마 긴장을 너무 한 탓으로 재물이 안 나왔으리
라. 기존품새에 참가한 나는 무사히 결승전
에 올랐다. 상대는 우리 회원인 김혜연 사범과
그 제자들이다. 결과는 동점! 이번 대회는 특
이하게 메달이나 상장이 없고 도자기로 된 코끼
리 상이다. 멋있었다. 특히 제1회 수상자로 자
랑스러움을 느꼈다. 지면을 통해 "태권 한마당"
대회를 열기 위해 애쓰신 태권도인 모두에게 감
사를 느끼며 나 또한 최선을 다하여 후배양성
과 태권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리라 다짐해본
다.

그림 88. 수상의 기쁨 서영애 사범²⁵⁰⁾

250) 태권낭자회(1993). 태권낭자 3. 25호

그림 89. 태권남자회 태권도시범 MBC방송출연²⁵¹⁾

이렇듯 태권남자회는 대회유치와 수련생 지도뿐만 아니라, 여성 태권도시범 및 대회 출전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며, 명실공히 여성 태권도 발전사에 있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도모하였다. 특히, 태권체조 및 음악을 가미한 여성 지도자의 장점을 적용한 생활 태권도를 중심으로 세미나 및 시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여성태권도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꾀하였다.

251) 태권남자회(1993). 수상기 기쁨 서영애 사범. 태권남자 3월 제25호

252) 태권남자회(1990). 태권남자회 태권도시범 MBC방송출연. 태권남자 6. 30. 14호

이와 같이 1990년대 올림픽 정식종목 선정은 생활태권도에서도 엘리트 태권도만큼이나 태권도 교육분야에서도 성장기를 맞이한다. 태권도장이 수직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 태권도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한태권도협회는 1998년 4월 일선 태권도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태권도의 사회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전문교육을 받은 여성 태권도인이 일선 지도자로서 사범교육 및 심판활동을 왕성하게 참여하였다.

(2)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과 여성 태권도 발전

1990년대 여성 태권도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는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이었다. 태권도는 '88서울올림픽게임과 '92바르셀로나올림픽게임에서 시범종목과 함께 마침내 1994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올림픽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림 90.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국가대표 코치진 단체사진²⁵²⁾

이는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격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은 여성 태권도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스포츠 무대에 여성 경기가 포함됨으로써 여성 태권도 선수들에게 더 많은 국제 교류 기회가 주어지고, 훈련 수준 향상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253) 임신자 개인소장자료

특히, 올림픽게임 정식종목에 태권도종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적·제도적인 정부의 뒷받침속에서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신설과 더불어 여자부 실업팀 창단은 여성 태권도 발전에 커다란 동력이 되었다. 1994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노력은 비단 여성 태권도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스포츠분야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역할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여성 태권도를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로 작용하였다.

이미정²⁵⁴⁾의 연구에 의하면, 1985년 여성의 스포츠 참여인구가 18.6%에서 1998년 33.1%, 1991년 42.9%로 증가하는 등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 이후 여성의 생활체육참여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태권도 역시 여성 태권도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와 일맥상통한 것이다. 1993년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신설 1994년 올림픽게임 정식종목 채택이라는 큰 사건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여성 태권도수련생이 증가하는 물론 선수층도 대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남성중심의 수련방식과 임원 등용은 여성 태권도인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최초의 실업팀 감독을 역임한 인천시청 임신자감독은 중학교때 여자 태권도국가대표를 지닌 최연소 국가대표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 또한, 경희대학교 특기생으로 1기 입학 1기 졸업생으로 졸업하고 여자 태권도 실업팀 감독을 역임하였다.

1997년 4월호 태권도지의 임신자 감독의 인터뷰내용이다[그림 91]. 당시 임신자감독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 태권도인의 제도권 입지와 환경은 여전히 문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여자감독의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 대회에서 체급은 남녀 각각 8체급씩 동일한데 지도하는 감독의 성비가 차이가 난다고 하여 날이 갈수록 여성 태권도 선수 활성화 및 여성 실업팀 선수가 증가는 했지만, 감독, 코치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임원구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태권도 종목의 양적 성장만큼 여성태권도인의 인권과 활동은 제도권부터 높은 벽을 암시하고 있었다.

254) 이미정(2008). 한국여성 태권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인천시청 6명팀에서 국가대표 4명

이번 대회에서는 여자부 4체급에서 국가대표를 배출한 인천시청이 큰 관심을 모았다.

95년 5월에 창단된 인천시청은 임신자 감독의 지휘 아래 6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팀인데, 이번 대회에서 플라이급의 서미라, 밴텀급의 황은숙, 라이트급의 신동선, 웰터급의 조항미가 각 체급에서 우승함으로써 실업팀 사상 최초로 한 팀에서 4체급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기록을 수립했다.

인천시청의 임신자 감독에게 팀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정순영 기자>

뛰어난 여성지도자 임신자 감독

정 : 축하드립니다. 6명으로 구성된 실업팀에서 국가대표가 4명이나 배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임 :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선수들의 기량과 능력을 믿었지만 기대보다 더 선전해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여자부 플라이급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서미라를 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인천시청팀의 임신자감독

팀은 평균연령이 24세입니다. 어떻게보면 선수로서는 노령화되었다고 할 수도 있죠.

정 : 국내 유일의 실업팀 여자감독이신걸로 알고 있는데요, 훈련방법에 있어 남다른 점이 있으시다면?

임 : 섬세한 면이 있다고나 할까요? 대화를 아주 많이 합니다. 선수들의 개인고민도 듣고 서로 많이 많은 부분을 공유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믿게되고 이런 신뢰감이 엄격한 훈련도 무난히 이겨낼 수 있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정 : 선수 개개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훈련을 시키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을텐데요.

임 : 그렇죠, 아무래도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거니까 지치기도 합니다. 그럴때는 극약처방도 쓰죠, '너 계속 그럴거면 그거 써' 뭐 이런겁니다. 그게 뭔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만두겠다는 사표 말입니다.

정 : 경기때 보니까 선수들과 껍속말을 많이 하시던데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혹시 '지면 밥도 안줘' 뭐 그런 자극적인 얘기라도?

임 : 그런 무서운 얘기는 안하고요(웃음), 자세한 내용은 기밀인데요(웃음).

정 : 이번의 쾌거를 계기로 임감독님의 지도방법이라든가 크게는 여자감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요?

임 : 제가 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대회에서의 체급은 남녀 각 8체급씩 동일한데 지도하는 감독의 성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림 91. 최초 여성실업팀 인천시청 임신자 감독의 인터뷰²⁵⁴⁾

255) 대한태권도협회(1997). 최초 여성실업팀 인천시청 임신자 감독의 인터뷰. 태권도지 4월호

[표 7]은 대한태권도협회에서 공식적으로 1996년부터 여성 지도자의 현황을 집계한 현황이다. 보시다시피 겨루기종목의 경우 남녀 체급별로 선수를 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지도자에 비해 여성 지도자는 불과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의 내용으로 살펴보면, 태권도 엘리트 선수생활을 했던 여자선수들은 은퇴 후 취업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제도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7.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된 겨루기 감독 및 코치현황(1996년~1999년) (대한태권도협회, 2025)²⁵⁵⁾

년도	직위	감독		코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96		161	4	273	8
1997		329	7	159	5
1998		260	6	317	9
1999		231	5	375	11
계		981	22	1,124	33

실제 태권남자회도 제도권에서 활동하기 위해 1994년 ‘한국여성태권도회’로 명칭이 변경하여 계간지를 발행하였다. 이는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적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명칭 변경으로 해석된다. 한국여성태권도회의 26호 계간지를 살펴보면, 1994년 전국여자선수권태권도대회에서 전 코트를 여성 태권도심판으로 구성하여 여성 태권도 지도자들의 활발한 제도권에서 활약과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계간지 기록에 의하면, 25명의 여성심판이 참여하였으며, 전원이 여성 심판원으로 대회를 치르다 보니 토, 일요일 주말에 심판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여성태권도회는 태권도의 전문성을 높여 여성임원의 권위를 높이고자 정책적으로 여성 태권도 심판들이 매 대회에 기용되어 투철한 사명감과 지도진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역량과 제도적으로 정착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²⁵⁷⁾.

그러나, '94년 올림픽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당해연도 '94세계태권도월드컵 대회에서 한국 여자팀은 종합 9위를 하면서 여자팀의 저변 확대를 위한 변화를 요구하였으나, 경기력 향상 및 환경개선과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했다. 최광

256) 대한태권도협회(2025).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된 겨루기 감독 및 코치현황(1996년~1999년)

257) 한국여성태권도회(1994). 한국여성태권도 26호.

근²⁵⁸⁾은 여성대표팀 실적 추락의 원인을 기본기가 매우 부족하고, 단조로운 훈련방식과 국제경험의 부족으로 이에 따른 관중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였고 결국은 여성 태권도를 외면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93년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신설과 '94년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은 여성 태권도인의 경기력과 처우가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태권도계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고착화되었고, 경기종목의 균형을 맞추는 도구일 뿐 여성 태권도인의 인권은 배제되었다.



그림 92. 한국여성태권도회(구 태권남자회) 1994년 26호 표지²⁵⁹⁾

258)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29-142.

259) 한국여성태권도회(1994). 한국여성 태권도 26호 계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93년 제11회(여자 제4회) 세계태권도선수권에서 패더급 여자부에서 우승한 이승민 선수도 당시 스포츠 선수로서 남성 중심의 태권도 문화에 불편함을 호소하였다²⁶⁰⁾.



그림 93.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대표선수들²⁶⁰⁾

태권도는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무술 스포츠로 인식되어 왔어요. 여성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늦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어요. 여성심판도 많이 없고, 그리고 격투종목이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종목이다 보니, 사회적인 인식과 성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운동하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양성평등을 입장에서 여성은 남성이 차지한 직위에 남은 부분을 배분하는 형태로 형식적인 9 : 1 정도로 형식만 갖추고 있어 실제 여성 태권도인의 사회진출은 많이 어려웠어요.

제가 선수생활 하다보면 여자선수는 상대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훈련, 참여기회, 지원, 미디어 노출 등에서 남성보다 불리한 조건의 경우가 많았어요. 아마도, 여성 태권도는 2000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다른 국제적인 무대에서 정당한 평가와 기회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봐요. 올림픽 채택 전에는 충분한 지원 예산, 인프라, 대외 인지도 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 선수들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260) 이승민(2025). 8. 12. 전화면담

261) 대한태권도협회(2014).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파견 대표선수들.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그리고 더 심각한 건 1993년 뉴욕세계선수권대회 까지만 해도 태능 시설내 여성 태권도 선수가 사용할 수 있는 숙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훈련장 주차 지원이 어려워 외부 시설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국가대표팀 코치는 남성 태권도인 위주로 선발되었으며, 심지어 여성의 훈련을 지도한 경험이 없는 코치진들을 선발하여 남성의 전관예우를 해주었어요.”

국제대회에 많은 경험이 있었던 이승민 선수는 당시 여성 태권도인으로서 느끼는 역차별이 있었고 은퇴하기까지 변화는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 태권도 종목은 단지 구색 맞추기 형태로 주먹구구로 이어졌으며, 여성으로 기본적인 수련복, 훈련 방식, 탈의실 등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회고하였다. 이렇듯,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한 태권도 종목에 여성 태권도인의 인권은 여전히 제자리를 걷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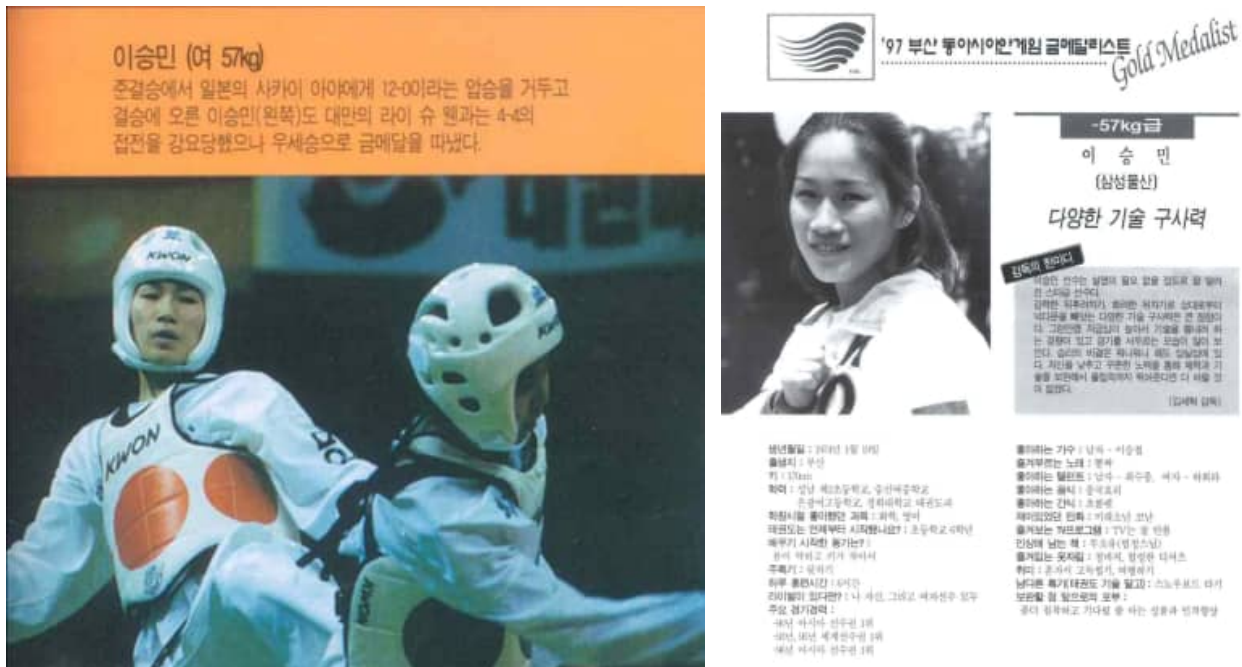


그림 94. 19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승민²⁶²⁾

(3) 국제적 활동 지속 및 리더십

'88서울올림픽게임과 연이어 '92바르셀로나올림픽게임에서 시범종목 및 1994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 종목은 급속하게 글로벌 스포츠로 확산되었다. 태권도의 세계화는 곧 지도자뿐만 아니라 태권도산업분야 전반적인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각 나라의 태권도 지도진으로 진출하였고 태권도장으로 진

262) 대한태권도협회(1997). 19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승민. 태권도지 7월호

출이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1994년부터 태권낭자회 계간지를 ‘한국여성태권도회’로 명칭을 변경한 한국여성태권도회 계간지 1994년 제26호 자료를 살펴보면, 이란에서 열린 제1회 국기원 태권도 해외지도자 이란 연수에 참가하는 등 해외활동 지도자를 위한 연수 활동과 국제심판 활동으로 교육분야에서도 본격적인 활동들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²⁶³⁾

제 1 회 국기원 태권도 해외지도자 연수 세미나를 다녀와서

(1994. 4. 30~5. 11. 이란 테헤란)

박 영 숙 (본회 회원)



그림 95. 제1회 국기원 태권도 해외지도자연수세미나를 다녀와서. 한국여성 태권도회 계간지 1994년 26호²⁶²⁾

특히, 김영숙 사범 및 남궁명숙 사범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 태권도 선구자들은 1990 년대에 해외에 진출하여 태권도 전파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김영숙 사범의 경우 1999년 1월 미국 LA에서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 태권도로서 세계에 전파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63) 태권낭자회(1994). 제1회 국기원 태권도 해외지도자연수세미나를 다녀와서. 한국여성 태권도회지 26호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의 개최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여성만을 위한 특화된 대회가 없었으며, 둘째, 여성 태권도인들이 주관하는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세계 여성 태권도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회를 추진하였고, 셋째, 이에 전 세계 여성 태권도인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의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김영숙 사범은 세계 여성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해외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는 추후 2002년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의 재설립의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96.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팸플렛²⁶³⁾

264)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2000).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팸플렛. 태권도박물관 소장자료

◆ 1998년 기술심의회

의장	황춘성		
부의장	노상석, 양영모, 이택명		
경기위원장	김갑식	연구개발위원장	조근종
심판위원장	박현섭	상벌위원장	유상철
심사위원장	심명구	국제위원장	김화룡
기획조사위원장	김진수	홍보위원장	윤종완
경연위원장	이백운	도장위원장	이종찬
교육위원장	김강인	사업위원장	강세형
경기력향상위원장	김세혁	기록위원장	서경무
여성위원장	장용갑	의무위원장	황영갑

그림 98. 1998년 기술심의회 명단²⁶⁵⁾

(4) 학문적 관심 증대

1980년대 초반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와 경희대학교에서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었다. 이는 대학에서 태권도 전문지식을 갖춘 ‘태권도전문가’가 본격적으로 배출되었으며, 교과커리큘럼, 전공영역, 전임교원, 학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태권도 전문인이 배출되었다.

경희대학교와 용인대학교를 기반으로 태권도대학에서 인재를 배출하였다면, 1990년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4년제 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에서도 태권도학과가 개설되었다. 대표적으로 1996년 계명대학교, 1997년 한국체육대학교, 경원대학교(현, 가천대학교)에서 학과가 설립되었고, 이는 태권도의 질적 발전과 학문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다수의 태권도학과의 신설은 태권도학과 교육커리큘럼, 전임교원, 경기력 향상뿐만 아니라 심리학, 역학, 영양학, 교육학, 경영학, 철학 등 전공 연구가 자리잡기 시작했고, 학술, 출판 분야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배출되었다.

태권낭자회 계간지 역시 초창기에는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과 교육일정을 중심으로 출간되다가 1990년대 이후 점차 교육커리큘럼 및 논단 코너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출간한 태권도지 역시 1990년대 이후부터 체육학의 세부전공 및 학술논단을 지정코너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66) 대한태권도협회(1998). 1998년 기술심의회 명단

이처럼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 태권도인이 대거 등장함으로써 일선 지도자와 심판으로 활동이 적극적으로 활동한 시기와 유사하다. 국기원의 사범지도자 1972년부터 1999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표 8],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게임을 기점으로 여성 태권도 지도자가 대거 등장하였고, 1986년대 이후부터는 국기원 지도자 교육을 받는 여성 태권도인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8. 1972년부터 1999년 국기원 태권도사범지도자 연수 이수자²⁶⁹⁾

년도	급	3급 지도자		2급 지도자		1급 지도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72		504					
:		:	:	:	:	:	:
1983		573	2				
1984		297	0				
1985		440	8				
1986		448	7				
1987		515	21				
1988		361	10				
1989		668	5				
1990		406	1				
1991		780	8				
1992		799	27				
1993		676	23				
1994		869	39				
1995		1168	75				
1996		1048	51	70	0		
1997		1136	43	100	2		
1998		1194	58	65	0		
1999		931	27	132	1		
여성지도자 수			405		3		

또한 전국 4년제 2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학과의 개설은 전공영역의 교원을 등용하기 위한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이 본격적으로 출간되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학술사이트²⁷⁰⁾에서 ‘여성 태권도’, ‘여자태권도’를 키워드로 학술 및 학위 논문을 검색해 보면, 여성 태권도 관련 학위 논문은 1983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269) 국기원 통계자료(2025). 홈페이지. www.kukkiwon.or.ke

270) 학술연구정보서비스(2025). 홈페이지. www.riss.kr

1980년대 학위 및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학위논문 5편, 학술논문 1편이 인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83년 1편, 1985년 1편, 1986년 1편, 1988년 1편, 1989년 1편으로 석사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대학원의 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학위 및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학위논문 7편, 학술지 10편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선수 경기력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표 9. 2000년 이전까지 '여자태권도' 키워드의 학위 및 학술 논문 동향 (연구자 재구성)

		석사	박사	학회지	
1980년대	1983	1			
	1985	1			
	1986	1			
	1988	1			
	1989	1		1	
1990년대	1991	1		1	
	1992	1		1	
	1994	1			
	1995			1	
	1996	1			
	1997	1		2	
	1998	2		2	
	1999			3	

이와 같이 1990년대는 1980년대 수도권에 4년제, 2년제 대학에 태권도학과가 개설되면서 학술적 영역에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태권도 학문으로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발전해왔다. 특히, 1993년 전국체육대회 여자부 신설과 1994년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은 여성 태권도선수의 본격적인 육성과 여성 지도자, 여성 심판 등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며, 1990년대는 세계 스포츠로 성장한 태권도가 학문으로 기틀을 마련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 III 장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의 특성과 의의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III장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의 특성과 의의

1 선구자들의 불굴의 정신

1960~1970년대는 한국 사회가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며 국가 재건과 산업화를 추진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활동은 여전히 가정과 일부 제한된 영역에 머물렀고, 특히 무예와 같은 격렬한 신체 활동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회적 통념 속에서 여성의 태권도 수련은 곧 금기를 깨뜨리는 행위였으며, 그 자체가 시대를 앞선 도전이었다.

당시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 위주의 도장에서 유일한 수련생으로 참여했다. 때로는 수련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보호자 동반, 복장 규제, 수련 시간 제한 등 다양한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성들은 도장을 찾아 꾸준히 수련을 이어갔고, 시범단 활동, 경기 출전, 지도자 양성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여성도 무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사회에 심어주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영숙, 남궁명석, 장정희, 정효심, 서영애, 임신자 등이 있다. 이들은 단순히 수련에 머물지 않고 태권도의 여러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숙 사범은 어린 시절 상복의 천으로 도복을 지어 입고 새벽 수련에 참여한 일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71년 국내 최초 여성 전용 도장인 ‘선미도장’을 개관해 여성들의 수련 공간을 마련했다. 남궁명석 사범은 1970년 제1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A조 우승을 차지하며 여성 경기 태권도의 개척자로 기록되었다. 장정희는 최초의 여성심판으로 활동하였고, 정효심은 여성 최초의 도장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서영애는 1980년대 주부 겨루기 선수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품새선수로도 활동하였다. 임신자는 선수로서뿐 아니라 경기 지도자,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활약하며 후속 세대 여성 태권도인의 진입 통로를 열어주었다.

또한 여성 유단자의 등장은 1960년대 중반부터 언론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1966년 9월 18일 조선일보는 ‘세 여장부’의 초단 합격을 보도했고, 1968년에는 전북 완주의 김홍이 여성 최초의 3단 고단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여성의 태권도 수련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정식 무도 활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처럼 초기 여성 태권도 선구자들의 실천은 단순히 개인의 도전을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자원과 제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신체적·정서적·문화적 장벽을 정면으로 돌파해 “여성도 수련·경기·지도·운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했다. 상복으로 도복을 만들어 입은 사례, 여성 전용 도장의 개관, 여성 최초의 지도자·코치·경기 우승자 등은 오늘날 “여성도 태권도를 한다”는 당연한 인식을 가능케 한 문화적 토대였다. 이들의 불굴의 정신은 이후 세대가 경쟁·지도·행정 영역으로 진출하는 길을 열었으며, 여성 태권도사의 정당한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2 만연한 차별과 사회적 장벽 극복

1960~70년대는 가부장적 사회구조가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시기였다. 여성은 체육과 무예 활동에서 철저히 주변화되어 있었으며, 여성이 태권도를 수련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낯설고 어색한 일이었다. 도장에서 여성 수련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흔히 “여자가 왜 태권도를 하느냐”는 의문과 편견으로 요약되었다. 이는 단순한 인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물리적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졌다. 도복 착용에 대한 규범적 압박, 대련 파트너의 부재, 화장실과 탈의 공간의 부족은 일상적인 제약이었다. 나아가 여성 수련자들은 도장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 압박과 소외감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수련자들은 이러한 장벽을 단순히 불편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권리를 정립하는 기회로 전환했다. 여성들은 도장에서 자신만의 공간과 의미를 만들어 나갔고, 수련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며 자신의 몸과 삶을 주체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배양했다. 이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여성 인권의 확장과 맞닿는 지점이었다. 무예를 통한 자기 훈련은 여성들이 사회적 억압 구조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구체적 사례는 이를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 국기원 개원 초기에는 여성 수련자를 거의 예상하지 못해 여성 화장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당시 지도자 교육생 100

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이었던 김영숙은 며칠간 큰 불편을 겪은 뒤 관계자들에게 개선을 요구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제도와 공간 속에서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사례였다.

경기 현장에서도 차별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남성 선수와의 대련에서 여성이 우위를 보이자, “여자를 시합에 보내 망신을 준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경기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는 구술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여성들을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여성부 경기 창설 요구로 이어졌고, 이후 제도권 대회가 열리는 직접적인 촉발점이 되었다. 즉, 억압의 경험이 제도 변화를 불러온 것이다.

이와 함께 여성 유단자의 등장은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으로 가시화되었다. 1966년 ‘세 여장부’의 초단 합격 보도, 1968년 여성 3단 고단자의 탄생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이어 1970년 제1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1971년 제2회 대회 등 성취가 축적되면서, 여성의 존재는 점차 개별적 사례를 넘어 구조적 현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정란여상, 은광여고, 인천체고, 청산여상 등 학교와 지역 기반의 여성팀 창설은 여성 태권도가 제도권 속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는 여성들이 ‘수련의 대상’에서 ‘경쟁과 조직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 시기의 여성 태권도 발전은 곧 ‘차별의 시대’를 ‘권리의 언어’로 번역한 과정이었다. 배제와 편견, 시설 미비는 여성에게 수련·경쟁·성장의 기회 상실을 강요했으나, 여성들은 이를 침묵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며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여성 화장실의 설치, 여성부 경기의 신설, 학교팀 창설은 모두 차별의 경험을 구조개선으로 전환한 결과였다.

따라서 당시의 장벽은 단순히 억압으로만 기능한 것이 아니라, 변화의 동력이자 레버(lever)로 작용했다. 여성들은 제약을 발판 삼아 자신들의 권리와 공간을 확보했고, 이는 한국 태권도의 민주화와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초기 여성 태권도 수련자들의 극복은 단순히 무예 영역에서의 성취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성평등 의식을 확장시키는 역사적 성취였다. 그들의 투쟁과 실천은 오늘날 여성 태권도인의 활동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만든 뿌리이자, 한국 태권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한 초석이었다.

3 여성 수련방식의 변화와 적응

1960~70년대는 태권도가 국가 주도의 체육 정책과 맞물려 제도화·대중화의 길을 걷던 시기였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남성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초기 여성 수련자들은 남성 표준에 맞추어진 훈련 방식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도복 착용 규범이나 체력 단련, 대련 방식까지 모두 남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성 수련자들은 체력적·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으며, 때로는 훈련 참여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의 신체적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수련 방식이 점차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단순히 여성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태권도 훈련 자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부 도장에서는 체급·숙련도에 맞춘 겨루기 훈련의 미세 조정이 이루어졌다. 남성과 동일한 방식의 훈련에서 발생하는 부상의 위험이나 체력 소모 문제를 줄이고, 여성 수련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체계가 보완된 것이다. 또 유연성과 코어 안정성을 강조한 스트레칭 및 발차기 중심 훈련은 여성의 신체적 장점을 살리면서도 부상 예방에 효과적이었다. 나아가 수련 과정에 심리 상담이나 동료 멘토링을 접목해 수련생들의 자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수련의 교육적·정신적 효과를 강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여성 전용 도장이나 여성 지도자 중심의 수련 공간이 등장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예컨대 1971년 김영숙 사범이 개관한 ‘선미도장’은 국내 최초의 여성 전용 태권도장으로, 여성들이 불필요한 시선이나 차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이와 같은 공간은 여성 참여율 확대를 촉진했고, 이후 여러 지역에서 여성 지도자 주도의 도장이 늘어나면서 여성 수련 환경의 질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학교 및 대학의 교육과정에 태권도가 도입되면서 여성들의 수련 접근성은 한층 확대되었다. 정란여상, 은광여고, 인천체고 등에서 여성 태권도부가 조직되었고, 대학 동아리나 교양 과목, 전공 과정으로 이어지면서 여학생들이 보다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수련 경험을 넘어, ‘입문-초·중급-경쟁-지도’로 이어지는 여성 수련 경로를 표준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대학리그나 생활체육 대회에 여성부가 신설되며 경기 참여의 기회도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제도 환경도 점차 여성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국기원 및 대한태권도협회 주관의 연수와 승단 심사에서 여성 참여가 늘어나면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강의 구성이나 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1971년 제42회 승단심사에서는 응심자 316명 중 여성 17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최고득점자가 여성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여성들이 실력과 성취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나아가 국제무대 진출을 앞두고는 경기 규정·체급 체계가 정비되고, 안전장비와 계시 시스템이 고도화되었다. 1978년 프레월드 여자부 선발전 등을 계기로 여성 국제무대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선수의 경기력을 높이는 훈련법과 주기화(periodization)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이는 여성 선수들의 경쟁력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전체 태권도의 훈련 과학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성 수련방식의 변화는 곧 ‘동일성의 강요’에서 ‘차이의 인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초기 여성들은 남성과 똑같은 훈련 방식을 감내해야 했지만, 점차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사회적 요구가 고려되면서 훈련 체계 전반이 개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여성에게 맞춘 보조적 조치에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태권도 수련 전반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훈련의 다양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체급·숙련도별 맞춤 훈련, 부상 예방과 회복 관리, 심리기술 훈련은 현재 모든 수련생에게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즉, 여성 친화적 적응 과정은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경로가 아니라, 태권도 수련 자체를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고도화시킨 변곡점이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단순히 수련을 제공받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훈련 설계와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동 설계자로 자리매김했다.

결과적으로 여성 수련방식의 변화와 적응은 여성 태권도의 성장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한국 태권도 전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이는 여성 참여 확대가 단순한 성평등의 차원을 넘어, 태권도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4 현대 여성 태권도에 미친 영향

초기 여성 태권도 선구자들의 활동은 오늘날 여성 태권도 문화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1960~70년대 여성들이 사회적 통념과 차별을 무릅쓰고 도장에서 수련을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결과, 현재 여성은 태권도 사범, 국가대표 선수, 국제 심판, 협회 임원 등 다양한 위치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제도적·문화적 벽을 하나씩 뚫어내며 확보한 성과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태권도인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 국제무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선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태권도는 단순한 신체 수련을 넘어 여성의 정체성과 자기표현의 도구가 되었고, 이는 무예의 문화적 의미를 한층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변화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1985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여자부가 신설되었고, 임신자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여성 태권도의 위상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 이어 1987년에는 제1회 세계여성태권도선수권대회가 개최되면서 여성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이 본격적으로 공고화되었다. 이는 여성 태권도가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국제 스포츠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심판·행정·지도 영역에서도 여성의 진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1981년 장정남(장정희)이 여성 최초로 심판 자격을 취득했고, 1987년 춘계 종별선수권대회에서는 서춘희·양인옥·박정옥이 최초의 여성 심판으로 위촉되어 활동했다. 1988년에는 대한태권도협회 기술전문위원회 산하에 여성분과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 태권도인의 역할이 단순히 선수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정책 결정 과정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종합대회 편입과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은 여성 태권도 발전의 결정적 이정표였다. 1990년 아시안게임에서 여자부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태권도가 시범종목으로 선보였으며, 1994년 IOC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태권도를 정식 종목(남녀 동반)으로 확정했다. 이어 1995년 전국체전에서도 여자부가 정식 채택되면서, 여성 태권도의 제도권 위상이 굳건히 확립되었다.

국내적으로도 1979년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창립(이학선 초대 회장)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여성 전용 대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이 정례화되었으며, 여성 선수층의 저변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 과정에서 김영숙을 비롯한 선구자들은 단순한 선수의 역할을 넘어 조직위원, 코치, 행정가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들의 활동은 후속 세대 여성 태권도인의 진입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여성 태권도의 자립적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현대 여성 태권도의 성취는 올림픽 무대 진출, 국제 심판·코치·행정가로의 도약, 학교·지역·생활체육 차원의 저변 확대 모두 초기 세대가 구축한 “가능성의 인프라” 위에서 가능했다. 즉, 개인의 개척 → 제도 개선 → 구조화 → 국제화라는 연쇄적 과정이 작동한 결과, 여성은 더 이상 수련생의 통계적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로 자리 잡았다.

물론 여전히 임원·심판 등에서 성비 불균형은 존재하고 있다. 여성의 지도력과 행정적 영향력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초기 세대의 유산은 이미 “여성 없는 태권도”를 상상하기 어렵게 만들 만큼 깊이 체계 속에 스며들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비율 맞추기’ 수준의 성평등을 넘어서야 한다. 여성 관점을 반영한 정책 설계, 리더십 확장,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통해 태권도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대 여성 태권도의 발전은 과거의 성취 위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태권도의 미래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 IV 장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의 도전과제와 미래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제IV장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의 도전과제와 미래

1 여성 태권도 발전의 도전과제

1) 의사결정 구조와 리더십 문제

여성 태권도의 참여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협회 임원, 심판단, 각종 위원회 등 권한이 집중된 영역은 여전히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규정·제도·관행이 남성 시각에서 재생산되며, 여성 선수와 지도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이는 구조적 병목 현상으로 작동하며, 여성 태권도의 발전 속도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협회와 국기원, 국제연맹 등 주요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여성 대표성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주요 위원회 내 여성 참여 비율을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 지도자와 심판이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실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마련될 때, 태권도는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종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 여성 지도자·심판의 경력 단절 문제

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은 여성 지도자와 심판의 경력 지속에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백이 개인적 사유로 치부되어 복귀 통로가 차단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문성을 축적하던 여성 인력이 현장에서 이탈하며, 결과적으로 여성 리더십 풀(pool)이 축소된다. 이에 따른 미래 전략으로는 출산·양육기 여성 지도자와 심판을 위한 유연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복귀를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과 재임용 트랙을 마련하고, 멘토링 제도를 활성화하여 경력 초·중반 여성들이 선배 지도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여성의 지속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태권도 현장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강화될 것이다.

3) 여성 조직의 불안정성과 자율성 부족

1979년 한국여성 태권도연맹의 창립은 여성 태권도사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1984년 협회의 의결로 해체되었다. 이는 여성 조직이 제도권 내에서 충분한 자율성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안정적 여성 조직의 부재는 여성 태권도인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취약하게 만들었고, 여성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지켜내는 기능 또한 약화시켰다. 이에 미래 전략은 여성 조직이 독립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협회 및 국기원과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동 의사결정 모델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여성 태권도 조직은 정책 제안과 권익 대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훈련 및 경기 환경의 성인지적 배려의 미비

여성 수련자와 선수들은 초기부터 시설과 장비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다. 여성 탈의실·샤워실의 부족, 남성 기준의 훈련 방식과 장비 적용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했으며, 이는 경기력 발휘에도 제약을 주었다. 최근에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환경은 성인지적 배려가 미흡하다. 앞으로 훈련 및 경기 환경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성 전용 시설을 확충하고, 여성 코치와 지도자의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경기 운영 규정에서 여성 선수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를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여성 선수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태권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5) 자료 및 연구 인프라의 부족

여성 태권도의 발전사를 기록하는 문헌과 자료는 아직도 산발적이며,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부족하다. 특히 1960~80년대 여성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기록은 구술이나 신문 기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학술 연구와 정책 수립의 객관성을 저해한다. 이에 따른 미래 전략은 자료 인프라 구축이다. 구술사, 사진, 대회 기록, 신문 기사 등 단편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다. 장기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여성 선수·지도자·심판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여성 태권도의 과학적 정책 설계에 핵심적 근거가 될 것이다.

6) 국제적 교류와 사회적 가치 확장

여성 태권도의 발전은 국내 성취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위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 지도자와 심판의 국제적 네트워크는 제한적이다. 또한 여성 태권도가 가진 사회적 가치—여성 청소년 리더십, 인권·평화 교육, 사회적 롤모델—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전략은 국제 심판·코치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세계여성 태권도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여성 태권도를 청소년 교육, 인권·평화 프로젝트와 연계해 사회적 가치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여성 지도자와 선수들이 단순한 체육인을 넘어 사회적 롤모델로 자리매김할 때, 태권도의 문화적 의미는 한층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과 시사점

본 연구는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의 정리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사료의 부족과 단편성이다. 여성 태권도의 초기 역사를 다루는 자료는 신문 기사, 개인 인터뷰, 구술사, 사진과 같은 단편적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960~80년대 여성 선수 및 지도자의 활동 기록은 협회 차원의 체계적 보존이 미흡하여, 정확한 연대기적 분석과 통계적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여성 태권도사의 서술을 풍부하게 하는 데 제약이 된다.

둘째, 구술 자료의 한계다. 여성 태권도 선구자들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사료이지만, 개인의 기억은 시간 경과에 따라 왜곡되거나 일부 누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구술은 반드시 다른 신문, 잡지, 공식 기록 등과 교차 검증해야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

구에서는 이러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셋째, 연구 범위의 제한성이다. 본 연구는 주로 한국의 여성 태권도사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국제적 맥락 속에서 여성 무예의 발전을 비교하거나, 같은 시기 다른 여성 스포츠 종목과 교차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 태권도의 발전이 지닌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파악하는 데는 아직 미흡하다.

넷째, 데이터의 불완전성이다. 여성 승단자 수, 여성 심판·임원 비율, 여성부 경기 참가자 통계 등은 산발적으로 존재하나, 장기적인 패널 데이터나 누적 통계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성 태권도의 발전 양상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며, 향후 정책적·학술적 논거를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역사적 공백 채우기(여성 무예사의 미기록 영역 복원)

여성 태권도의 역사는 오랫동안 주요 사료에서 누락되거나 주변부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은 시도는 그동안 공백으로 남아 있던 여성 무예사의 흔적을 복원하고, 여성 주체의 활동을 역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는 단순한 “보조적 기록”이 아니라, 한국 무예사의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특히 구술사, 신문 기사, 대회 기록 등 다양한 1차 자료를 종합함으로써 여성 무예사가 지닌 미기록 영역을 밝혀내고, 이를 성평등 스포츠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이 연구는 과거를 보완하는 동시에, 미래의 연구와 정책이 의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젠더 관점의 무예사 제시

기존 무예사는 주로 남성 지도자와 선수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왔다. 이는 무예의 발전사를 ‘남성적 서사’로 한정시켜, 여성의 경험과 기여를 가시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본 연구는 여성 태권도의 발전사를 조명함으로써, 무예사를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젠더적 시각으로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여성의 참여를 덧붙이는 차원이 아니라, 무예가 사회적·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성별에 의해 재

편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학문적 전환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예사를 새로운 분석 틀에서 재구성하고, 젠더 연구와 스포츠사 연구 간의 학제적 대화를 촉진하는 기초 역할을 한다.

셋째, 정책적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

여성 태권도의 발전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도전과제들은 곧 정책적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여성 심판과 지도자의 경력 단절 문제, 여성 조직의 불안정성, 시설과 제도의 성인지적 미비 등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과제이다. 이 연구는 단순히 과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성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설계에 실질적 배경 정보와 방향성을 제공한다. 향후 정책 입안자는 이 연구를 토대로 여성 참여 확대, 성평등한 훈련·경기 환경 조성, 국제적 교류 확대 등의 구체적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술적 성과를 넘어 정책적·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의 여성사적 의미

국립여성사전시관 관장 정희정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 주축으로 300여 명의 여성이 모여 여성의 교육권, 참정권, 직업권을 요구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인권선언인 여권통문(女權通文)을 발표합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의 기원인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의 시위보다 10년이나 앞서 이루어진 여성사적 의미가 있는 일로 그동안 국립여성사전시관에서 종종 특별기획전시로 선보여왔습니다. 120여 년 전에 이미 남녀동등권 관점에서 여성 권리를 요구했고 최초 민간인이 세운 여학교인 순성 여학교를 설립(1899년)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권통문만큼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여성이 근대적 체육을 처음으로 접한 사건입니다. 1886년 선교사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에서 처음으로 여학생들에게 체조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였는데, 강강술래나 공기놀이와 같이 전통 민속놀이만을 즐겼던 19세기 말 여성들에게 다리를 번쩍 들고 손과 몸을 강렬하게 움직여야 했던 체조는 센세이션 그 자체였습니다(국립여성사전시관, 2017). 물론 장래 어머니가 될 여성의 몸을 강인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으나, 전통과 구습에서 벗어난 시도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1908년 관립 여학교에도 체조 교육이 도입되고 1920년대 일부 여학생들이 학교 밖 각종 운동경기에 뛰어들고, 1930년대 조선여성체육장려회가 결성되는 등, 사회체육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유일한 여자 선수, 육상 투원반 종목의 박봉식 선수가 출전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끊임없이 구습을 벗어내기 위해 도전했고 성취하는 여성들도 극소수였지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체육활동을 지켜보는 시선은 오랫동안 곱지 않았습니다. 여성 태권도 경기를 지켜본 관람객의 반응이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듯했다는 1960년대 신문 기사만 봐도 여성 체육활동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업화를 거쳐 여성의 사회참여나 교육 수준이 높아졌던 1980년대를 지나면서도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내려앉은 성역할 고정관념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967년 체코슬로바키아 세계 여자농구선수권대회 준우승, 1973년 탁구 이예리사, 정현숙 선수의 구기종목 사상 첫 세계대회 우승,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배구 동메달, 1984년 LA 올림픽 여자 농구 은메달, 양궁 서향순 선수의 올림픽 최초 여성 금메달 획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여성 체육인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선구자들의 빛나는 노력을 기반해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이후 비로소 남녀 구분 없이 엘리트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이현정, 2010). 아울러 1990년대 이후 여성가족부 설립 등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마련되고 노동자, 학생, 여성 단체 등 여성연대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여성 체육활동 역시 시대, 사회적 변화와 함께 광범위하게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고정관념을 깨고자 도전했던 초기 여성 체육 선구자 덕분이었고 우리가 초기 여성 체육사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만끽하고 성취하는 것에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966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마라토너 로베르타 선수는 ‘나는 여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1974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1984년 LA 올림픽에서 여자마라톤이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고(이현정, 2010), 강인한 체력과 정신을 요구하는 다른 고난도 체육 영역에서도 선구자들의 노력으로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깨지곤 했습니다. 다양한 체육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과 업적을 조망하는 것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강인한 정신력을 기반으로 자신의 한계와 사회적 편견을 깨는 근원적 도전이라는 점에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 태권도 史, 우리 민족과 역사 발전의 발자취】

대한민국 전통 무예인 태권도는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며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했던 국민적 열망과 함께 급격히 발전합니다. 국립태권도진흥재단에서 전주대학교 이숙경 교수팀과 함께 한 이번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 역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여성 태권도의 발전이 갖는 남다른 의미에 집중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으로 광복 이후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를 정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매

우 적절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광복 이후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에 이바지했던 수많은 여성 태권도인을 조망하는 것은 대한민국 한류 문화의 견인차였던 태권도를 조망하는 것이기도 하며 나아가 여성 태권도인의 삶을 통해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1957년 열 살에 태권도를 처음 시작한 여성 태권도인의 선구자 김영숙 사범, 1966년 태권도 승단대회에 참가한 이영옥, 홍순자 선수 등, 초기 여성 태권도인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피어난 숭고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영숙 사범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의 상복을 직접 개조해 도복을 만들어 입으면서 끝까지 태권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고단자 임 홍, 해외 첫 파견 여성 사범 권 옥희, 공식 경기 최초 1위 남궁 명석 선수 등, 수많은 초기 여성 태권도인들은 여자가 무슨 태권도냐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며 오로지 태권도만을 생각하며 여성도 뛰어난 태권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 준 선구자였습니다.

아울러 본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가 갖는 사회적 의미 또한 남다릅니다. 본 연구는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토대로 여성 태권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일목요연하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여성 태권도사를 조망하는 건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태권도사와 체육사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진정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지점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가 갖는 의미가 매우 많지만, 핵심적으로 몇 가지만 요약한다면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태권도진흥재단 최초로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여성 태권도인의 활약상과 여성사적 의미를 분석해 미래 여성 태권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권도와 함께 발전해 온 우리 민족과 역사 발전의 발자취를 통해 미래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3년 기준 성평등지수 측정 146개국 중 우리나라는 105위로 OECD 국가 최하위권이고 성별 임금 격차 역시 3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두루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연구는

여성 태권도사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 비단 태권도계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남성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균형감 있는 시각으로 태권도의 양적, 질적 성장을 목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태권도는 남녀노소 누구나 수련할 수 있는 무술로 손과 발을 사용해 기술을 연마하고 마음을 단련하면서 인간다운 길을 걷도록 하는 무도이자 스포츠라고 태권도협회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여성 수련 인구의 급증에 비해 저조한 여성 태권도 관련 단체의 여성 임원 비율 등을 태권도계가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하며, 금녀의 공간을 없애야 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하고 있고 이로써 남녀가 동반 성장하는 균형감 있는 변화를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태권도인은 물론 수많은 영역에서 도전하고 있는 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꿈과 자긍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태권도는 예의, 인내, 봉사, 정의, 용기의 5대 덕목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한 무술이 아닌 인격 수양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체육활동입니다. 자기를 조절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며 평화와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태권도의 본질입니다. 태권도 수련생의 50% 가까이가 여성이고 초등학교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으로 태권도가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본 연구에 시종일관 흐르고 있는 자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극기와 홍익의 태권도 정신은 한계에 도전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지 개인의 체육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한국 사회 내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려 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대목입니다. 태권도인 개인의 희생과 헌신, 열정과 도전정신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젠더 사회사, 몸의 역사, 스포츠 문화사로서까지 향후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다른 스포츠 종목단체나 대한 여자체육회 등 체육 관련 단체는 물론 체육학계, 여성사 학계 등 다양한 연구자들과 협업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거라는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여성 태권도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태권도를 한류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했던 정부 정책의 하나로 2014년 12월 국립태권도

박물관이 개관했고 그 전후로 사범, 시범단, 평화봉사단 등의 이름으로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글로벌 사회로 태권도는 확대를 거듭해 왔습니다. 태권도 관련 공연콘텐츠와 캐릭터 상품 개발 등 오늘날까지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세계태권도연맹 213개국 회원국을 자랑하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로 거듭난 태권도의 발전에는 초기 여성 태권도인의 숨겨진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족의 발자취와 역사 발전과 함께 해온 여성 태권도인의 선구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립태권도박물관과 지속적 교류 협력으로 여성사 가치 확산】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의 확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국립여성사전시관은 모범적인 박물관 건립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지난해 무주에 있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10배, 서울 여의도 면적의 반, 뉴욕 센트럴 파크의 70%인 70만 평에 달하는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위치한 태권도원의 어마어마한 규모도 경이로웠지만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건 전북 무주군 설천면(雪天面)이라는 지리적 환경이었습니다. 조선 임훈이 1552년 쓴 덕유산향적봉기(德裕山香積峰記)에 따르면 9천 명의 호국 무사가 수련하며 살았던 곳이 무주였고, 조석으로 씻은 쌀뜨물이 개울을 눈같이 하얗게 만들었다고 해서 설천(雪天)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호국 무사의 정신을 이어 태권도가 발전했고 2000년 올림픽 최초로 단일 종목으로 채택된 태권도를 기리기 위해 2005년 태권도진흥재단이 설립되고 전 세계 태권도인의 관심 속에 2014년 국립태권도원이 개원했습니다. 국립태권도진흥재단과 국립태권도원, 국립태권도박물관이 한곳에 모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반으로 태권도 정신을 전 세계로 널리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를 통해 단순한 태권도에 대한 이해를 넘어 여성의 지위와 주체적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사적 남다른 의미를 발굴할 수 있었고 남성 중심의 스포츠로 인식되었던 태권도에 진입했던 여성들의 삶을 비롯해 오늘날 태권도 수련생의 40%가 여성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이해할 수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과 역사 발전의 발자취에 여성 태권도사를 중

요하게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유일 여성사를 다루는 국립 박물관입니다. 2002년 설립되어 20여 년 동안 여성의 일상, 삶과 역사 속에서 여성의 역할을 조명하고, 숨겨진 여성 인물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양성평등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전 분야에 걸쳐 두루 연구 실적을 쌓고 전시를 풍성하게 기획해 여성사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데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해서 지난 2013년부터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2028년 개관을 목표로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계기로 국립태권도박물관과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지속해서 교류하며 협력해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 개관한 후에도 여성사 가치 확산을 위해 함께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특히 앞으로 여성 태권도인의 선구적 삶을 전시로 널리 전파하고,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간직된 소중한 여성 태권도인의 소장품을 국민과 함께 접할 기회를 만들며, 나아가 젠더와 체육, 여성 몸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구 성과를 함께 축적해 나가길 바랍니다.

문화를 통한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해 국립여성사전시관과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컬래버를 이루길 바라며, 뜻깊은 학술대회에 공동 개최의 기회를 주신 국립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님, 국립태권도박물관 정상기 관장님과 국립태권도박물관 관계자 여러분, 이번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라는 중대한 과제의 연구 책임을 맡아주신 이숙경 전주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공동학술대회 토론자와 참여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강기석(1992. 9. 28.). 경향신문, 태권도 武道의 제모습 되찾는다

강기석(2001). 우리 태권도의 역사 : 인물과 역사. 서울: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신철(2002). 사진으로 보는 태권도. 사람과 사람.

강원식, 이경명(1999). 태권도 現代史. 서울: 보경문화사.

강인순(2009).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 재평가와 의미. 인문논총, 24, 5-50.

경향신문(1968). 여자태권도 3단 완주 김홍양 획득. 4월 22일자.

경향신문(1970). 새 챔피언 15명 국민학교 태권도. 10월 26일자.

경향신문(1978). 미여자대표단 감독은 4단의 한국여성. 7월 1일자.

경향신문(1996). 대표적인 해외 여성 태권도지도자 김태연. 1월 25일자.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http://sports.khu.ac.kr>

곽정현, 이선희(2025). 미디어 리프레임을 통한 여성 스포츠의 진화.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9(2), 43-57.

곽정현, 이선희, 송선영(2020).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자기방어수련에 따른 성인여성들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심리적 행복감의 변화.” 국기원태권도연구, 11(1), 41-64.

국기원(2012). 국기원 40년사.

국기원(2019). 태권도 9개관 역사자료집.

국기원(2022). 국기원 50년사.

국기원(2023). 2023 태권도 교육백서.

국기원(2025). 1972년부터 1999년 국기원 태권도사범지도자 연수 이수자.

국기원(2025). 국기원홈페이지, <https://www.kukkiwon.or.kr>

국기원(2025). 세계태권도한마당.

<https://kukkiwon.or.kr/base/contents/view?contentsNo=69&menuLevel=3&menuNo=60>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자료 -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창립총회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자료 - 제1회 전국여성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대회자료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자료 - 제1회 전국여성 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대회책자 속지

국사편찬위원회(2006). 사료로 본 한국사, 제1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https://www.fisu.net/sports/taekwondo/>

국제스포츠정보센터(2025). 국제종합경기대회 로고,

<https://gsic.sports.or.kr/EgovPageLink.do?subMenuNo=10090000>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2000). 제1회 국제여자오픈태권도대회 팸플렛. 태권도박물관 소장자료

권상화(2007). 광복 후 페미니즘이 여성체육에 미친 영향(1945~1960).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권옥동(2002). 한양순과 생애: 여성스포츠, 올림픽운동 및 사회체육운동, 한국체육철학회지, 10(2), 1-20.

권일권, 조광민(2012). 여성의 아웃도어 스포츠의류 구매결정요인이 브랜드이미지와 동일시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8, 233-243.

김기동(2020). 제1회 태권도한마당의 개최 배경과 역사적 의의,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821-833.

김달우(1992). 해방 이후 학교체육의 재편 및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1945년~1955년을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김명종(1972). 여성과 태권도. 태권도지 9월호

김성민(2006). 노동운동가 세대 간 변화에서 나타나는 지식인의 역할-1970년대 청계피복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김숙자, 허현미, 김양래(1995). 한국 여성의 스포츠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체육학회지, 9, 51-58.

김영인(2002). 한국 여성 태권도 발전과정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학술자료집.

김용옥(2013).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서울: 통나무.

김인아(1993). 한국 여성사회교육의 사적 고찰.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김종희(2000). 박정희 정권의 정치이념과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지혁(2022). 태권도학과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학문적 정체성 찾기, 한국체육철학학회, 30(3), 59-74.

김형준(2015. 4. 23.). 여성 유니폼 ‘섹시코드와 성 상품화’ 사이,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504231541087557>

김효진(2010).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 본 1970년대 여성노동자 생활사 학습.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노현화(2019). 한국 근대시기 여성미술가들의 여성운동의 전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대한체육회(2025). 창립취지 및 연혁. <https://www.sports.or.kr/sports/main/contents.do?menuNo=200056>

대한태권도협회(1971).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기태권도 휘호. 태권도지 4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1). 연혁 소개. 태권도지 4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1). 제2회 전국여자부 태권도대회 이모저모. 태권도지 7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1). 제6회 대통령기 단체대항전 소개. 태권도지 7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1). 태권도교본-품세편.

대한태권도협회(1972). 1971년 여자부 우수 선수. 태권도지 2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2). 1971년도 전국여자 태권도 우수선수 선발대회 모습. 태권도지 2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2). 위대한 태권도 발전의 제1보. 태권도지 5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2). 제3회 여자부 및 소년부 우승자 기념 사진.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3). 교사들의 태권도수련장면. 태권도지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3). 숙원! 태권도중앙도장 개관. 태권도지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3). 태권도로 뭉친 새마을 학교-태권정신 구현의 기수들. 태권도지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4). 미국에 『태권도한국(태권도한국)』의 이미지 심고 온 꼬마 태권도
시범단-코리아 리틀 트레저스. 태권도지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4). 제5회 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우승자 명단 및 입상자 사진.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5). 여성의 해에 태권도 여걸들. 11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7). 은광여자고등학교 태권도부 창설. 태권도지 6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8). 은광여고 및 이화여대 태권도부의 활동. 태권도지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79). 태순양. 태권도지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0). 1980년 국기원기술기구임원명단. 태권도지 4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0). 1980년 기술전문위원회 임원. 태권도지 4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0). 주한외국인 및 여자부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태권도지 7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0). 태권도지 10주년 기념특집호. 7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0.) 전자 디지털 자동계시기의 개발 및 장비 제정 자료. 7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4). 전국대학대항태권도대회 여자부 입상자. 태권도지 12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6). 1986년 아시안게임 개폐회식 프로그램.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6). 김영인 청산여상 태권도부감독, 여성특집 기고편. 태권도지 6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6). 임신자 인터뷰.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6). 제53회 지도자교육 중 최선자 연수생 인터뷰. 태권도지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7). 태권도학과 1회 졸업생 24명 배출. 태권도지 3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8). 1988년 올림픽게임 행사.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8). '88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장에서 어린이 시범단 시범.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8). '88서울올림픽에 태권도종목에 참가한 나라 중 설문지를 작성한 나라.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8). 미들급 김현희 선수 시상식(좌), 사마란치 IOC위원장 플라이급 추난롤 선수 1위 시상.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8). 서울올림픽 태권도 여성심판.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8). 제24회 대한태권도협회장기대회(영신여고 10년패 우승). 태권도지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89). 태권낭자회 수련모습. 태권도지 7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94). 태권도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 9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97). 19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승민. 태권도지 7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97). 1997년 부산 동아시아게임 태권도종목 금메달리스트. 태권도지 7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97). 고등부 1,333명-사상최다. 4월호.

대한태권도협회(1997). 최초 여성실업팀 인천시청 임신자 감독의 인터뷰. 태권도지 4월호.

대한태권도협회(2014). 대한태권도협회 50년사. 서울: 애니빅.

대한태권도협회(2025). 사업목표 및 기능. <https://www.koreataekwondo.co.kr/c001/c0012>

대한태권도협회(2025). 태권도란 무엇인가.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1>

문화체육관광부(2025). 2013년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안, <https://mcst.go.kr/>

박종인(2024). 태권도 시범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복도훈(2014). 1960년대 한국 교양소설 연구-4·19 세대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서명일(2008). 여성의 무도수련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무도산업대학원.
- 서성원(2016). 태권도역사와 문화의 이해. 서울: 애니빅.
- 서성원(2022). 1970-80년대, 태권도 수련층 어린이 편중 과정. 태권박스 미디어. 9월 8일자.
- 서영애 개인소장 자료.
- 세계태권도연맹(2005). <https://www.worldtaekwondo.org/about-wt/about.html>
- 송병권(2001). 해방이후 한국 여성스포츠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용준(2025). 여 골프사에 길이 남을 박세리 ‘만발 투혼’ ,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501513198>
- 신동선(2010). 한국 여성 태권도 경기의 변천과정.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 신경훈(2023. 10. 6.). 최윤희부터 신유빈까지 아시안게임이 낳은 국민여동생들, 동아일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60702i>
- 신현군(2014). 쿠베르텡과 여성스포츠, 한국체육철학회지, 22(4), 173-197.
- 오대열(2024. 4. 16.). 한국을 빛낸 스포츠 영웅들, ‘양궁의 전설’ 김수녕,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kid/kid_literacy/kid_sisanews/2014/04/15/AXER5RCB6CFZGSP6T254WCONJU/
- 용인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yongin.ac.kr/>
- 이경명(2002). 여성 태권도활성화방안,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학술자료집.
- 이미정(2008). 한국여성 태권도의 변천과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 이선영, 이성노(2024). 1980년 이후 한국 체육정책과 여성 생활체육 정책의 변천과 발달과정,
한국체육과학회지, 33(4), 1-19.
- 이숙경(2020). 세계태권도한마당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자산과 브랜드태도 및 대회충성도에 관한 연구,
11(3), 131-146.

이승민(2025). 8. 12. 전화면담.

이승민, 곽정현(2022).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한 인식 및 제고방안. 무예연구, 16(2), 47-66.

이재희, 김민정, 진지형(2015). 변화하는 올림픽, 패러다임의 전환: 올림픽과 양성평등, 한국여성체육학회, 29(3), 207-218.

이진우(2024). 태권도 주요기관의 사업 탐색 및 세계화 방안, 한중경제문화연구, 28, 121-135.

이학선(1979). 한국여성 태권도연맹 창립 그 의의와 발전. 태권도지 7월호.

이현정(2010). 한국 여성체육사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27-35.

이현정(2010). 근대 한국 여성스포츠의 발달과정,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이현정, 곽정현(2009). 신문기사를 통해 본 여성스포츠.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3(4), 159-172.

임신자 개인소장자료.

장정남 개인소장자료

전난희(2017). 여성 태권도 심판의 삶에 대한 연구, 국기원연구, 8(4), 97-126.

전수진(2012. 3. 9). 양성평등 완성한 런던올림픽. 중앙일보. Retrieved from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757025

정동구, 하웅용(2003). 광복 후 한국 여성체육문화 변천사, 체육사학회지, 8(1), 95-112.

정준영(2003).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서울: 책세상.

정찬모(2008). 태권도의 세계화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체육사학회지, 13(2), 1129-141.

조민지(2023). 1960-70년대 여성 서비스노동 연구 : 여성 버스안내원 사례를 중심으로.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선일보(1961). 만물상. 11월 5일자.

조선일보(1966).跆拳道(태권)의 세아가씨 榮譽(영예의) 初段(초단). 9월 20일자.

조선일보(1968). 외국인 태권도선수권대회. 6월 11일자

조선일보(1969). 여자태권사범, 해외진출. 2월 22일자.

조선일보(1969). 여자태권사범파견, 미에 송영임 2단. 4월 4일자.

최광근(2009). 한국여성 태권도 변천과정. 한국체육사학회지. 3, 129-142

최광근(2011). 태권도 세계화에 따른 대표시범단의 창단. 한국체육사학회지, 16(6), 59-71.

최영금(2012). 페미니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 한국여성스포츠.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최희숙(1993). 한국노동시장에 있어서 여성고용차별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태권낭자회(1987) 태권낭자 창간호. 3월 14일.

태권낭자회(1987). 태권낭자 창간호 표지 및 부서조직.

태권낭자회(1987). 태권낭자회 일정. 태권낭자 창간호.

태권낭자회(1987). 태권낭자회 임원 명단. 태권낭자 창간호.

태권낭자회(1989). 국제심판 박정옥 인터뷰. 태권낭자회 계간지(12월 30일)

태권낭자회(1989). 태권도찬가. 태권낭자 12월호.

태권낭자회(1990). 목련호 표지. 3월 30일.

태권낭자회(1990). 창간 3주년 특집호 내용 발췌. 3월 30일 목련호.

태권낭자회(1990). 태권낭자회 태권도시범 MBC방송출연. 태권낭자 6. 30. 14호.

태권낭자회(1992). 태권낭자 제23, 24호.

태권낭자회(1993). 수상의 기쁨 서영애 사범. 태권낭자 3월 제25호

태권낭자회(1994). 제1회 국기원 태권도 해외지도자연수세미나를 다녀와서. 한국여성 태권도회지 26호

태권도박물관(2024). 태권도 지식산업 3차 아카이빙 사업, 여성 태권도인 구술채록 소장자료(김영숙, 남궁명숙, 장정희, 정효심, 서영애, 임신자)

하태은(1999). 광복 이후 군 태권도의 발전사 연구, 세계태권도학회지, 3, 25-28.

한국스포츠과학원(2025). 1991년도 국민생활체육활동참여실태조사,
https://www.sports.re.kr/front/board/bs/boardView.do?board_seq=74&pageNo=2&menu_seq=&con_seq=1377&keyKind3=&keyKind4=&keyKind5=&keyKind6=&keyKind7=&keyKind=TITLE&keyWord=

한국스포츠과학원(2025). 2002년 한국의 체육지표, <https://www.sports.re.kr/index.html>

한국스포츠과학원(2025). 2002년 1990년대 국민생활체육지표 보고서, <https://mcst.go.kr/>

한국여성체육학회(2014). 한국여성체육학회 60주년 기념집.

한국여성체육학회(2025). 홈페이지. <https://phywomen.or.kr/>

한국여성 태권도연맹(2016). 홈페이지 내 내용(2016년 4월 28일).

한국여성 태권도회(1994). 한국여성 태권도 26호.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2025). 연혁. <https://www.wkbl.or.kr/about/history.asp>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db/kor/detail/movie/K/05380>

학술연구정보서비스(2025). 그러<https://www.riss.kr>

한국체육사편찬위원회(1999). 한국체육사.

한국학중앙연구원(2025).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49271>

한승백, 오현택, 김동제, 권창기, 이상호(2010). 스포츠화 과정으로서의 태권도의 세계화, 한국체육과학회지, 19(4), 15-25.

황옥철(2009). 광복이후 한국 여성 스포츠의 변천과 코칭문화 고찰, 한국코칭능력개발원, 11(4), 25-38.IOC(2025). IOC홈페이지, 1948년 런던올림픽 로고, <https://www.olympics.com/ko/olympic-games/london-1948>.



TAEKWONDO
초기 여성 태권도 발전사 연구